

2020 vol.179

MARCH
+
APRIL

태권도

TAEKWONDO

KTA
대한민국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SPECIAL REPORT I
도쿄(東京)에서 태극기를! <1>

SPECIAL REPORT II
태권도, 국기(國技) 2주년 맞다!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SEASON 2020 II

NATIONAL TEAM
2020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 대회
① 겨루기 ② 품새

PLAYER OF THE MONTH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
심재영
'1·2월의 유망주'
진호준

THE BEST
우리가 최고 태권도 명가!
서울시청
경희대학교

ISSN 1738-4818




대한민국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

CONTENTS

태권도 TAEKWONDO

03·04
2020 vol.179



표지 인물 이다빈

PUBLISHER'S COLUMN

005 · 독서, 가장 좋은 어린이 교육 방법

EDITOR'S LETTER

011 · 코로나19가 강타한 스포츠계, 그리고 그것이 남긴 교훈

PROLOGUE

012 · 『태권도』, 연륜의 뜨락에서 운명의 외길을 걸으며 그 날을 기약하리

SPECIAL REPORT Ⅰ
도쿄(東京)에서 태극기를! 〈1〉

014 · 끊임없이 갈고닦은 결실을 올림픽에서 거두려무나

016 · '종가(宗家) 태권도', 환희의 그 날을 향하여 첫걸음 내딛다

022 · **'태극 전사'별 분석 〈1〉 인교돈(남자 +87㎏), 이다빈(여자 +67㎏)**
"공략법을 찾았으니 금메달은 나의 손안에"

028 · **올림픽 태권도, 그 자취를 따라 〈1〉 2000 시드니**
올림픽을 따라가며 태권도 성장을 엿보고 싶다

032 · 2020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어떻게 치러지나?

NATIONAL TEAM

046 · **2020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 대회 ① 겨루기**
'젊은 피' 수혈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이뤄지다

048 ·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 대회 ② 품새**
경희대, 30세 이하부 석권 … 지도자들, 컷오프 경기 방식 선호

PLAYER OF THE MO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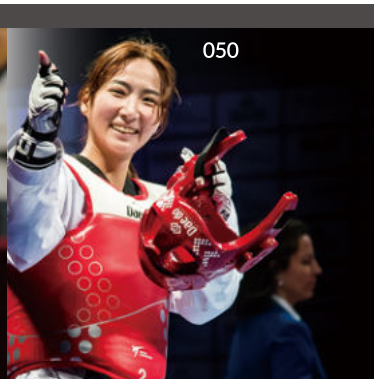
050 ·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 심재영**
"첫 출전 올림픽에서 부끄럼 없는 발걸음을 남기고 싶다"

052 · **『태권도』 선정 '1·2월의 유망주' 진호준**
천재성·노력·열정 어우러져 '진화 중'











독서, 가장 좋은 어린이 교육 방법



조선시대 후기 뛰어난 실학자로, 정조 임금의 각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천재 중의 천재, 다산 정약용 선생(1762~1836)이 「어린 아들」이란 제목으로 아름답게 풀어놓은 한시 한 토막을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교수(한문학)가 정성껏 해석하고 주석까지 달아 놓은 게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는 엄마들에게 꼭 참고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얼굴도 잘생긴 내 아들
날씨가 흐리거나 맑거나 걱정이 없네.
풀밭이 따스하면 송아지처럼 내빼고
과일이 익으면 원숭이인 양 나뭇가지 사이에 매달리네.
얼떠벼기 지팡에서 쑥떠 화살 날리고
시냇가 웅덩이에 풀잎 배를 띄우네.
어지럽게 세상에 매인 자들아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놀겠나!"

다산이 젊은 시절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며 한창 바쁘게 지내던 때, 그의 어린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날씨가 맑거나 흐리거나 개의치 않고 뛰어놀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아이들의 여린 풀잎 같은 천진함이 엿보입니다.
옛날 어린이는 누구나 이렇게 자랐을 테지요. 목가적 향취가 물씬 풍깁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 교육 방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를 공부시킴도 엄청나게 지독해졌습니다. 어지간한 과목은 과외 공부 학원에 집어넣고 고성능 세탁기 돌리듯 돌려 버립니다. 특수한 분야는 개인 지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회오리바람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지 걱정됩니다. 우리 집 안에도 그런 열혈 학부모가 한 사람 있어서, 가끔 어린이 교육 방법을 놓고 진지한 토론이 펼쳐집니다.

만일 누가 과연 가장 좋은 어린이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다방면에 걸쳐 독서를 꾸준하게 많이 시키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정보와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꼭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노벨상을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전 세계에서 유태인을 능가할 민족이나 나라가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약성경 초반부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어른들도 가볍게 접하기 어려운 이른바 '모세 5경'을 외우도록 지독한 독서 습관을 강요당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인지 능력 향상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몰라도, 한 번쯤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듯싶습니다.
어린이에게 느긋하고 진지한 감성을 심어 주고 북돋워 주는 데 도움 될지 몰라 타이밍은 좀 느슨해졌지만, 반칠환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詩)를 추천합니다. 엄마랑 어린이가 함께 읽으면 어떨까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금삥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느림의 미학(美學)!' 거기에 삶의 성공의 문을 열어 주는 열쇠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최 창 신**

CONTENTS

태권도 TAEKWONDO

03·04
2020 vol.179

SPECIAL REPORT II
태권도, 국기(國技) 2주년 맞다!

036 · 어제에서 오늘의 길을 배우고, 오늘에서 내일의 길을 찾자
038 · **어제 : 막전막후**
47년 밟아 온 법제화의 길, 연대기로 살펴보다
042 · **오늘: 발자취 & 현주소**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탄력 받고 '국정 과제'로 재도약
044 · **내일 : 방향 ① REPORTER'S EYE**
태권도 국기 지정에 따른 태권도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 중요
045 · **내일 : 방향 ② PROPOSAL**
태권도로 '회귀'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

PHOTO ESSAY

072 · 반쯤 핀 꽃이 더욱 아름답다
074 · 세월의 강요도 감싸 안는 나목에선, 더욱 진한 봄 내음이 배어나고

PHOTO OF THE MONTH

076 · 지금 가면 또 언제 오려나?

NEW BOOKS

077 · 『따라 말하는 태권도 공인 품새』

COMPETITION

078 · **KTA 파워 태권도 프리미엄리그 쇼케이스**
"재밌고 흥미롭다" … 무도성 강조

THE BEST
우리가 최고 태권도 명가!

082 · **〈3〉 서울시청**
10년의 기다림 마침표 찍고 비상의 나래 펴다
085 · **〈4〉 경희대학교**
한국 체육 주춧돌 자긍심을 바탕으로 명가로 자리매김하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

CONTENTS

태권도 TAEKWONDO

03·04
2020 vol.179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SEASON 2020 II

054 · 태권도 수련 효용을 널리 알려 위기를 호기로 전환해야
056 ·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 이해
060 · **KTA 지상 강좌 지도법 〈2〉** KTA 태권도 호신술 〈2·끝〉
064 · **KTA 지상 강좌 경영법 〈2〉** 태권도장 홍보와 마케팅 〈1〉
068 · **도장 탐방 〈13〉 태권도장 다물원** 태권도장다운 태권도장 다물원

HISTORY

088 · **한국 태권도의 자취를 좇아서 〈13〉**
태권도는 어떻게 현대화됐나? ③ 한국형 품새 제정
091 ·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시절 〈13〉

VISION & TREND

092 · **한민족 전통 무예 시리즈 〈12〉** 전통 실전 무예 수박(手搏) 전승자 송창열·준호 부자

ISSUE

096 · 지방 체육회장 선거, 태풍의 전주곡?

TOPIC

100 · **KTA 일자리창출협의회 활동과 설문 조사 분석**
심각한 청년 실업, 태권도계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OUR WORLD

102 · YOUNG'S EYE 대학생 명예 기자 마당

KTA & NEWS

110 · KTA 동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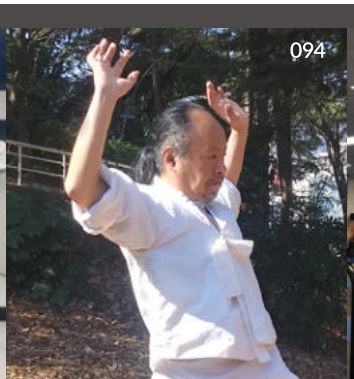
PUZZLE

119 · 낱말 맞히기

RECORDING ROOM

120 · 1·2월 각 대회 기록










KOREA
KOREA
KOREA

CONTENTS

태권도 TAEKWONDO

03·04
2020 vol.179

CREDIT

발행인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편집인 서완석 전 국민일보 체육 전문기자

편집장 최규섭 전 일간스포츠 종합기획 에디터

편집위원 김창완 태권도신문 편집국장
고진현 스포츠 서울 편집국장

자문위원 ▲ 도장 = 손성도(KTA 도장관리위원장) 진재성(KTA 강사)
▲ 학교 = 김종헌(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임신자(경희대학교 체육부장)
▲ 경기 = 장명수(KTA 겨루기 경기위원장) 신동수(KTA 품새 경기위원장)
▲ 심판 = 김석중(KTA 겨루기 심판위원장) 김정록(KTA 품새 심판위원장)
▲ 지도자 = 이창건(겨루기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
김인기(품새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
▲ 시범 = 이규형(전 국기원 원장) 이춘우(KTA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 단장)
▲ 언론 = 정태화(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정희돈(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 각 분야별 가나다순

객원 기자 도서출판 차고 문덕언 사진팀 팀장

제작 실무 박성욱 전략사업부 부장
유은주 전략사업부 차장
강경훈 전략사업부 과장
박혜정 전략사업부 주임

시도 협회 통신원 임성수(서울) 김도호(부산) 전종열(대구) 박종석(인천) 고남기(광주)
강정덕(울산) 심덕진(경기) 한성진(강원) 김영근(충남)
양희락(전남) 장태영(경북) 백성경(경남)

대학생 명예 기자 ▲ 경희대학교 = 김수진 김정은 박진주 신유진
▲ 배재대학교 = 박상현
▲ 백석대학교 = 이슬기 장대현
▲ 상지대학교 = 이소라
▲ 용인대학교 = 소지환
▲ 전주대학교 = 공찬욱
▲ 방송통신대학교 = 조선영

등록 번호	송파, 마00047
발행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02-420-4271~3
발행 연월일	2020년 3월 12일
등록 연월일	2004년 12월 7일
디자인·제작	도서출판 차고(02-6485-2580)

한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태권도 전문 잡지 『태권도』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힘찬 날갯짓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한결같이 독자의 곁에서 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태권도』를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격월간)마다 여러분을 찾아 한국 태권도의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태권도』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태권도』에 실린 글·그림·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합니다.

EDITOR'S LETTER

코로나19가 강타한 스포츠계, 그리고 그것이 남긴 교훈

글 서완석

중국발 코로나19 감염증이 온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대규모 전염을 막기 위한 대중 집회가 금지되면서, 대중문화 특히 스포츠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있다. 경기장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가 하면, 리그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도 한다. 아예 취소된 예도 있다. 국내 겨울철 실내 스포츠의 꽃인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지난 2월 하순부터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 마치 관객 없는 연극처럼, 경기장엔 선수들의 안간힘만이 빈 관중석에 메아리쳤다. 급기야 남자 프로농구(KBL)는 3월 1일 리그 중단을 선언했다.

핸드볼은 아예 남은 리그를 취소했다. 홈 앤드 어웨이로 펼쳐지는 프로농구와 프로배구와 달리, 전 선수가 한곳에 한데 모여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내린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프로야구는 개막을 앞두고 시범경기를 전면 취소했다. 3월 말로 다가온 정규리그 개막 일정 변경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프로축구는 개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각종 경기가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태국, 싱가포르, 중국으로 이어지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가 취소된 데 이어 3월 5일 예정이던 2020시즌 LPGA 개막전 일본 경기도 취소됐다. 코로나19가 창궐 중인 이탈리아의 프로축구 세리아 A 일부 경기도 무관중으로 열렸다. 3월 2일 열린 명문 유벤투스와 인터 밀란 경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콧대 높은 천하의 호날두(유벤투스)도 속절없이 관중 없는 경기장에서 헛심을 써야 했다.

태권도계도 코로나19 파동을 비켜 가지 못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 각종 대회와 연수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특히 도장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어린이 관원들의 감염을 우려해 휴관하는 사례가 잇달았다. 장기 휴관은 퇴관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관장들의 노심초사가 이만저만 아니다.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선, 협회 차원에서 도장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일부 관장은 관원이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 관장이 관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방역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관원 감소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관장들의 정성에 고개가 숙여질 정도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도 일선 도장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찾아가는 심사제도'를 긴급 도입했다. 지역별 승·품단 심사를 더는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없어, 자기 도장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KTA는 국기원과 협의를 마쳤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드리우고 있는 그림자는 짙게 깔려 있다. 지금의 기세로 보면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다. 현자는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던가.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의 소중함 아닐까? 스포츠에서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았던 관중에 대한 소중함. 사실 무관중 경기는 종종 징벌적 차원에서 치러진 예가 많았다. 홈경기에서 관중의 응원이 홈팀의 승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를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를 준 것이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감염증으로 말미암은 무관중 경기는 역설적이게도 관중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 보약 구실을 했다.

일선 도장도 이번 사태로 얻을 귀한 교훈이 있다. 그동안 도장만 차려 놓으면 의당 채워질 줄 알았던 어린 관원에 대한 소중함이다. 마치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잘 모르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갑자기 떠난 돌발 상황에서 그들의 존재가 더욱 감사해지는 법이다.

그동안 당연할 줄 알았던 존재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소중함. 그것으로 코로나19가 스포츠계에 주는 교훈은 충분하고 남음이 있다. K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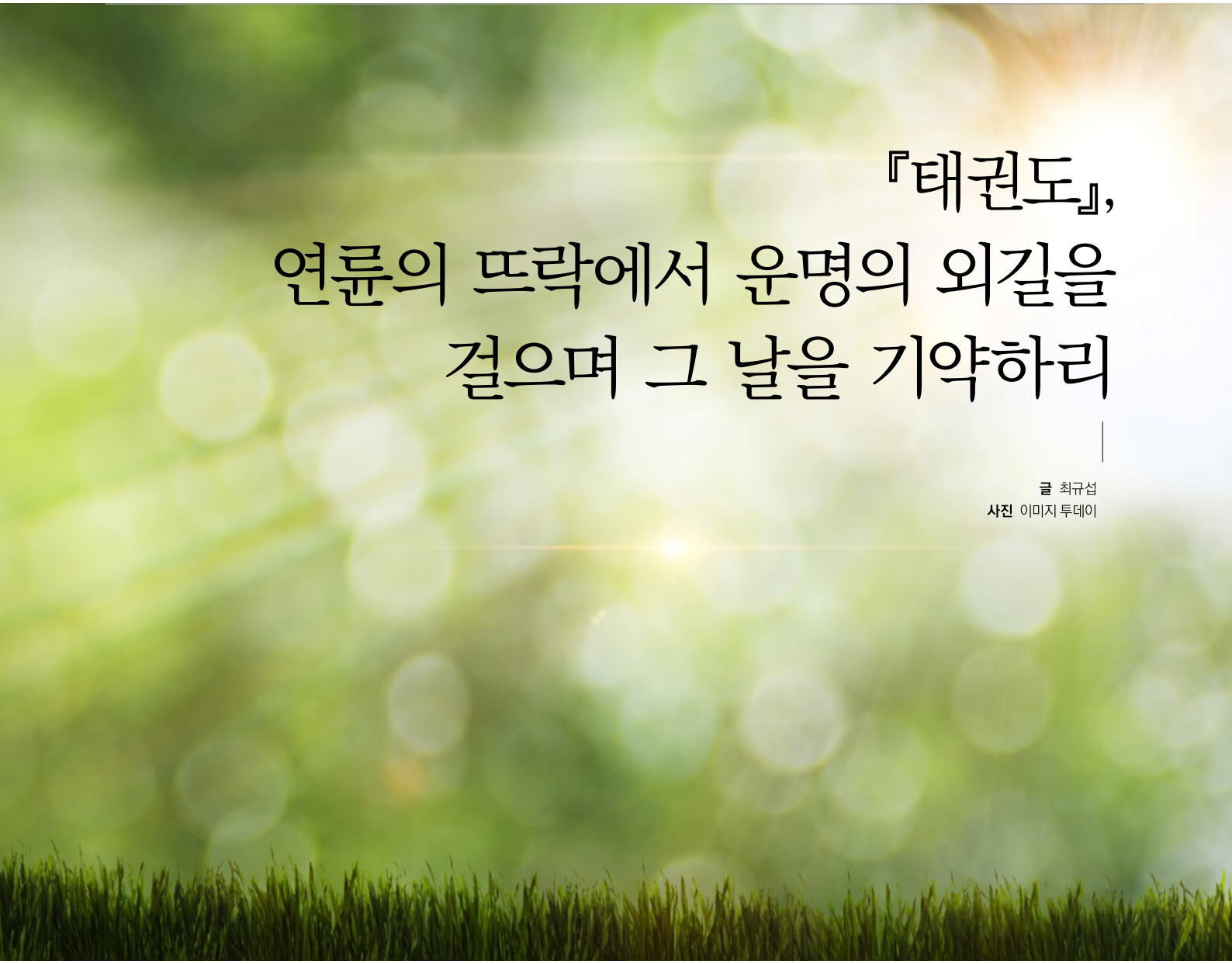
"(전략)
지쳤다!/ 오토(烏兎=세월)의 연속성/ 힘에 부친 추종/ 그 결말은 결국 무엇이려나?/ 앞만 보고 걷는 한결같음에/ 속절없이 뒤따른 시간/ 무위로 끝나는 안타까움만 쌓이는구나/ 멈춤을 모르는 발길/ 달콤한 쉼의 유혹에 빠져들려는 허약한 심정/ 허무한 결실에 초심은 흐트러졌네.

따른다!/ 연력(年歷)을 거부하는 가혹한 현실/ 운명이라 달래고픈 자존감/ 지나온 흔적 애써 밝히려 한다/ 세태로 장식한 역행의 논리/ 외면하고픈 어쩔 수 없는 존재/ 본성의 힘없는 저항이도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음/ 그 등에 기대려는 일말의 욕망/ 희망의 앞날은 도래하겠지.
(후략)"

「부끄러운 고백」·춘추필

3월이다. 활기와 소생을 가슴에 안은 봄이 이편으로 사뿐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생동의 빛으로 가득 찬 산하가 감동을 자아낸다. 생명을 머금은 햇살은 따사롭다. 겨울이 견딜 수 없다는 양 슬며시 물러난다. 무기력과 정체를 등에 지고 계절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렇다. 겨울과 봄이 맞닿는 때다. 감미롭게 내리는 봄비와 아우러진 봄바람은 정답기만 하다. 우련한 봄 햇살도 함께 어울린다. 3월이 노래하는 '봄의 찬미'에 도취한다.

다스한 볕뉘를 흠씬 누린다. 곳곳의 잔설을 녹이고 생명의 탄생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봄의 향연에 젖어든다. 절로 이 봄이 내뿜는 싱싱한 기운에 매혹된다. 아울러 다짐한다. 어둠의 심연에서 희망의 빛을 길어 올려 새봄과 어우러져야겠다. 3월의 그림자를 밟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자고 스스로와 약속한다. 이 봄이 토해 내는 찬탄에, 한국 태권도가 화답한다. "봄을 한껏 구가하련다!" 봄비와 봄바람을 듬뿍



『태권도』, 연륜의 뜨락에서 운명의 외길을 걸으며 그 날을 기약하리

글 최규섭
사진 이미지 투데이

받은 한국 태권도에, 대풍의 싹이 텄음을 소리 높여 외친다.

4월이다. 생명의 비롯됨은 오묘하다며 뜻깊게 다가온다. 신의 축복 또는 자연의 섭리, 어떻든 신비로운 탄생이다.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행복의 희열, 곧 살아 있다는 존재감이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솟는다. 자연스레 상념의 나래를 활짝 펴고 날아간다. 창조의 샘에 선명한 포말을 일으키며 퍼져 나가는 동심원이 보인다. 일었던 물결이 잔잔해지며, 시나브로 펼쳐지는 동심원이 가득 자리한다. 하나, 둘, 셋…. 마흔아홉에 이른다.

외길이었다. 개척자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여 내디딘 한결같은 마음의 한길이었다. "한국 태권도 전문 잡지의 우는살[嚆矢·효시]이 되겠노라." 맹세했던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발씨가 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곳곳에 드리워지는 고난의 그림자를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꺾여도 다시 일어나며 도전 또 도전의 투혼을 불살랐다. 오롯이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이 땅에 태권도가 용틀임할 날이 오기를 믿은 걸음걸음이었다.

생명의 계절이다. 희망과 열락의 빛을 내뿜는다. 2년 전 탐험의 열정을 불태워 온 강건한 생명체였음을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내디딘 발걸음이다. 여전히 다다르지 않았다. 기약하기 힘든 끝이다. 줄기차게 내달린 지난날을 시새움함일까? 지향하는 마지막 그곳은 쉬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어쩌면 신이 계시한 끝없는 운명의 길인지 모른다. 가슴속 깊이 그 소명을 아로새긴다. 이 4월, 힘차게 영광의 환호성을 터뜨릴 그 날로 향한다. KTA

[『태권도』 복간 2주년에 부쳐]

SPECIAL REPORT I

끊임없이 갈고닦은 결실을 올림픽에서 거두려무나

글 최규섭
사진 국가대표팀 제공



부른다. 어서 오라 손짓한다. 스포츠의 향연에 젖어 보라고 유혹한다. 지구촌 대축제에서, 투지를 불태우라고 부추긴다. 갈고닦아 온 기량을 한껏 봄내며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라고 권유한다. 꾐(?)에 빠지고 싶다. 기꺼이 달려가 이상향의 품에 안기고픈 열망이 거세게 불타오른다. 전 세계 스포츠인의 '엘 도라도(El Dorado)', 곧 황금향(黃金鄕)인 올림픽 마당에서 뛰놀려는 욕망이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피어오른다. 그대여! 함께 어울리자꾸나.

들린다. 귀가 먹먹해진다. 우람스레 터져 나오는 환성에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난다. 환호와 박수갈채에 이끌려 절로 외친다. "대한민국 만세!" "한국 태권도 만세!"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 한마당다운 정경이 벌써부터 그려진다. 스포츠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던 모습으로, 그만큼 친숙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다시 보고 느끼고 싶은 갈망을 어찌 저어하랴. 올림픽의 함성은 정겹기만 하다.

닦는다. 비록 옥일지라도 갈고 닦아야 빛을 낸다. 허투루 보낼 시간이 있을 리 없다. 기량 연마에 땀을 아낄 수 없다. 오늘 없는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흘린 굵은 땀방울이 다음날 금빛 물방울로 맺히리라 기약한다. 쇠를 담금질하면 더욱 단단해진다. 옛사람은 180번 담금질해 팔십연철(八十鍊鐵)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부을 때, 신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KTA



SPECIAL REPORT I

'종가(宗家) 태권도', 환희의 그 날을 향하여 첫걸음 내딛다

글 최규섭
사진 KTA DB, 국가대표팀 제공

"상·하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같으면 이긴다[上下同欲者勝·상하동욕자승]"
(『손자병법』 모공 편)

"너는 회계의 치욕[會稽之恥·회계지치]을 잊었느냐?"
월왕 구천은 오늘도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잠자리 옆에 매단 쓸개를 핥았다. 쓰디썼다. 20년이 흘렀지만 변함없는 쓴맛이었다. BC 494년, 회계산에서 겪었던 수치와 모욕의 망령 때문이런가? "아, 정녕 뇌리에서 씻을 수 없는 망령이란 말이냐!" 절로 새어나오는 탄식이었다.

그 망령에 겹쳐 한 얼굴이 떠올랐다. 오왕 부차였다. 득의에 찬 얼굴, 자신을 한껏 비웃고 있었다. 구천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뭔가를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다.

(중략)

마침내 구천은 군사를 다시 일으켰다. 벼르고 별렀던 설치(雪恥)의 군대였다. 앙갚음으로 무장한 월의 군사 앞에 오의 군대는 한낱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에 불과했다. 일사천리의 진군이었다.

이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회전만 남았다. 구천은 심기를 다스렸다. 그런 구천에게 한 장수가 술을 한 병 올렸다. 승리를 기원하는 헌수(獻酬)였다. 구천은 그 술을 냇물에 쏟았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오직 구천만이 의연하게 심경을 밝혔다. "『황석공 삼략(黃石公 三略)』「상략」에 이런 말이 있다. '병사들의 우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장수가 목마르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병사들의 취사용 솥에 아직 불이 지펴지지 않았는데, 장수가 배고프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를 장수의 예라고 한다.'"

냇물에 술 한 병, 물론 술맛이 제대로 남아 있을 리가 없다. 구천은 그 물을 모든 장수와 병사들과 함께 기꺼이, 또한 맛있게 나눠 마셨다. 군사들은 왕이 자기들과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한다[同甘共苦·동감공고]는 데 감격, 몸들을 내던지며 투지를 불살랐다.

장수의 예를 갈고 닦은 구천과 사기충천한 군사들이 어우러졌으니 그 기세는 욱일승천이었다. 오는 스러졌다. 구천은 천하의 패자가 되며 역사의 한쪽을 장식했다. 반면 망국의 길을 걸은 부차는 초라하게 역사에서 사라졌다(『건설경제』 2009년 10월 1일 자 '최규섭 대기자의 CF 손자병법'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편 발췌).

손자는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꼽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 상하가 한마음을 이뤄야 함을 들었다. "도란 백성으로 하여금 위와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는 길"(『손자병법』 시계편), "천하의 이익을 함께 나누려는 자는 천하를 얻고, 독차지하려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육도』「문도」)라는 병가(兵家)의 말은 다 같은 맥락이다.

"지바 하늘을 금빛으로 수놓겠다" … 대장정 첫걸음

"가자! 올림픽으로."

한국 태권도가 2020 도쿄(東京) 올림픽에서 빚어낼 '대풍가'의 서막을 올렸다. '종가(宗家)'의 위엄을 천하에 떨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며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도자와 선수가 하나로 어우러져 빛나는 결실을 올리겠다며 5개월의 작농에 들어갔다.

한국이 승전고를 높고 크게 울리겠다며 벼르는 2020 올림픽 태권도(7월 25~28일) 전장은 일본 지바(千葉)현 마쿠하리 메세(幕張)다. 나흘(일수 기준) 동안 남녀 4체급씩 총 8체급에 걸쳐 자웅을 겨루는 이번 대회전에, 한국은 남녀 각 3체급씩 6체급에서 왕좌에 도



전한다. ▲ '태극 도령' 장준(-58㎏), 이대훈(-68㎏), 인교돈(+80㎏)과 ▲ '태극 낭자' 심재영(-49㎏), 이아름(-57㎏), 이다빈(+67㎏) 등 6명의 '올림픽 전사'는 한결같이 개가를 올리겠다는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내로라하는 6명의 용병(勇兵)을 조련하는 장수는 모두 8명으로 이뤄졌다. 이창건 수석 코치를 비롯해 왕광연·염관우·함준·이원재 코치가 앞장서서 이끌며, 고형근 기술 코치(전담팀)와 나연희·김시상 의무 트레이너가 뒤를 받친다. 8명의 맹장은 "목표는 마땅히 금 과녁이다."라며 용병의 투혼을 부채질한다.

그럴 만하다. 태권도가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가장 큰 전과를 올린 나라는 단연 한국이었다. 2016 히우(리우) 올림픽까지 다섯 번 벌어진 전장에서, 한국은 총 40개 금 가운데 가장 많은 12개(30%)를 쟁취했다. 2012 런던 올림픽까지 1국가 4체급 출전 제한에 묶였던 규정이 없었더라면, 훨씬 많은 금을 따냈을 것이다. 2위 중국(7개·17.5%)을 배에 가깝게 따돌리며 여유 있게 선두를 내달렸다. 한국엔 끊이지 않는 금맥이었다. 첫 마당인 시드니 대회에서, 김경훈(남자 +80㎏), 정재은(여자 -57㎏), 이선희(여자 -67㎏)가 영광을 누린 이래 매 대회마다 금빛으로 점철한 한국이었다.

■ 역대 올림픽 금메달 획득 3대 종목

대회	종합 순위	순위	종목	개수	비율 (%)
2000 시드니	12	1	태권도	3	37.5
			양궁	3	37.5
		3	펜싱	1	12.5
		총 금메달		8	
2004 아테네	9	1	양궁	3	33.3
		2	태권도	2	22.2
		3	유도	1	11.1
			탁구	1	11.1
			배드민턴	1	11.1
			레슬링	1	11.1
		총 금메달		9	
2008 베이징	7	1	태권도	4	30.8
		2	양궁	2	15.4
			역도	2	15.4
		총 금메달		13	
2012 런던	5	1	사격	3	23.1
			양궁	3	23.1
		2	유도	2	15.4
			펜싱	2	15.4
		5	태권도	1	7.7
		총 금메달		13	
2016 히우 (리우)	8	1	양궁	4	44.4
		2	태권도	2	22.2
		3	펜싱	1	11.1
			사격	1	11.1
			골프	1	11.1
		총 금메달		9	
계		1	양궁	15	28.8
		2	태권도	12	23.1
		3	사격	5	9.6
		총 금메달		52	

※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0 시드니 대회부터 비교함.
※ 비율 = 종목별 금메달 수 ÷ 전 종목 금메달 수 × 100



충실한 훈련으로 '174일 작전' 완수 별러

D-174. 14명의 맹장과 용병은 지난달 2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모였다. 도쿄 올림픽에서 승전가를 부를 그 날을 기약하며 담금질에 들어갔다. 이른바 '174일 작전'의 시작이다.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을 때 그만큼 금빛 발차기를 봄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다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체계적 훈련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단계로 이뤄진 로드맵도 수립했다. 1단계(2월) 기초 체력 양성→ 2단계(3월) 아시아 선수권대회(코로나 19로 연기됨) 출전(심재영·이아름)으로 실전 경험 축적 → 3단계(4월) 타이완(臺灣) 전지훈련→ 4단계(5월) 국제 오픈 대회 출전과 영국 전지훈련 → 5단계(6·7월) 마무리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2단계와 3단계 기간에 벌어지는 올림픽 각 대륙 예선도 지켜보며 상대 전력 분석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복안도 마련해 놓았다.

1단계에선, 하루 세 차례씩 훈련이 이뤄졌다. 올림픽 전사들은 이에 맞춰 아침에 웨이트 트레이닝, 낮에 기술 훈련, 밤에 개인별 특성화 훈련을 차례대로 소화했다. 일주일에 각각 한 번씩 전자호구 겨루기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며 실전 감각을 쌓고 체력도 길렀다.

1단계에서,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진천 선수촌 스페셜 케어팀의 지원이다. 과학적 트레이닝, 심리 치료, 영상, 영양 등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 진단과 집중적 분석을 바탕으로, 스페셜 케어팀이 제시한 개개인 맞춤형 훈련은 훈련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올림픽에 대비해 진천 선수촌에서 담금질하는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대한체육회가 몇몇 전략 종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태권도는 '특혜 종목'이라 칭해도 무방하다. 대한체육회가 이처럼 태권도를 집중 육성하는 까닭이 있다. '스포츠 강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 부심하는 대한체육회가 맨 앞에서 열망을 이뤄 줄 핵심 전략 종목으로 태권도를 낙점했기 때문이다. 시드니 올림픽 이래 태권도가 일군 성과를 잘 아는 대한체육회로선 당연한 선택이다.

올림픽에서, 양궁과 더불어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태권도다. 곧, 양궁과 태권도는 스포츠 한국의 성가를 드높여 왔다. 두 종목의 공약수, 다시 말해 올림픽 무대에서 함께 활약을 시작한 시드니 대회부터 살펴보면 객관적 수치로 표출되는 사실이다. 시드니 대회부터 히우 대회까지 다섯 번의 올림픽에서, 한국은 모두 52개의 금을 수확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두 종목이 거둬들였다(**표 참조**). 27개(51.9%)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궁이 15개(28.8%)를,



태권도가 12개(23.1%)를 각각 따냈다. 가장 앞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린, 두말할 나위 없는 선봉장이었다.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 활약상이다. 같은 기간, 고국의 품 안에 금메달을 안긴 종목은 양궁과 태권도를 빼면 모두 11개다. 사격(5개/9.6%) → 펜싱·유도(4개/7.7%) → 레슬링(3개/5.8%) → 배드민턴·역도(2개/3.8%) → 탁구·수영·야구·체조·골프(1개/1.9%)의 순으로 금메달을 결실했다. 그런데 이 9개 가운데 두 자릿수 개수와 10%대 이상을 보인 종목은 없었다.

이 기간에, 양궁과 태권도는 "내가 으뜸이다."라고 서로 봄내는 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활약을 펼쳤다. 대회별로 봤을 때, 양궁은 네 차례 대회에서 1위의 수확량을 올렸다. 2000 시드니(3개/37.5%), 2004 아테네(3개/33.3%), 2012 런던(3개/23.1%), 2016 히우 대회(4개/44.4%)에서 최고의 전과를 거둔 종목이었다. 태권도도 뒤질세라 수확에 열을 올렸다. 2000 시드니(3개/37.5%), 2008 아테네 대회(4개/30.8%)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아테네 올림픽에선, 출전 4체급 모두 금빛을 차는 경이적 전적을 남겼다.

맹장과 용병이 한마음 한뜻을 이뤘으니 대풍은 필연이다. 그들은 감동에 젖어 환호작약하며 개선가를 부를 영광의 그 날을 꿈꾸며 지금 이 순간 온 힘을 쏟고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닦달하고 결코 도전을 피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불사를 때 환희와 감격을 만끽할 수 있다는 스포츠의 진리를 되새기며 땀을 아끼지 않는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나 지바로 날아가고 있다. 팽팽했던 시위는 여운이 남은 듯 떨리고 있다. 태극 도령과 태극 낭자가 쏜 야망의 화살이 금빛 과녁에 명중할 때, 그 떨림은 환희의 울림으로 화하리라. KTA

지도자 출사표



이창건 수석 코치

"사령탑으로서 승전고를 울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그에 비례해 등정의 열망이 가슴속에 가득 차 온다. 패배를 떠올리며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는 없다. 태극 전사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쌓아 대한민국인에게 승전보를 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온 힘을 다하겠다."



왕광연 코치

"올림픽 무대는 벌써 첫 막이 올랐다. 서막이 좋아야 종막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 한 점을 찍을 때까지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 기대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염관우 코치

"지도자와 선수가 한마음 한뜻을 이룰 때, 그 융합된 힘이 풍성한 수확을 올리는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원 팀(One Team)'의 기치 아래 똘똘 뭉쳐 과녁에 적중할 수 있는 분위기 창출에 힘쓰겠다.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고 즐길 줄 아는 선수를 만들고 싶다."



함준 코치

"오늘 최선을 다한 뒤 내일을 기약하는 장수가 되겠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감나무 밑에서도 먹는 수업을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선수들을 담금질하겠다. 좋은 원석에서 아름다운 옥을 가는 건 지도자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되새기겠다."



이원재 코치

"최상의 경기력은 심적으로 뒷받침될 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선수가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티프 제공에 초점을 맞춰 지도하겠다. '종가'를 대표해 태극 도복을 입은 선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구름판이 되겠다."



고형근 기술 코치(전담팀)

"지도자와 선수는 경기를 해석하는 방향과 이해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도자와 선수 간의 이런 괴리를 좁히고 상호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서로의 생각을 밝혀 상대를 공략하는 합일점을 찾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연희 의무 트레이너

"부상 0-몸 상태 100%를 목표로, 모든 선수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선수단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부상·치료·재활·훈련 일지 등 각종 데이터의 문서화에 더욱 신경 써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김시상 의무 트레이너

"선수가 생각지 않게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이려 한다. 선수들이 지도자의 지도 철학과 방식을 잘 수용하고 그에 맞춰 훈련을 잘 소화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도록 지닌 모든 힘을 쏟겠다."

태극 도령 낭자 출사표



장준 20·한국체육대학교

[남자 -58㎏급]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기 위해 흘린 땀을 잊을 수 없다. 이제 올림픽 마당을 밟게 될 그날까지 더욱 많은 땀방울을 쏟아 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불타오르는 투지가 느껴진다. 정상에 오를 때 걸림돌로 나타날 상대 분석도 철저히 해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 한다. 올림픽이 끝나고 패배의 변을 늘어놓는 상황에 빠지고 싶지 않다. 갈망해 온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이대훈 28·대전광역시청

[남자 -68㎏급]

"지난 두 번의 올림픽 때보다 훨씬 간절한 마음으로 훈련에 몰두했다.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자.'고 나 자신을 닦달하며 온 힘을 다해 훈련에 매진해 왔다. 이제껏 흘린 땀이 빛나는 결실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우리네 속담도 있지 않은가? 지난 8년 동안 가슴속 깊숙이 맺힌 올림픽 금의 한을 기필코 씻어 내고 싶다. 오뚝이 근성으로 2전3기를 이룬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인교돈 28·한국가스공사

[남자 +80㎏급]

"지난해 빛었던 '반전 드라마'를 올림픽 무대에서 꼭 재현하겠다. 갈수록 가팔랐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 왔다.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임을 느낀다. 첫 올림픽이지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금메달을 겨냥하겠다.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바탕으로 이미지 트레이닝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바(千葉)의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림으로써 성원해 준 모든 분께 보답하고 싶다."



심재영 25·고양시청

[여자 -49㎏급]

"초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복을 입은 이래 지난 17년간 남몰래 키워 온 꿈이 있다. 태극 도복을 입고 한국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치겠다는 야망을 부풀리며 기량을 갈고닦았다. 도쿄 올림픽에서, 그 자긍심에 어울리는 훌륭한 경기력을 봄내겠다.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결승전이라는 각오로, 종료 벨이 울릴 때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패배'와 '슬픔'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마지막에 웃는 선수가 되겠다."



이아름 28·고양시청

[여자 -57㎏급]

"첫 올림픽 무대다. 첫 도전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참되고 정성스러운 발걸음을 옮기겠다. 성취의 원동력은 경험에 앞서 땀이 아니겠는가?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훈련량을 쌓은 뒤 금 과녁을 노리겠다. 늘 이 세상이 주는 최상의 선물을 원했으나, 이번만큼은 이 세상에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평가받는 판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좀 더 성장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장(場)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이다빈 24·서울시청

[여자 +67㎏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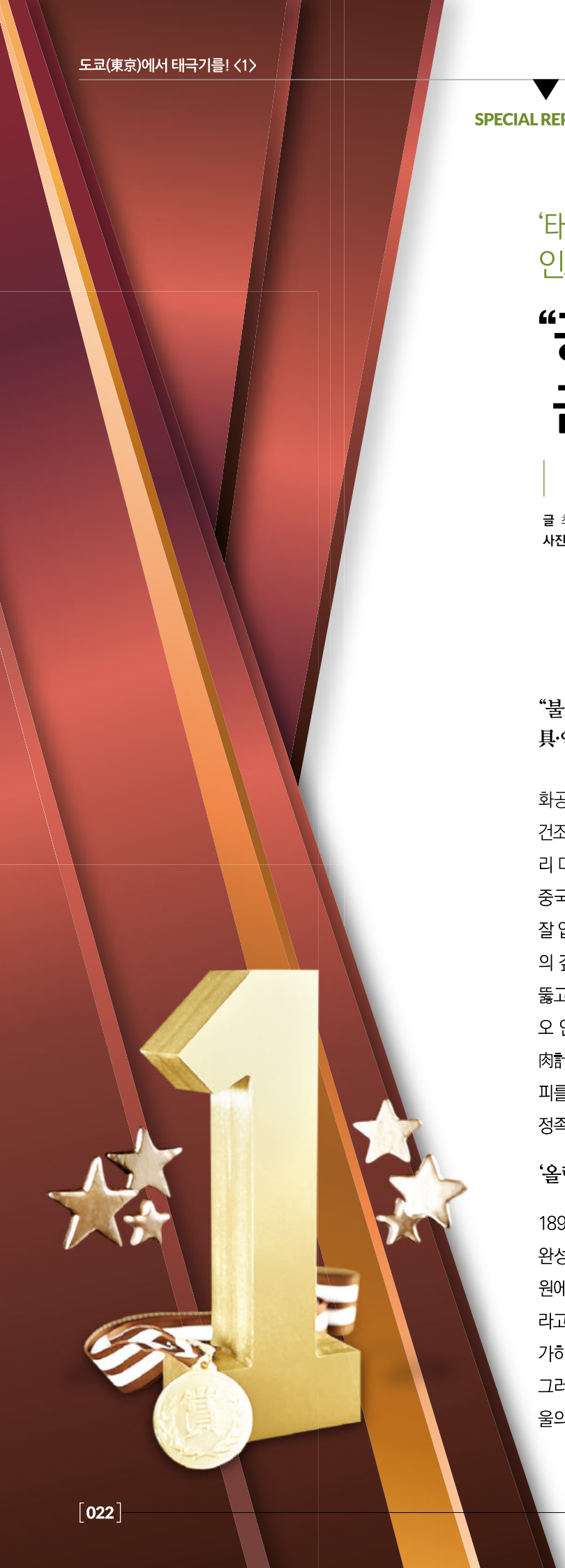
"올림픽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오랜 시간 다져 온 노력과 흘린 땀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투지가 솟구친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 왔다고 자부한다. 신은 땀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리라 믿는다. 첫 올림픽이지만, 불안감보다는 도리어 기대감이 든다. 패기와 체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태권도의 진수를 앞세워 정상을 노리겠다. 결전의 그날이 기다려진다. 지바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겠다."

SPECIAL REPORT I

‘태극 전사’별 분석 〈1〉
인교돈(남자 +87kg), 이다빈(여자 +67kg)

“공략법을 찾았으니 금메달은 나의 손안에”

글 최규섭
사진 WT 제공



“불을 붙이는 재료는 반드시 평소에 갖춰야 한다[煙火必素具·연화필소구]” (『손자병법』 화공 편)

화공법은 강력하다. 따라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건조한 때와 바람 부는 날이 그 하나다. 그리고 그 이전에 준비성이다. 미리 마련하여 갖춘 자만이 완벽한 화공계를 운용해 대첩을 거둘 수 있다. 중국 삼국시대 때 위 대(對) 촉·오가 맞붙은 대회전인 적벽대전이 이를 잘 입증한다. 제갈량이 평소 천문에 뜻을 두고 천체와 기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겨울철에 동남풍이 부는 시기를 꿰뚫고 있었을까? 제갈량이 자연의 변환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촉·오 연합군은 조조의 평천하 야망을 꺾을 수 있었다. 상대의 고육계(苦肉計)와 연환계(連環計)에 휘말린 조조의 백만 대군은 하릴없이 적벽에 피를 흩뿌리며 스러져 갔다.
정족지세(鼎足之勢), 곧 천하 3분의 형세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올림픽 전장’에서 개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1896년 첫 잔을 띄운[濫觴·남상] 근대 올림픽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에서 이상을 찾을 수 있다. 이 차원에서,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Citius, Altius, Fortius)”라고 기치를 내걸었다.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지 않고 참가하는 데 있다.”라는 올림픽 강령도 이와 맥이 닿는다.
그러나 1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은 이런 올림픽 이념과 강령을 허울의 틀 안에 가둬 놓았다. ‘평화의 대제전’은 명색일 뿐, 더는 올림픽

표 1. 남자 +80㎏급 올림픽 랭킹

순위	이름	나라	점수
1	블라디슬라프 라린	러시아	592.91
2	인교돈	한국	502.65
3	알렉산더 바흐만	독일	289.67
4	이반 콘라드 트라이코비치	슬로베니아	279.78
5	압둘 이수푸	니제르	278.98
6	마하마 초	영국	273.84
7	사자드 마르다니	이란	264.44
8	라디크 이사예프	아제르바이잔	245.16
9	마이콩 시케이라	브라질	243.12
10	스마이일 두이세바이	카자흐스탄	234.15
11	카를로스 산소레스	멕시코	217.07
12	라파엘 알바	쿠바	213.24
13	조나단 힐리	미국	209.79
14	루시안 자파로프	카자흐스탄	208.68
15	안소니 밀랑 오바므	가봉	205.87
16	로만 쿠즈네트소프	러시아	198.69

2020년 2월 기준

표 2. 여자 +67㎏급 올림픽 랭킹

순위	이름	나라	점수
1	비안카 워크던	영국	622.72
2	정수인	중국	534.80
3	이다빈	한국	379.06
4	밀리차 만다치	세르비아	376.21
5	나피아 쿠스	터키	343.82
6	알렉산드라 코발추크	폴란드	325.86
7	브리세이다 아코스타	멕시코	298.45
8	마리아 에스피노사	멕시코	277.78
9	가오판	중국	217.54
10	폴리나 한	러시아	208.25
11	마델린 고만-쇼어	미국	208.04
12	칸셀 데니즈	카자흐스탄	182.28
13	로레나 브란들	독일	172.81
14	카리나 즈다노바	러시아	167.88
15	이바 라도스	크로아티아	163.76
16	마리 폴 블	프랑스	159.17

2020년 2월 기준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 간 국력 과시의 각축장으로 변한 지 오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올림픽 정신은 퇴색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올림픽을 말할 때면 으레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던 '스포츠 대축제'는 '스포츠 전화(戰火)'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물려주고 쓸쓸하게 퇴장했다.

그렇다면 이런 '올림픽 전장'에선, 승전고를 울리려고 온 힘을 쏟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임전 태세를 갖추고 싸움터에 나가 승리를 기약해야 한다. 병가에서 "내실을 다지고 준비를 갖춘다[實而備之·실이비지]."라고 역설하는 까닭이다. 상대의 역량이 충실하고 전투력이 강하다면, 힘을 기르면서 공격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전쟁에서, 일정불변의 태세란 있을 수 없다. 지형을 포용해 가며 흐르는 물처럼 변환의 묘가 필요하다. 상대의 태세에 따라 작전을 달리하며 그 허를 찔러야 한다.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종잡을 수 없는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 상대의 꾀를 내 꾀로 만드는 모략 [將計就計·장계취계]의 효용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은 어떨까? 매한가지다. 스포츠 강국 간에 위상을 높이려는 뜨거운 백병전이 펼쳐지리라는 예상을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종가(宗家)'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는 한국 태권도가 힘을 기르기 위해 담금질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태권도』가 '태극 전사'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대비책을 세워 올림픽 전장에 나가 승리를 기약하는지를 엿보려는 까닭이기도 하다.

도쿄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남녀 각 4체급씩 총 8체급에 걸쳐 자웅을 다툰다. 각 체급별로, 16명씩 모두 128명이 올림픽 전장에 뛰어들어 금을 거머쥐려 한다. 곧, 체급마다 16:1의 금 쟁탈전이 벌어진다. 올림픽에 출전할 정도라면, 모두 내로라하는 전사들이다. 당연히 저마다 우승에 도전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올림픽 랭킹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체급별로, 올림픽 랭킹 상위 5명과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3년 통산 점수 1위에게 준 자동 출전권을 뺀 나머지 10장은 각 대륙 예선 등을 통해 결정된다. 결국, 이 티켓도 올림픽 랭킹 상위권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태극 전사가 대비 전략을 세워 맞설 상대도 이 범위(**표 1·2 참조**) 안으로 좁혀들 수밖에 없다.

이번 올림픽 전야(戰野)에서, 패권을 다툴 태극 전사는 모두 여섯 명이다. ▲ '태극 도령' 장준(-58㎏), 이대훈(-68㎏), 인교돈(+87㎏)과 ▲ '태극 낭자' 심재영(-49㎏), 이아름(-57㎏), 이다빈(+67㎏)이 한결같이 개선가를 소리 높여 부르겠다며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6명의 선봉장이 올림픽 전역(戰役)에서 운용할 방책을 앞으로 3회에 걸쳐 엿보고자 한다.

인교돈 : '반전 드라마' 완성할 방략 구했다

인교돈은 우리 나이로 올해 스물아홉 살이다.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오히려 연륜이 쌓일수록, 무르익은 기량으로 전성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라운드의 마법사'라는 별호에 걸맞은 '반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자연스레 2020 올



2019 지바(千葉) 월드 그랑프리 남자 +87㎏급 결승전에서, 인교돈(오른쪽)이 오른발을 뻗어 '천적' 블라디슬라프 라린의 몸놀림을 견제하고 있다.

림픽 금 갈망을 더욱 부풀리는 인교돈이다.

인교돈에게 이번 올림픽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서른을 눈앞에 두고 처음 밟는 올림픽 마당이기 때문이다. 불쑥 두려운 마음이 일 때도 있다. 그럴수록 투지를 불태우며 전의를 다진다. 6년 전 발병했던 악성 림프암까지 극복한 '오뚝이'의 근성을 바탕으로, 2020 올림픽을 금빛으로 물들이겠다고 스스로를 닦달한다.

지난해 거둔 전과는 인교돈의 용기를 북돋운다. 지난해 월드 그랑프리에서, 인교돈은 모스크바 파이널 대회와 지바(千葉) 대회를 석권했다. 아울러 6전7기 끝에 '라린' 공포증도 씻어 냈다. 그동안 자신을 6연패(敗)의 늪에 몰아넣으며 천적으로 자리했던 블라디슬라프 라린(러시아)에게 패배의 쓰라림을 안기며 통쾌하게 설욕했다.

금 희망봉을 향해 닻을 올린 인교돈의 항해에, 암초로 떠오를 만한 상대는 3명 정도다. 라린을 비롯해 라디크 이사예프(아제르바이잔)와 라파엘 알바(쿠바)가 그들(**표 3 참조**)이다. 2016 바쿠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부터 주요 세계 무대를 토대로 한 역대 상대 전적에서, 인교돈은 이사예프(2승)에게만 우세할 뿐 라린(1승 6패)과 알바(1패)에겐 열세를 보였다. 물론 전적은 절대적 가늠자는 아니다. 거울로 삼을 뿐 집착해 마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2019 지바 월드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라린에게 겪었던 그동안의 패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 펼쳐 나갈 승부의 전기를 만들었던 경험은 그래서 소중하기만 하다.

이들에 대한 승리 비책도 이미 마련했다. 소속 팀(한국가스공사)과 국가대표팀에서 정성 어린 편달로 인교돈을 담금질하는 이원재 코치는 "지난 경기들을 거듭 복기해 해법을 찾았다."라고 밝혔다. 이 코치는 "상대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격파 묘책을 강구해 냈다."라고 덧붙였다.

올림픽 랭킹 1위 라린은 기술적으로 흠잡기 힘든, 완벽에 가까운 선수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파워도 대단하다. 침착한 데다 집중력도 좋다. 스피드 있는 몸놀림의 인교돈보다도 더 빠르다.

그렇다면 공략이 불가능한가? 아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패배를 모르는 절대 강자가 있을 리 없다. 라린이 그동안 드러낸 약점을 파고들면 얼마든지 승리를 움켜쥘 수 있다.

라린의 아킬레스건은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다. 종종 대회 초반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2017 런던 월드 그랑프리 16강전에서 스

표 3. 인교돈이 헤처 나가야 할 암초

이름	나라	올림픽 랭킹	주요 경력	상대 전적	
				대회명	결과
블라딘슬라프 라린	러시아	1위	2019 WC 금(-87㎏) WG 금 6회	2017 WC 4강전(-87㎏) 2017 아비장 WG 파이널 결승전 2018 로마 WG 결승전 2018 타오위안(桃源) WG 결승전 2018 맨체스터 WG 결승전 2018 푸자이라 WG 결승전 2019 지바(千葉) WG 결승전	6:8 패배 0:2 패배 8:13 패배 2:6 패배 6:7 패배 1:5 패배 6:5 승리
				계	1승 6패
라디크 이사예프	아제르바이잔	8위	2016 히우 OL 금 2015 WC 금(-87㎏)	2017 라바트 WG 16강전 2017 아비장 WG 파이널 8강전	23:5 승리 9:2 승리
				계	2승
라파엘 알바	쿠바	12위	2019 WC 금	2019 WC 8강전(+87㎏)	11:16 패배
				계	1패

※ 2016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부터 2019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까지 전적임.
※ OL: 올림픽, WC: 세계 선수권 대회, WG: 월드 그랑프리

마이일 두이세바이(카자흐스탄)에게 11;19로, 2017 우시(無錫)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8강전에서 로만 쿠즈네트소프에게 3:9로 각각 무너졌던 게 그 좋은 보기다. 두 경기 모두 1차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라린에겐 첫판이었다. 인교돈은 2017 월드 그랑프리 때 라린을 꺾는 돌풍을 일으켰던 두이세바이를 8강전에서 만나 15:0으로 잠재우고 그 기세를 몰아 대회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라린은 또 초반 경기가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으면 제풀에 주저앉는 약점도 지녔다. 결국 기복이 심한 아킬레스건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경기 초반(1라운드)과 중반(2라운드) 라린의 공세를 제어하고 종반(3라운드)에 승부를 걸어야 함을 뜻한다.

이 코치는 바로 이 아킬레스건을 꿰뚫고 묘책을 마련했다. "라린을 큰 점수 차로 이기기란 어렵다. 초·중반엔 방어에 초점을 맞춰 추격 가시권에서 쫓아가며 라린을 초조하게 만든 뒤 종반 한순간에 일격으로 승패를 갈라야 한다. 경기 운영 전략을 잘 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인교돈이 라린에게 첫 승리의 감격을 누렸던 2019 지바 월드 그랑프리 결승전을 되돌아보면 이 전략의 효용성을 실감할 수 있다. 그 경기에서, 인교돈은 종료 2초 전 단 1점 차의 짜릿한 역전승(6:5)을 거뒀다. 왼발 페인팅으로 시선을 빼앗은 후 다시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왼발 머리 내려차기를 작렬해 역전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사예프와 알바는 2m가 넘는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 있는 공격이 일품이다. 둘 모두 운동 신경과 운동 능력이 뛰어나 순간적으로 시도하는 공격이 위력적이다. 단점도 비슷하다. 경기 운영 능력이 좋지 않아,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답답해하며 무너지곤 한다.

경력 면에선, 차이가 있다. 2015 첼랴빈스크 세계 선수권 대회와 2016 히우(리우) 올림픽을 석권한 이사예프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장(31)이다. 반면, 알바는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긴 했어도 비교적 덜 알려진 복병이다.

이 코치는 "둘의 장점을 오히려 약점으로 화할 수 있는 전략에 맞춘 전술을 가다듬고 있다. 선취점을 뺏기지 않고 기선을 잡는다면 충분히 이길 만한 상대들이다. 타이밍을 빼앗고 어깨싸움과 거리 싸움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데 전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공략법을 밝혔다.



2019 지바(千葉) 월드 그랑프리 남자 +87㎏급 메달리스트들이 함께 한자리에 섰다.
인교돈(왼쪽에서 두 번째)이 블라디슬라프 라린(왼쪽 끝)에게 6전7기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이다빈 : 누가 대붕의 날갯짓을 막을 수 있으랴

이다빈은 대붕이 되려 한다. 큰 날개를 활짝 펴 지바 하늘을 뒤덮겠다는 야망을 감추지 않는다. 허황한 꿈이 아니다. 그럴 만한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다. 도쿄 올림픽에서, 태극 낭자의 자긍심을 곧추세울 힘과 기술을 두루 갖췄다.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동안의 결실이 입증하는, 곧 현실로 나타날 꿈이다.

세계 무대에서, 이다빈은 비교적 신예다. 2018 타오위안(桃園) 월드 그랑프리에서, WT가 주최·주관하는 세계 대회 정상을 처음 밟았다. 비록 이에 앞서 아시안 게임 2연패(2014 인천·2018 자카르타-팔렘방)의 화려한 전적을 쌓았긴 해도 아직 '월드 스타'라 하기엔, 2% 모자랐다. 철벽을 자랑하던 비안카 워크던(영국)의 아성에 균열을 내고(22:6 승) 우승한, 혜성같이 나타난 '깜짝 스타'였다.

첫걸음을 산뜻하게 내디디면서 순탄한 행로가 열렸다. 지난해 5월에 열린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 -73㎏급에선,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기세를 봄내며 손쉽게 정상에 다달았다. 7월엔, 줄곧 괴롭히던 고질이었던 왼발목에 메스를 가했어도, 금세 털고 일어나 12월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에서 금메달에 입맞춤했다. 역시 워크던을 꺾고(2:1 라운드 승) 쟁취한 우승이어서, 한결 환희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만큼 이다빈의 미래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성시대 개막을 눈앞에 뒀다. 막이 올라갈 무대는 다름 아닌 도쿄 올림픽이다. 의욕과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번 올림픽 마당에서 대붕의 날갯짓을 볼 듯싶다. 한마디로,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이다빈에게 크게 열려 있는 '올림픽 문'이다.

이다빈의 별호는 '터빈(Turbine)'이다.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이 붙였다. 타오위안 월드 그랑프리에서 줄기찬 공세를 퍼부으며 상대를 밀어붙이는 이다빈의 플레이에 매료된 최 회장이 즉석에서 지어 줬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동기를 연상케 하는 별명에서, 누구라도 이다빈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지 쉽게 그려진다.

가야 할 금 길목에서, 이다빈이 걷어 내야 할 걸림돌은 올림픽 랭킹 1, 2위인 워크던과 정수인(鄭姝音·중국)이다. 3위 이다빈보다 한두 단계 더 올라간 강호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다빈, 워크던, 정수인을 도쿄 올림픽 여자 +67㎏급 금메달을 다툴 3인방으로 손꼽는 데 주저함이 없다.

2016 올림픽이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주요 세계 무대를 바탕으로 한 상대 전적에서, 이다빈은 워크던에겐 약세를, 정수인에겐 절대 강세를 각각 나타냈다(**표 4 참조**). 워크던에겐 2승 3패로 조금 밀렸고, 정수인에겐 3승을 거두며 한판도 내주지 않았다.

스포츠의 두드러진 속성 가운데 하나인 상대성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다빈이 또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밀리차 만디치(세르비아)다.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만디치는 5년 뒤 2017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을 만큼 꾸준히 정상권을 지키고 있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상대다. 이다빈은 만디치와 딱 한 번 맞붙어 쓰라림을 안았다. 2018 로마 월드 그랑프리 준결승전에서, 14:16으로 분패했다.

워크던은 세계 선수권 3연패(2015~2019)가 엿보이듯 +67㎏급 최강자다. 2017년엔, 세계 최초로 월드 그랑프리 한 시즌 전관왕(4)에 오를 정도로, 수년 동안 '여제'로 군림해 왔다. 1991년생으로,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듯 지난해부터 약간 노쇠한 기미를 보이다가도 큰 무대에선 여전히 강자의 풍모를 봄낸다.

정수인은 2016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비교적 어린 나이인 스물한 살 때 2015 첼랴빈스트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타나 은메달을 차지하는 선풍을 일으켰다. 여자 -73㎏급 결승전에서, 태극 낭자 오혜리에게 4:5로 져 정상 한 걸음 앞에서 물러났다. 2016 올림픽 금을 밑받침 삼아 이후 정점을 향해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월드 그랑프리 마당에서, 3연속 우승(지바·소피아·모스크바)을 휩쓴 초강세가 입증하는 페이스다. 이 대회 8회 우승으로, 태극 도령 이대훈(13회)에 이어 최다 우승 2위에 올라 있다.

워크던은 큰 키와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해 경기를 주도적으로 풀어간다.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직선 공격으로 상대를 당혹스럽게 한다. 또 몸통 공격과 얼굴 공격에 두루 능하다.

그러나 이런 공세 일변도는 양날의 칼로서, 강점이 단점이 될 수도



2연패(敗) 끝에 워크던을 처음으로 꺾은 이다빈이 기쁨에 젖어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18 타오위안(桃園) 월드 그랑프리 여자 +67㎏급 결승전에서, 이다빈(오른쪽)이 오른발 발차기로 비안카 워크던의 얼굴을 공격하고 있다.

있다. 지장으로 평가받는 이창건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는 이 점에서 '워크던 파훼법'을 찾았다. 이른바 상대의 장점을 역이용하는 장계취계다.

"워크던은 강약 조절 없이 모든 공격에 가진 힘의 100%를 퍼붓는다. 그만큼 체력 소모가 커, 경기 종반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진다. (이)다빈이가 장기인 빠른 발을 활용해 워크던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체력을 허비토록 유도하면 승산이 높다. 종반에 승부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비한 체력 배양과 스텝 향상에 애쓰고 있다."

정수인은 워크던과 비슷한 스타일을 지녔다. 역시 큰 키를 활용한 공격으로 경기를 압도한다. 그런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단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이 "이다빈에겐 정수인보다 워크던 공략이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배경이다.

이 수석 코치는 달리 내다본다. 지금까지 이다빈이 정수인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며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데서 비롯된 자신감에 근거해서다. 물론 이미 정수인을 물리칠 묘책도 강구해 놓았다.

"워크던도 그렇지만 정수인은 다빈이를 무척 꺼린다. 심리적으로, 다빈이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다. 이 심리를 바탕으로, 공격의 활로를 뚫으려 한다. 거리를 주지 않고 접근전을 펼치는 전법이다. 빠르게 움직인 뒤 바짝 붙어서 얼굴을 공격하면 승기를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다. 체력이 좋은 다빈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전술이다." KTA

표 4. 이다빈이 걸어 내야 할 걸림돌

이름	나라	올림픽 랭킹	주요 경력	상대 전적	
				대회명	결과
비안카 워크던	영국	1위	WC 금 3회 WG 금 7회 WGCS 금 2회	2017 모스크바 WG 4강전 2017 아비장 WG 파이널 결승전 2018 타오위안 WG 결승전 2018 푸자이라 WG 8강전 2019 WGCS 결승전	6:21 패배 9:16 패배 22:6 승리 기권패(1:2) 2:1 승리
				계	2승 3패
정수인 (鄭姝音)	중국	2위	2016 히우 OL 금 WG 금 8회	2017 아비장 WG 파이널 4강전 2018 로마 WG 8강전 2018 타오위안 WG 4강전	8:7 승리 21:1 승리 24:23 승리
				계	3승
밀리차 만디치	세르비아	4위	2012 런던 OL 금 2017 WC 금(-67㎏ 금)	2018 로마 WG 4강전	14:16 패배
				계	1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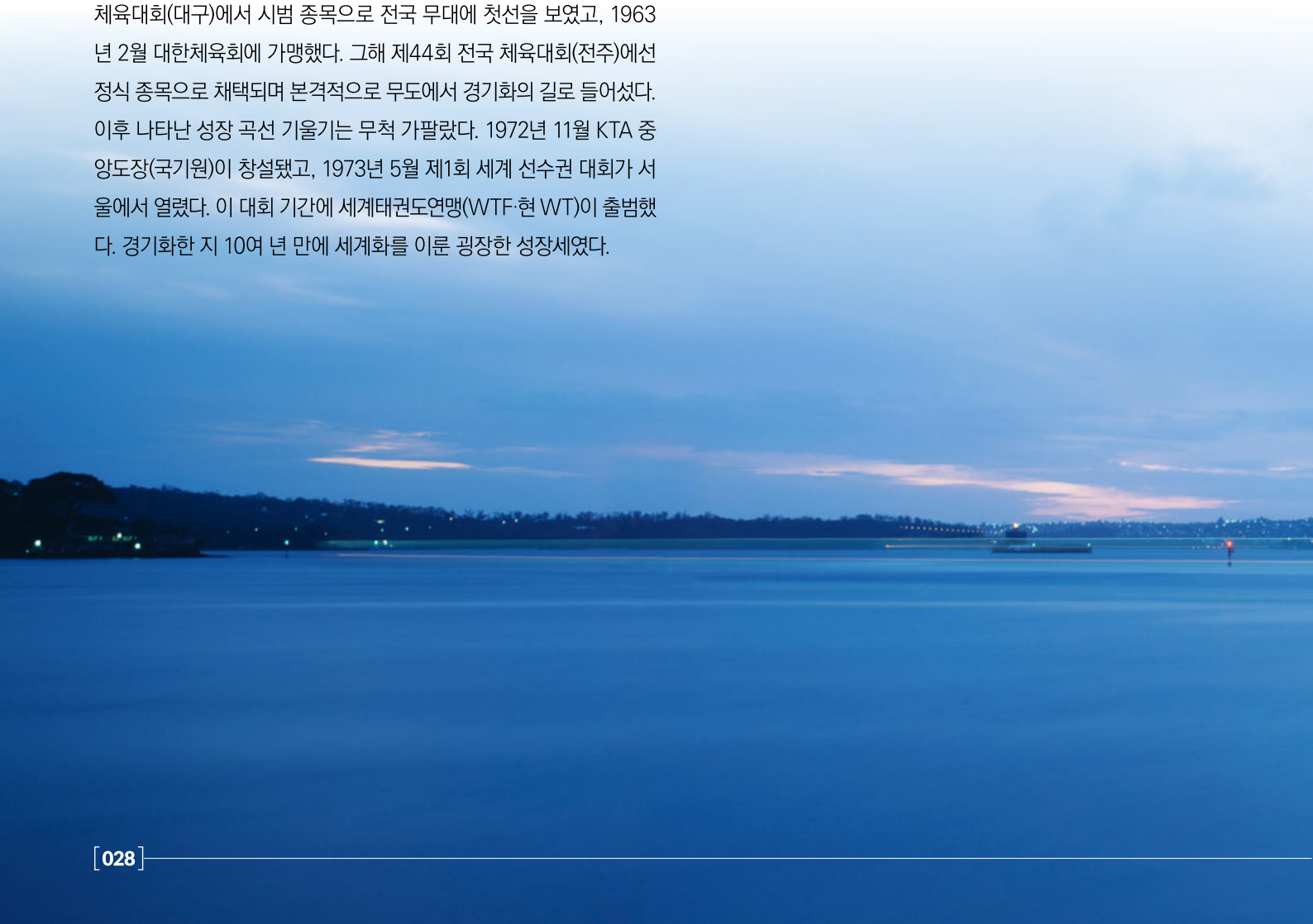
※ 2016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부터 2019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까지 전적임.
※ WC: 세계 선수권 대회, WG: 월드 그랑프리 WGCS: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올림픽 태권도, 그 자취를 따라 ① 2000 시드니

올림픽을 따라가며 태권도 성장을 엿보고 싶다

글 최규섭
사진 출처 한국사진기자협회 발간 『SYDNEY 2000』

한국 태권도의 총본산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다. 그 연원은 1961년 9월 16일 대한태수도협회 창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5년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이름을 바꿨고, 2016년 5월 25일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와 통합해 오늘날 이름이 됐다. 1962년 제43회 전국체육대회(대구)에서 시범 종목으로 전국 무대에 첫선을 보였고, 1963년 2월 대한체육회에 가맹했다. 그해 제44회 전국 체육대회(전주)에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본격적으로 무도에서 경기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나타난 성장 곡선 기울기는 무척 가팔랐다. 1972년 11월 KTA 중앙도장(국기원)이 창설됐고, 1973년 5월 제1회 세계 선수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대회 기간에 세계태권도연맹(WTF·현 WT)이 출범했다. 경기화한 지 10여 년 만에 세계화를 이룬 굉장한 성장세였다.



태권도, 올림피아드에서도 거듭 성장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태권도의 급성장에 주목했다. 1980년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린 제82차 IOC 총회는 태권도를 종목으로 받아들였다. 그 과실은 올림픽 마당에서 열렸다. 1988 서울 올림픽과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지구촌 가족에게 경기화를 이룬 태권도의 맛과 멋을 보여 줬다.

기세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1994년 9월 4일,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IOC 총회는 태권도를 2000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태권도사의 한 쪽을 장식하는 기념비적 날이었다. 오늘날 WT 회원국은 210개국에 이른다. 국제연합(UN) 회원국 수(193)를 훨씬 능가한다. 태권도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망라하는 범세계적 스포츠임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만큼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인 올림픽 무대에서 열리는 태권도에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태권도는 올림피아드에서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시범 종목 두 번과 정식 종목 다섯 번 등 모두 일곱 번 올림픽 무대에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시범 종목으로 데뷔 무대였던 1988 서울 대회에 출전했던 나라는 35개국이었다. 28년 뒤 2016 히우 지(리우데) 자네이루 대회에 출전한 나라는 63개국으로 늘어났다. 거의 배에 이르는 증가다.

올림픽은 조국의 명예와 개인의 영광을 다투는 총성 없는 '스포츠 전쟁'이다. 무수한 대회전이 벌어지는 전장에서, 월드 스타로 발돋움하고 각광받으려는 전사들이 투지와 열정을 불태운다. 물론 태권도도 마찬가지다. 다른 종목에 비해 올림픽 연륜이 짧긴 해도, 나름대로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래서 올림픽 태권도가 걸어간 길을 좇아감은 뜻깊을 듯싶다. 정식 종목으로 펼쳐진 2000 시드니 대회부터 2016 히우 대회까지 '올림픽 태권도, 그 자취를 따라'를 연재키로 기획한 배경이다.







(왼쪽부터) 신준식, 이선희, 정재은, 김경훈

2000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종가' 한국, 제1막을 화려하게 장식

개요 | 1988 서울 올림픽 때 시범 종목으로 첫선을 보인 지 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막을 연 첫 올림피아드였다. 시드니 올림픽 파크 안에 자리한 스테이트 스포츠 센터에서, 나흘(9월 27~30일·일수 기준) 동안 열렸다. 51개국 103명(남자 55·여자 48)의 선수가 남녀 각 4체급씩 모두 8체급에 걸린 24개(금·은·동 각 8) 메달을 다퉜다. 개최국으로 최대치 8장의 티켓을 확보한 호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4체급 이내 출전 제한에 묶였다. 이에 따라 상한선 4장의 티켓을 따내 출전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타이완·쿠바·필리핀·스페인·미국 등 6개국이었다.

메달 각축전은 무척 뜨거웠다. 예상을 뛰어넘는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18개국이 메달 맛을 봤을 정도였다(**표 1 참조**). 메달 색깔을 떠나 복수 메달을 차지한 나라가 한국(4개)을 필두로 호주·쿠바·타이완(臺灣) 등 4개국에 불과했다. 금메달로 국한하면 더했다. '종가(宗家)'인 한국만이 복수(3개)를 가져갔을 뿐, 남은 5개는 호주·쿠바·미국·중국·그리스 등 5개국에 골고루 돌아갔다. 메달 종합 순위에선, 한국(금 3·은 1개)이 맨 위에 올랐고, 호주와 쿠바(이상 금 1·은 1개)가 그 뒤를 이어 나란히 2위에 자리했다(**표 2 참조**).

메달리스트 가운데 여자 -57㎏급에서 은메달을 딴 짠 히에우 응안(베트남)은 눈길을 끌었다. 응안은 베트남 올림픽 역사상 첫 메달의 주인공으로서 감격의 눈물을 터뜨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태극 전사' 자취 | 내심 4체급 석권을 노렸던 한국은 한 걸음 차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경훈(남자 +87㎏급), 정재은(여자 -57㎏급), 이선희(여자 -67㎏급)가 금빛 결실의 주역이 됐다. 신준식(남자 -68㎏급)은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올림픽 정상에 서기까지 극적 요소로 점철됐던 김경훈은 그만큼 눈길을 사로잡았다. 1990년대 세계 태권도계를 지배했던 '제왕' 김제경이 부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포기함에 따라 치러진 최종 선발전에서 문대성을 제치고 시드니행 티켓을 거머쥔 일부터가 그랬다. 또 생각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고사(1992년)로, 한때 태권도를 그만두려고까지 했다가 첫 세계 등정을 올림픽에서 이룬 '반전 인생'도 충분히 극적 효과를 배가했다.

2000 올림픽에서, 김경훈은 공수에서 완벽한 솜씨를 봄냈다. 4경기를 치르며 22점을 얻는 동안 내준 점수는 4점뿐이었다. 안방의 텃세를 등에 업은 다니엘 트렌턴과 맞선 결승전에서도, 김경훈은 6:2로 여유 있게 이기며 마지막 한 점을 화려하게 찍었다. 1라운드 1분 30초께 오른발 앞차기로 기선을 잡은 뒤 왼발과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뒤차기, 돌려차기, 내려찍기 등 다채로운 발기술로 트렌턴을 농락했다. 2라운드 58초를 남기고 오른발 돌려차기로 5:0까지 앞서 나가며 일찌감치 승패를 갈랐다. KTA



2000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개요

1. 기간
2000년 9월 27~30일(현지 시각)

2. 장소
호주 시드니 올림픽 파크 스테이트 스포츠 센터

3. 출전국
51개국

4. 출전 선수
103명(남자 55, 여자 48)
호주(8명), 한국·타이완·쿠바·필리핀·스페인·미국(이상 4명) 등

5. 한국 출전 선수 및 성적
▲ 남자 -68㎏ 신준식(경희대학교) 은메달
▲ 남자 +80㎏ 김경훈(삼성 에스원) 금메달
▲ 여자 -57㎏ 정재은 (한국체육대학교) 금메달
▲ 여자 -67㎏ 이선희(삼성 에스원) 금메달

6. 메달 수
총 24개(금·은·동 각 8개)

7. 메달 획득국
▲ 남자 : 11개국(금·은·동 각 4개국)
▲ 여자 : 11개국 (금 3개국, 은·동 각 4개국)
▲ 종합 : 18개국 (금 6개국, 은 8개국, 동 7개국)

표 1. 2000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

남녀	체급	금		은		동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나라	이름
남자	-58㎏	그리스	미하일 무루트소스	스페인	가브리엘 에스파르사	타이완	황치슝(黃志雄)
	-68㎏	미국	스티븐 로페즈	한국	신준식	이란	하디 사에이
	-80㎏	쿠바	앙헬 마토스	독일	파이잘 에브노우탈리브	멕시코	빅토르 에스트라다
	+80㎏	한국	김경훈	호주	다니엘 트렌턴	프랑스	파스칼 겐틸
여자	-49㎏	호주	로렌 번스	쿠바	우르비아 멜렌데스	타이완	치수주
	-57㎏	한국	정재은	베트남	짠 히에우 응안	터키	하미데 비크친 토순
	-67㎏	한국	이선희	노르웨이	트루데 군데르센	일본	오카모토 요리코
	+67㎏	중국	천중(陳中)	러시아	나탈리아 이바노바	캐나다	도미니크 보스하트

표 2. 2000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종합 순위 3걸

구분	순위	나라	금 은 동
남자	1	한국	1 1 0
	2	그리스	1 0 0
	2	미국	1 0 0
	2	쿠바	1 0 0
여자	1	한국	2 0 0
	2	호주	1 0 0
	2	중국	1 0 0
종합	1	한국	3 1 0
	2	호주	1 1 0
	2	쿠바	1 1 0

2020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어떻게 치러지나?

글 최진우 국제태권도신문 편집인 겸 선임기자
사진 최진우, WT제공

2020 도쿄(東京) 올림픽(7월 24~8월 9일)과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8월 25~9월 6일))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1988 서울 대회 시범 종목을 시작으로 19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종목으로 확정함에 따라 2000 시드니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치러져 왔다. 2020 도쿄 패럴림픽은 올림픽에 태권도가 채택된 지 20주년 무대로, 세계 속에 올림픽 종목으로서 위상이 어떠한지 보여 주는 중요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오는 7월 25~28일 나흘 동안(이하 일수 기준) 일본 도쿄도 지바(千葉)현에 위치한 마쿠하리 메세(幕張)에서 열린다. 패럴림픽 태권도 경기는 2015년 1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회에서 2020 도쿄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 처음 실시된다.

장애인 태권도는 패럴림픽을 비롯해 데플림픽(농아인 올림픽)과 스페셜 올림픽(지적·발달·자폐성 장애인 올림픽)에 모두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몇 안 되는 장애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패럴림픽 태권도 경기는 오는 9월 3~5일 사흘 동안 역시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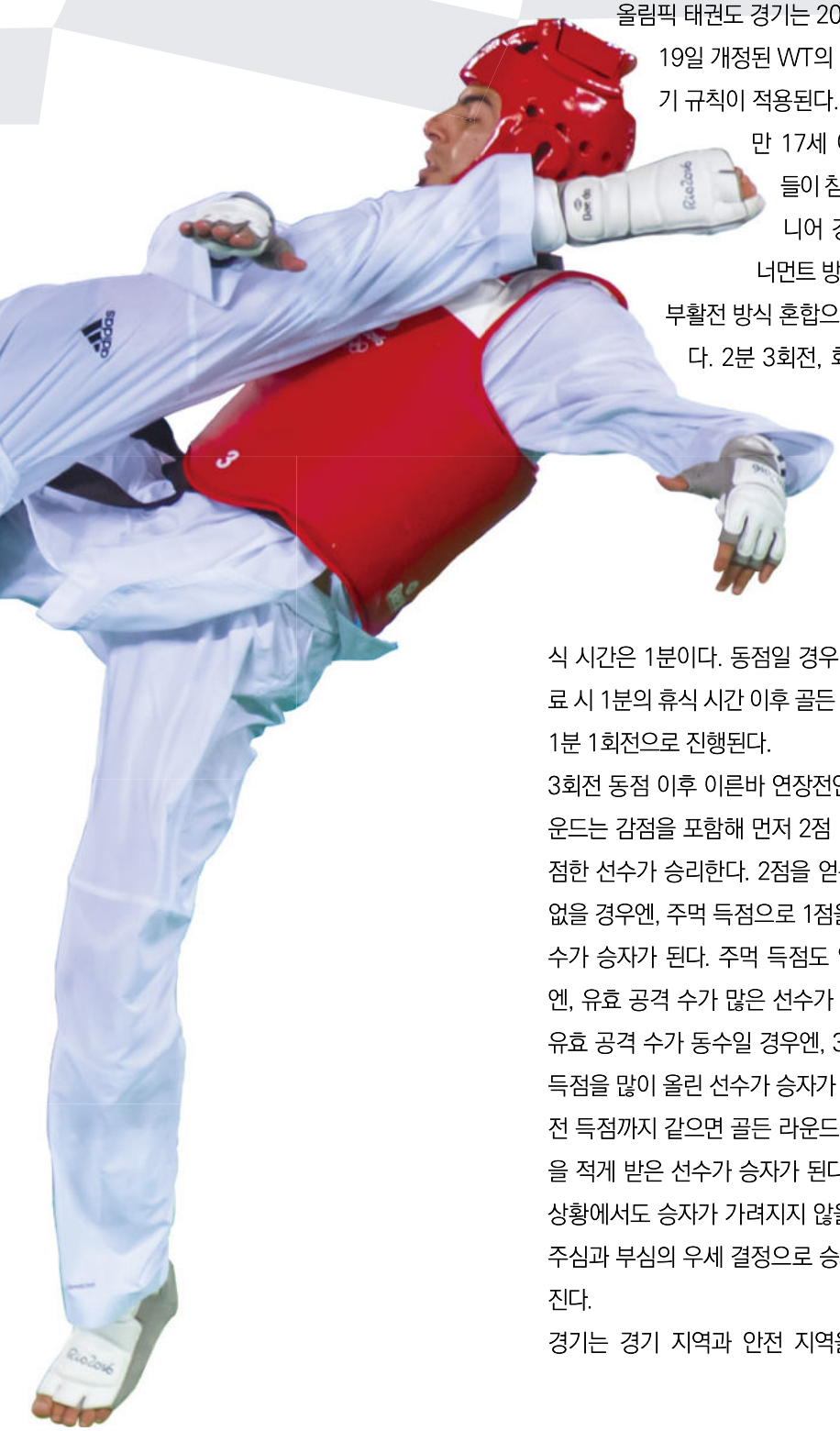
올림픽 : 4D 영상 판독, 공격적 룰 적용 희망적

세계태권도연맹(WT)은 올림픽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체급별(남자 -58kg, -68kg, -80kg, +80kg/ 여자 -49kg, -57kg, -67kg, +67kg) 5위 이내 랭크된 국가에 해당 체급의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올림픽엔, 2020년 1월 올림픽 랭킹이 기준이 되어 5위 이내의 선수를 보유한 국가에 올림픽 자동 출전권이 주어졌다.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체급별 1위자(3년간 누적 점수)에게도 올림픽 출전권 티켓이 주어진다.

즉, 올림픽 랭킹과 월드 그랜드슬램에 48장(체급별 6장)의 출전 티켓이 걸려 있다. 또 아시아·아프리카·유럽·팬암 대륙 선발전에 64장(체급별 2장)의, 오세아니아 대륙 선발전에 총 8장(체급별 1장)의 출전권이 각각



이대훈(왼쪽)은 2012 런던 대회(은)와 2016 히우(리우) 올림픽 대회(동)에 이어 2020 도쿄(東京) 대회까지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노린다.



부여됐다. 이 밖에 와일드카드 4장, 개최국 4장 등 이번 올림픽 출전 티켓은 총 128장으로 이뤄졌다.

한국은 남자 -58㎏, -68㎏, +80㎏, 여자 -49㎏, -57㎏, +67㎏에 올림픽 랭킹 5위권 선수가 자리함으로써 총 6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2019년 5월 19일 개정된 WT의 겨루기 경기 규칙이 적용된다. 올림픽은 만 17세 이상 선수들이 참가하는 시니어 경기로, 토너먼트 방식과 패자부활전 방식 혼합으로 진행된다. 2분 3회전, 회전 간 휴식 시간은 1분이다. 동점일 경우 3회전 종료 시 1분의 휴식 시간 이후 골든 라운드로, 1분 1회전으로 진행된다.

3회전 동점 이후 이른바 연장전인 골든 라운드는 감점을 포함해 먼저 2점 이상을 득점한 선수가 승리한다. 2점을 얻은 선수가 없을 경우엔, 주먹 득점으로 1점을 얻은 선수가 승자가 된다. 주먹 득점도 없을 경우엔, 유효 공격 수가 많은 선수가 승리한다. 유효 공격 수가 동수일 경우엔, 3회전에서 득점을 많이 올린 선수가 승자가 되며, 3회전 득점까지 같으면 골든 라운드에서 감점을 적게 받은 선수가 승자가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엔, 주심과 부심의 우세 결정으로 승자가 가려진다.

경기는 경기 지역과 안전 지역을 포함해 10m×10m 이상 12m×12m 이하의 경기장에 직경 8m×8m(모서리 면 3.3m)의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매트 위에서 진행된다. 주심 1명과 부심 2명 등 총 3명의 심판이 경기장에 배치되며, 대도 전자호구와 전자 헤드기어가 사용된다.

손기술(바른 주먹의 앞부분을 이용한 지르기 공격)에 의한 몸통 부위(몸통 호구로 보호되는 부위)의 타격과 발기술(복사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공격)에 의한 몸통 부위 또는 머리 부위의 타격이 허용된다. ▲몸통 부위를 손기술로 가격할 경우 1점을 ▲몸통 부위를 발기술로 가격할 경우 2점을 ▲머리 부위를 발기술로 가격할 경우 3점을 ▲몸통 부위를 회전을 이용한 발기술로 가격할 경우 4점을 ▲머리 부위를 회전을 이용한 발기술로 가격할 경우 5점을 각각 얻는다. 상대 선수가 1회의 감점 선언을 받으면 반대 선수에게 1점이 추가된다.

발 부위에 착용한 센서가 몸통 부위와 머리 부위에 착용한 센서와 접촉하고, 체급별 정해진 강도 이상의 가격이 이뤄질 경우 유효 득점으로 판단된다. 손기술과 회전을 이용한 발기술의 경우 추가 점수를 부심이 채점한다.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넘어지는 행위, 고의로 경기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상대 선수를 잡거나 미는 행위, 다리를 들어 상대의 공격을 막는 행위, 도는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의 다리를 차거나 3초 이상 다리를 들고 있는 행위,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리를 허공에 차거나 상대 허리의 아래 방향으로 차는 행위는 감점으로, 상대에게 1점이 추가된다. 또 주심의 '갈려' 선언 이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손으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는 행위, 무릎과 이마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클린치 상황에서 발날 및 발바닥으로 몸통 부위를 공격해



지난해 월드 스타로 떠오른 장준(오른쪽)은 2020 올림픽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손꼽힌다.

도 감점 대상이다.

감점의 경우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10회 이상 받으면 반칙패가 선언된다.

태권도 경기의 승패는 주심 직권승(RSC), 점수 차승(PTG), 골든 포인트승(GDP), 우세승(SUP), 기권승(WDR), 실격승(DSQ), 반칙승(PUN) 등으로 구분된다. 통상 KO 판정은 주심 직권승이며, 3회전에서 20점 차가 날 경우 점수 차 승이 선언된다.

경기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 '준비', 시작을 알리는 '시작' ▲ 중단을 선언하는 '갈려' ▲ 경기 속개를 칭하는 '계속' ▲ 반칙에 의한 '감점' 등으로 명칭이 구분된다.

주심 및 심판의 판정에 더해 영상 판독도 함께 진행된다. WT는 이번 도쿄 올림픽에 4D 영상 장비를 도입해 영상 판독 시 사각 지역이 사실상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D 영상 판독은 경기장 정중앙 위쪽과 전후에 30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360°회전으로 경기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기 모습이 전체적으로 담겨 사각이 최소화된다.

영상 판독은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 중 코치가 주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넘어진 행위, 한계선 밖으로 나간 행위, 갈려 선언 후 공격하는 행위,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등의 감점 사항들과 부심의 기술 점수(손기술, 회전을 이용한 발기술) 등에 있어 요청이 가능하다. 단, 요청 전 5초 이내에 일어난 행위로 제한된다.

영상 판독 요청이 있으면, 주심은 해당 코치에게 영상 판독 사유를 확인한 후 영상 판독관에게 전달한다. 이때 영상 판독관은 30초 이내에 주심에게 영상 판독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영상 판독은 매 경기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영상 판독 결정 사안에 대한 소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코치가 영상 판독 요청 권한이 없더라도 3회전 종료 10초 이내와 연장전에서는 부심의 기술 점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WT가 겨루기 경기 규칙을 공격적으로 개정하면서, 태권도 경기는 한층 박진감이 넘치고 있다. 또 4D 영상 판독 장비가 단순히 영상 판독에만 그치지 않고 올림픽 중계 방송사인 OBS와 협약을 통해 중계 영상으로 사용됨으로써, 시청자 또한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됐다.

패럴림픽: 유형 통합돼 신체적 한계로 일방적 경기 우려

WT는 패럴림픽에도 랭킹 시스템을 도입했다. 2009년 제1회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랭킹시스템이 도입됐다. 2020년 4월까지 랭킹 포인트 획득을 기준으로, K43과 K44 유형 통합 남녀 각 3체급(남자 -61㎏, -75㎏, +75㎏/ 여자 -49㎏, -58㎏, +58㎏)의 랭킹 순위에 따라 패럴림픽 출전권이 부여된다.

장애인 태권도 등급은 K41(양팔 어깨 아래 절단 또는 마비), K42(한 팔 어깨 아래 절단 또는 마비), K43(양팔 팔꿈치 아래 절단 또는 마비), K44(한 팔 팔꿈치 아래 절단 또는 마비)로 구분된다.

WT는 이번 패럴림픽에 K43과 K44 유형을 출전 부문으로 정했다. K43 유형의 경우 체급별 파라 랭킹 1~2위까지 선수를 보유한 국가에 출전권이 부여되며, K44 유형은 체급별 파라 랭킹 1~4위 선수를 보유한 국가에 출전권을 준다. 한 국가에 2명 이상의 선수가 있을 경우 한 선수에게만 출전권을 준다.

도쿄 패럴림픽엔, WT 파라 랭킹에서 ▲ K43 유형 2장, K44 유형 4장 등 총 36장 ▲ 대륙 선발전에서 아시아·아프리카·유럽·팬암·오세아니아 총 30장(체급별 1장) ▲ 와일드카드 3장 ▲ 개최국 3장 등 총 72명이 참가한다.

한국은 현재 K43 유형의 선수는 없는 상태이며, K44 유형의 선수도 파라 랭킹에서 4위 이내의 선수가 없다. 따라서 오는 4월 중국 우시(無錫)에서 개최 예정인 2020 도쿄 패럴림픽 아시아 선발전에서 체급별 1위에 올라야 참가가 가능하다.

이번 패럴림픽에는 올림픽과 동일하게 대도 전자호구가 사용된다. 장애인 태권도 경기는 선수 안전을 위해 손기술과 머리 부위 공격이 허용되지 않아, 헤드기어를 착용하긴

해도 전자 헤드기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경기는 올림픽과 동일하게 경기 지역과 안전 지역을 포함해 10m×10m 이상 12m×12m 이하 경기장에 직경 8m×8m (모서리 면 3.3m)의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매트 위에서 진행된다.

패럴림픽은 역시 올림픽과 동일하게 만 17세 이상 선수들이 참가하는 시니어 경기로, 토너먼트 방식과 패자 부활전 방식 혼합으로 진행된다. 2분 3회전, 회전 간 휴식시간은 1분이다. 동점일 경우 3회전 종료시 1분의 휴식 시간 이후 1분 1회전의 골든 라운드가 진행된다.

3회전까지 승패를 가리지 못했을 경우 연장전인 골든 라운드가 진행된다. 선취 득점을 올리거나 상대방이 2개의 감점을 받았을 경우 승자로 선언된다. 연장전에서도 동점일 경우 유효 공격수가 많은 선수가 승리하며, 유효 공격 수가 동수일 때엔 3회전 중 회전 승리 수가 많은 선수가 이긴다. 이마저도 동수일 때엔, 3회전에서 3점 이상과 4점의 발기술 점수가 높은 선수에게 승리가 돌아간다. 발기술 점수로도 판정을 가리기 힘들 경우엔, 연장전에서 감점을 적게 받은 선수가 승리한다. 연장전까지 모든 항목이 동점일 때엔, 주심과 부심이 우세승을 결정한다.

손기술(바른 주먹의 앞부분을 이용한 지르기 공격)에 의한 몸통 부위(몸통 호구로 보호되는 부위)의 타격과 발기술(복사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공격)에 의한 몸통 부위 공격의 타격이 가능하다. 손기술은 가능하나 득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척추 부위는 공격할 수 없다.

▲ 몸통 부위 발기술 공격의 경우 2점을 ▲ 회전에 의한 발기술(뒤차기) 몸통 부위 공격은 3점을 ▲ 360° 회전에 의한 발기술(돌려차기) 몸통 부위 공격은 4점을 각각 얻는다.

▲ 감점의 경우 상대에게 1점이 추가된다.

올림픽과 동일하게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넘어지는 행위, 고의로 경기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상대 선수를 잡거나 미는 행위, 다리를 들어 상대의 공격을 막는 행위, 도는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의 다리를 차거나 3초 이상 다리를 들고 있는 행위,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리를 허공에 차거나 상대 허리의 아래 방향으로 차는 행위는 감점으로 상대에게 1점이 추가된다. 또 주심의 '갈려' 선언 이후 상대를 가격하거나, 손으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는 행위, 무릎과 이마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클린치 상황에서 무릎 및 발날 또는 발바닥으로 몸통 부위를 공격해도 감점 대상이다. 선수가 감점 10회를 받을 경우 반칙패가 선언된다.

패럴림픽 태권도 경기의 승패는 주심 직권승(RSC), 점수 차승(PTG), 골든 포인트승(GDP), 우세승(SUP), 기권승(WDR), 실격승(DSQ), 반칙승(PUN), 점수 확정승(PTS) 등으로 구분된다. 점수 차 승의 경우 1회전 경기 시작 후 언제라도 20점 차가 날 경우, 점수 확정승은 1회전 경기 시작 후 언제라도 40점을 먼저 득점한 선수가 승자가 된다.

올림픽과 달리 패럴림픽은 머리 부위 공격이 허용되지 않아 머리 공격이 이루어져 맞은 상대가 경기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공격자에게 실격패가 선언된다. 하지만 승자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달리 4D 영상 판독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국제 대회와 동일한 환경의 영상 판독이 진행된다.

영상 판독은 감점 사항과 상대의 위험한 행위로 말미암아 해당 선수가 감점을 받았을 경우에 요청 가능한다. 매경기 1개의 요청권이 주어진다. 올림픽과 같이 영상 판독 결정에 대한 소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3회전 종료 10초 이내 또는 결승전에선, 부심의 득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영상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WT가 패럴림픽에 K43 유형과 K44 유형의 참가를 결정함에 따라, 장애인 태권도 경기는 보다 박짐감 넘치고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의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43과 K44 유형의 신체적 한계가 명확한데, 해당 유형의 통합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점은 신체적 한계로 일방적인 경기가 될 수도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2020 도쿄 패럴림픽 참가 가능성이 높은 주정훈(오른쪽)은 장애인 태권도에 입문한 지 2년 만에 한국의 간판 선수로 떠올랐다.

SPECIAL REPORT II

어제에서 오늘의 길을 배우고, 오늘에서 내일의 길을 찾자

글 최규섭
사진 KTA DB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그렇다. 법률로 명문화한 태권도의 상징성이다. 축구·씨름 등이 주장하는 주관적 관념론을 뛰어넘는 뜻깊은 선언적 의미가 함축된 조항이다. 네 어절, 열네 자(한자 표기 제외)로 이뤄진 이 짧은 문장은 그만큼 태권도인의 가슴속에 각별하게 와 닿는다. 아울러 무릇 태권도인이라면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다듬도록 일깨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 맞다. 그 타당성은 이른바 '태권도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을 보면 쉽게 엿볼 수 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과연 현실은 그럴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듯하다. 메아리만 되풀이되는 공허한 외침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 진흥을 위해 국정 과제 또는 정책 과제 등으로 치장된 미래 발전 전략을 내놓고 있으나, 실천 의지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추진력이 약한 데다 방향타마저 상실한 채 항로를 이탈하고 표류하지는 않나 하는 근심을 들게 한다. 선장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다.

'국기=태권도'를 법제화한 지 2년이 흘렀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정책 수립, 올바른 방향 설정, 실행 의지 등 삼자가 어우러졌다면 어느 정도 결실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었다. 수확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궁금하다. 어제 없는 오늘은 없다. 오늘은 내일의 어제다. 어제를 거울삼아 내일을 기약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국기 태권도' 2주년을 맞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되짚고 헤아리고 내다봤다. KTA



어제 : 막전막후

47년 밟아 온 법제화의 길, 연대기로 살펴보다

글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사진 KTA DB. 이동섭 국회의원실 제공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태권도를 국기로 하는 태권도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음을 선포하는 순간이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태권도 국기 지정 법제화에 한몫했다. 발대식 모습.

2018년 3월 30일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지정됐다. 이날 국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보전 및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태권도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되긴 했어도 법률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태권도 국기 법제화를 주도한 이동섭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을 찾아 태권도의 현안과 범정부 차원의 보호·육성 정책이 절실함을 설명하며 공동 발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돼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라며 기뻐했다.

그로부터 2년이 됐다. 태권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국기가

됐고, 어떤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지 국기 태권도 지정을 둘러싼 전후 상황과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연대기(年代記)로 살펴보자.

박정희 대통령 '국기 태권도' 친필 휘호

1971년 3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하 당시)이 한글로 '국기 태권도'를 써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게 줬다. 박 대통령은 왜 직접 붓글씨로 '국기 태권도'를 썼을까?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때 그는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었다.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 취임한 후 태권도를 국기화(國技化)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그리고 태권도를 세계화하고 국위 선양의 기수, 호국의 기수로 만드는 것이 비전이었다. 그런데 태권도는 국기도 아니었고, 씨름과 축구가 서로 '국기'를 자처하던 시절이었다. 태권도는 여러모로 약했다.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드려 '국기 태권도' 친필 휘호를 받아 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써 준 '국기 태권도'를 실무진에게 지시해 복사하게 한 뒤 국내외 태권도 단체와 도장 등에 배포했다. 이것이 확산되면서, 태권도인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태권도=국기'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됐다.

1980년대 태권도-씨름 간의 국기 논쟁

그러나 태권도가 법률로 국기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와 논란은 계속됐다. 1984년 가을, 태권도와 씨름 간에 국기 논쟁이 확산됐다. 논란의 발단은 대한씨름협회 홍보지 월간 『씨름』에 실린 작가 곽 모 씨의 '씨름 예찬론'이었다. 곽 씨는 '국기론'이라는 재목의 글에서 "전통 민속 경기인 씨름이 마땅히 국기가 되어야 하며, 태권도가 국기로 자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태권도협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전통, 경기인 등록 숫자, 국제적 위상 등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태권도 종주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씨름이 국기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한씨름협회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비록 씨름인이 아닌 한 작가의 자유스러운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글이 협회 기관지에 실리게 된 배경을 밝히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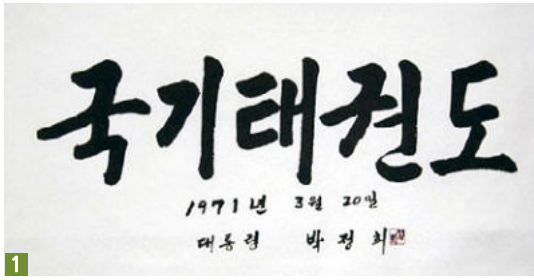
이에 대해 대한씨름협회는 평소 씨름을 좋아했던 한 사람의 개인적 견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한씨름협회의 한 임원은 "씨름의 전통성과 순수한 우리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 태권도를 의식한 주장은 아니다."라면서 태권도계의 반론을 『씨름』 잡지에 게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쟁은 1980년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마 야구와 축구에 이어 씨름이 인기 프로 스포츠로 각광받으면서, 씨름계는 국민 사이에 '씨름=국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의 후광

1994년 9월 4일은 태권도계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85:0 만장일치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건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는 올림픽 공식 언어 영어·불어·일본어에 이어 네 번째로 올림픽 언어의 반열에 올랐고, "유사 종목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수 없다."라는 IOC 규정에 따라 일본의 가라테와 중국의 우슈 등 다른 격투기 종목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인의 자긍심



1



2

1
1971년 3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쓴 '국기 태권도' 휘호
2
1984년 태권도와 씨름 간의 국기 논쟁을 보도한 기사.

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는 태권도라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리기 위해 2006년부터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했다.

"태권도는 문화 브랜드" … 정부 지원 활발

1990년대 후반부터 태권도 문화산업 육성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단순히 무예·스포츠이기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상징물이자 국격(國格)을 높이는 브랜드로서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1996년 김치, 불고기, 한글과 함께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10대 상징물로 태권도가 선정된 이후, 정부는 태권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은 태권도가 최초다."라고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200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법 시행에 따른 태권도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까지 5년간 3,185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한다는 이 계획은 태권도 문화산업과 관광 브랜드화도 포함되어 태권도 진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2015년 9월엔, 문체부는 태권도 비전 2020위원회를 구성하고 ▲ 태권도의 문화 정체성 강화 ▲ K-스타일과 융합한 태권도 콘텐츠 개발 ▲ 태권도원의 신(新)한류 허브화 ▲ 태권도 산업화 촉진 및 태권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고교생 85%, '태권도=국기'로 인식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2007년 9월, 태권도신문은 이 같은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 고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운동 종목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태권도신문은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전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한 대전의 만년고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 조사 대상으로 고교생을 선택한 이유는 한창 성장하는 세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와 인식을 보편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사 대상 설정 기준을 세워 고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국기라고 응답한 학생은 170명, 택견은 20명, 씨름은 7명, 축구는 3명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태권도인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국민은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국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태권도가 국기라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의 마음엔 '태권도=국기'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렇지만 태권도는 법률로 국기 지정이 되지 않아 논쟁의 소지를 말끔히 털어 내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태권도 국기 지정 위한 최재춘의 노력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합심했다. 그중에서 최재춘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사무총장의 노력과 공로를 소홀히 넘길 수 없다. 최 총장은 언제 어떤 계기로 태권도 국기 지정에 앞장서게 됐을까? 최 총장이 밝힌 후일담을 보자.

"어느 날 후배를 만났더니 태권도가 법률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기 태권도'라고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가 아니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당연히 태권도가 국기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태권도가 국기로서 법적 지위를 얻도록 나섰고 그 실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아끼지 않았다."

2012년 1월, 최 총장은 국기 태권도 국가 상징 지정 추진을 위한 한국의 유산 발굴 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국기 태권도 국가상징지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KTA 및 시도 태권도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가 국기 태권도 국가상징지정 추진위원회 등록을 승인하도록 힘썼다.

이 과정에서, 최 총장은 태권도계의 무관심과 홀대로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운용 국기원 초대 원장을 찾아가 자신의 의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데 이어 2014년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을 방문해 국기 태권도 입법 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기 태권도 제정을 위한 홍보와 서명 운동이 탄력을 받았다. 최 총장은 "박 대통령이 써 준 '국기 태권도'라는 휘호만 있었지, 태권도를 국기로 상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였다. 태권도인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해 국기 태권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기 태권도 입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태권도 국기 지정 주역 이동섭 의원의 집념

국기 태권도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큰 진척이 없던 2017년 9월, 희소식이 들렸다. 이동섭 의원 주도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창립을 모색한 것이다. 이 단체는 국회 소속 법인으로,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올림픽 정식

2017년 11월 국회 본청 태권도 수련장(다목적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소속 의원들이 처음 수련하고 포즈를 취했다.



종목 유지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71명이 소속 정당과 이념을 넘어서 태권도 진흥과 세계화 및 태권도 육성·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창립 취지가 있었다.

국기 태권도 지정에 강한 집념을 보인 이 의원은 최 총장에게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수석부회장을 제안하며 국기 태권도 지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태권도는 세계 1억 명이 수련하는 한류의 원조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만 무관심하다. 태권도를 반드시 국기로 지정해 태권도 모국의 지위를 우뚝 세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 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문체부 장관에게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대정부 질의에서도 태권도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안하면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2018년 3월 5일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3월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의결(원안 가결)됐다. 이어 3월 30일 국회 제358회 본회의에서, 재적 293명(300명 중 7명 공석) 중 재석 175명,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여야 국회의원 224명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2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96.57% 찬성으로 가결된 건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의원은 태권도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서 국민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스포츠뿐 아니라는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며 ▲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구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국기(國旗)로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 국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써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오스트리아를 출발해 모터사이클로 실크로드를 거쳐 서울에 도착한 노베르트 모쉬(오른쪽)- 강유송 박사(가운데) '태권도 부부'가 국기 태권도 법제화를 축하하기 위해 이동섭 국회의원을 예방했다.

그해 4월 중순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태권도 평화의 함성 행사에서, 이 의원은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과 일본 가라테와 벌이는 올림픽 종목 경쟁 등 우리 태권도의 위상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태권도의 국기 위상을 공고히 하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권도 국기 지정 그 후 …

지난해 3월 29일 태권도 국기 지정 1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태권도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의 '국기 지정 후 태권도 활성화 방안' 기조 강연 ▲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장의 '정부의 국기 태권도 육성 정책 방안' 발표 ▲ 김지숙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의 '국기 태권도를 위한 도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그로부터 또다시 1년이 지났다. 태권도 국기 지정 2주년을 맞아 태권도 단체도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KTA는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과정과 정부와 태권도계가 추진해야 할 태권도 진흥 정책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기원은 오는 3월 30일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우선 태권도 국기 지정을 공동 발의한 224명 의원 명단이 새겨진 기념 돌 제막식을 갖고, 국기원 입구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태권도 국기 지정과 관련된 사진과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다.

SPECIAL REPORT II

오늘 : 발자취 & 현주소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탄력 받고 '국정 과제'로 재도약



글 한혜진 무카스 편집장
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세계 210개국 1억 5,000만 명이 우리말로 태권도를 수련한다. 반세기 만에 세계화를 이룬 대단한 태권도다. 그 중심은 대한민국이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며 그 줄기가 세계 곳곳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태권도는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은 태권도로 통한다.

많은 사람이 태권도를 국기(國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관습적 인식에 불가했다. 법률 어디에도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던 태권도는 2018년 3월 30일 진짜 '대한민국 국기'가 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첫 태권도 9단 출신인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제3조의 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문체부, 정책 과제와 기본 계획 발표하며 진흥 꾀해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됨에 따라 태권도 위상은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국기가 된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에서도 이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무예와 스포츠 종목들에 태권도는 많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6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4대 단체와 함께 '태권도의 미래 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로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하나로, 태권도를 10대 문화 콘텐츠로 선정했다. 앞서 국회에서 태권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국기로 지정한 데 발맞춰 태권도계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태권도계에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 성장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권도=국기' 법제화로 태권도 진흥은 탄력을 받았다. 향후 예산 확보에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기 프리미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듯싶다.

지난 연말엔, 태권도 내외부 혁신 요구와 제4차 산업혁명 등 태권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태권도 인식 및 국내외 태권도 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완해 제3차 태권도 진흥 기본 계획(표 참조)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까지 태권도 기초 역량 강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 개선 ▲ 일자리 정보 제공 ▲ 태권도 관광 콘텐츠 확충 ▲ 관람형 태권도 육성 ▲ 태권도 교육 및 연수 강화를 지원한다. 태권도계는 이에 호응해 ▲ 태권도 연구 및 교육 내실화 ▲ 태권도 인식 개선 캠페인 ▲ 외래객 대상 태권도 관광 콘텐츠 개발 ▲ 해외 도장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지를 모으고 힘을 쏟을 계획이다.

2단계는 태권도 문화 활성화로, 2021~2022년 진행된다. 정부는 ▲ 외국인 태권도 아카데미 ▲ 차세대 융·복합 사업 지원 ▲ NCS 기반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 ▲ 성인 태권도 활성화 ▲ 태권도 상징지구 운영 등을 지원한다. 태권도계 소임은 ▲심사 도장

등록제도 개선 ▲ 표준 성인 도장 개발 ▲ 성인 참여형 콘텐츠 개발 ▲ 미디어 환경에 맞는 태권도 개발 ▲ 태권도인 해외 진출 지원 등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23년 이후 태권도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이다. 정부는 ▲ 태권도 ODA 확대 ▲ NCS 교육 훈련 기관 인증 ▲ 태권도 국제 박람회 ▲ 태권도 기술 고도화 지원 ▲ 태권도장 페스티벌 등을 지원한다. 태권도계는 이에 부응해 ▲ 국기원 명소화 ▲ 신태권도 정신 정립 ▲ 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 성인 도장 활성화 캠페인 ▲ 태권도 전문 기업 육성 ▲ 한국형 도장 문화 정립 등에 힘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유산과에서 태권도를 전담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 태권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건 태권도가 유일하다. 바로 국기가 된 덕이다. 예산만 하더라도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2019년도 370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60억 원 증액된 430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국기로서 ▲ 지속 성장과 보급 발전을 위해 태권도 정체성을 강화하고 ▲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태권도 교육 및 연수 기능을 강화하며 ▲ 태권도 승·품단 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태권도 가치를 회복하고 태권도의 강점을 살린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태권도계, 협화음 내며 진흥에 앞장서야

사실 태권도계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태권도가 특정 무예와 스포츠 종목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정 과제가 되어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난관에 직면하곤 한다. 그런데도 태권도는 국기라는 명분으로 더욱 수월해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태권도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예산 432억여 원을 확보, ▲ 태권도 진흥(187억 3,100만 원)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234억 4,300만 원) ▲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4억 4,700만 원) ▲체육·문화 예술사업 지원(3억 원) ▲국제 체육 교류 지원(3억 원) 등에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문은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 이상 증액됐다. 국기원이 시행하는 정부 파견 해외 사범이 이동섭 의원 요청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올해는 그중 30명의 신규 사범을 선발해 수요국에 파견한다. 또 현재 파견된 사범 처우도 개선한다. 이로써 태권도 저개발국에 보급을 확대하고 태권도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인다.

태권도 국기 법제화를 시작으로 정부 예산 확보 등에 앞장섰던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대사범 지정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기 태권도 계승과 진흥을 위해 태권도 지도자 중 태권도 '명인(名人)'을 지정하는 법이다.

이동섭 의원은 2017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무형문화재와 같은 지위 수준으로 태권도 명인 제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청회와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타 종목과 형평성 및 문화재법 등과 충돌로 난항이 예상됐으나, 끝내 국기 태권도의 지속 발전과 평생을 태권도 발전에 헌신한 사범께 예우와 명예를 드리는 법안으로 국회에서 인정됐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지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걸림돌은 태권도계 내부에 있다. 막대한 예산을 받는 데 힘입어 성장하는 데 집중해도 부족할 때에, 태권도계 파벌 싸움은 여전하다. 그 중심이 돼야 할 국기원은 최초로 선거인단을 통해 원장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정상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얼굴이 된 태권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일'을 위해 더욱 겸손하고 모범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태권도계가 명심해야 한다.

SPECIAL REPORT II

2018년 3월 30일은 태권도 현대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날이다. 1971년 3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휘호해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게 준 '국기 태권도' 이후 관습처럼 내려져 오던 관념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법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범국가 차원에서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지원·보전·육성할 책임을 지게 됐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2018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 관련 4개 단체(대한민국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와 함께 태권도 미래 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부제: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추진 방안)를 발표했다.

이 정책 과제는 태권도계의 현안과 과제를 담은 10대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2022년도까지 약 1,700억 원을 단계별로 투자해 태권도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이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 가지 핵심 추진 내용을 보면 ▲ 평생 즐기는 태권도: 태권도를 친숙한 생활 문화로 만들어 간다 ▲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태권도에 차세대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먹을거리 시장을 만들어 간다 ▲ 자랑스러운 태권도: 태권도 승품·단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 세계와 함께하는 태권도: 국제 스포츠계에서 태권도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인다 ▲ 신뢰받는 태권도: 태권도 단체의 혁신을 통한 신뢰도를 높인다 등이다.

그러나 법률로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긴 했어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부의 지원 정책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년 전부터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태권도 진흥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권도 국기화를 주도한 이동섭 국회의원도 이런 형국이 답답했는지 2018년 10월에 열린 국정 감사에서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됐는데, 정작 내년 태권도 예산은 353억 원으로 오히려 4억 원이 줄었다. 정부가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태권도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태권도 정책이 전시성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경고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3월, 태권도 국기 지정 1주년을 맞아 태권도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는 정부의 국기 태권도 육성 정책 방안을 발표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3월에도 태권도 국기 지정 2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지만, 기념비를 제막하고 국기 입법화와 관련된 사진 전시회를 갖는 데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점은 국기 지정 이전과 확실하게 다른 태권도 진흥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태권도는 단순히 무예·스포츠이기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상징물이자 국격(國格)을 높이는 브랜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태권도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 및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전담팀(TF)을 구성해 모임을 정례화하고, 일정 기간마다 성과를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후 '태권도 대사범 지정법'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 태권도 기술 및 기능과 태권도의 올바른 계승과 보존에 이바지하는 원로 태권도인을 지정하길 바란다. KTA



내일 : 방향 ① REPORTER'S EYE

태권도 국기 지정에 따른 태권도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 중요

글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내일 : 방향 ② PROPOSAL

태권도로 회귀(回歸)와 반성(反省)이 필요한 시점!

글 김지혁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지 2년이 되었다. 물론 1971년 3월 2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기태권도'라는 친필 휘호를 하사한 이후,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국기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과 오랜 관습을 넘어 대한민국 국회의 법률로서 지정된 것이다.

국기(國技)라 함은 '그 나라의 독특한 기예'를 의미한다. 즉 태권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독특한 기예이자 문화유산으로서 세계 속에 그 위상을 높이고, 동북공정(東北工程) 대응 및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태권도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2018.12.24.)」제3조의 2에 의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면서 태권도의 활성화 전략과 정부정책 방안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태권도의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 국기로서의 태권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태권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오랜 시간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왔지만 아직도 그 물음에 명확히 답하기란 쉽지 않다. 학계에서 역시 정체성이란 키워드를 내세워 태권도 역사, 정신, 철학, 기술체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자들마다 태권도를 정의하거나 해석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태권도는 오늘날 독특한 수식어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표현(무도태권도, 경기태권도, 프로태권도, 실전태권도, 비치태권도 등)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은 태권도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지만, 때로는 태권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태권도는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며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이면에는 전통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태권도가 갖는 고유한 본질을 잃어가면서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전북 무주군은 태권도 고장을 상징하는 조형물 '태권의 문'을 설치하였다. 태권도복의 띠 모양과 색, 건곤감리의 형태가 이루어진 디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태권도 성지라 칭하는 무주의 랜드마크를 기획하면서 '도(道)'의 개념을 상실한 채 '태권의 문'이 제작되었다는 것은 태권도 국기 지정 2주년을 앞두고 태권도로의 회귀와 반성이 요구된다.

물론 여기서 '회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단순·협의적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그간 태권도의 행적을 살펴본 바, 우리는 태권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무도성을 훼손시킨 것이 사실이며, 특히 태권도의 빠른 성장은 압축적 근대화(한국화·경기화·세계화)와 함께 구조화된 위험적 요소(역사왜곡·이분화·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전적 진화를 거듭함과 동시에 태권도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국기로서의 태권도가 지녀야 하는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태권도를 태권도이게끔 하는 구성원리와 영역별 특성이 합당한 개념으로 정의·해석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분명 '무도'이다. 그리고 동시에 '스포츠'이기도 하다. 나아가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할 때에는 독특한 '문화'로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은 오늘날 태권도를 설명함에 있어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갖는다. 어찌 보면 무술의 형태로 발생 →계승→발전하여 오늘날 스포츠의 영역으로 그리고 세계 속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태권도를 단순히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설명하기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권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기로서 구분이 아닌, 분화가 아닌, 일부가 아닌, 공존의 개념으로 통합적 이해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태권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理想)의 모습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며,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융합적·통합적 사고의 확장, 그리고 '국기태권도'에 대한 거시적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KTA

‘젊은 피’ 수혈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이뤄지다



양산 = 글·사진 박상욱 WTN 기자



송다빈(왼쪽)은 2020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최종 대회에서 ‘고교생 바람’을 일으켰다.

세대교체 신호탄 쏘아 올린 ‘젊은 피’

이번 대회가 끝난 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 및 일선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젊은 피’가 대거 수혈돼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세대교체의 서막을 올린 선두 주자로, 이들은 남자부에선 지난해에 이어 국가대표로 선발된 배준서(강화군청)와 박우혁(한국체육대학교)을 비롯해 진호준(안중고등학교)을 꼽았다. 여기에 김태훈이라는 벽을 넘고 2020 도쿄(東京)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된 장준까지 포함하면, 국가대표팀 남자부는 20대 초반의 젊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함돼 벌써부터 2024 파리 올림픽을 기대케 한다.

여자부에선, 강보라(영천시청)-미르(성주여자고등학교) 자매, 송다빈(효정고등학교) 등이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또한 생애 첫 시니어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대거 나와 세대교체를 부채질했다.

이창건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번 국가대표 1진에 대해 “젊고 실력 있는 좋은 선수들이 대거 선발됐다. 이미 시니어 무대에서 검증받은 선수들에다가 고교 무대를 평정하고 처음 시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가세하며 긍정적 방향의 세대교체가 시작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감독은 “이번 국가대표팀은 1진으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이 본인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발휘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감독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젊은 선수들은 2024 파리 올림픽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활약이 기대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게 우리 지도자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고교생 돌풍’의 주인공 진호준, 송다빈

이번 대회에서, 진호준과 송다빈은 ‘고교생 돌풍’의 핵으로 자리했다. 둘 모두 고교 무대를 평정하고 성인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다. 진호준은 남자 -63㎏·-68㎏ 통합 체급에서, 송다빈은 여자 -67㎏급에서 각각 정상에 오르며 태극 도복의 주인공이 됐다.

진호준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최종전에 진출해 조강민(한국가스공사)을 내리 두 번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최종 결승 1차전에서, 1라운드 초반 뒤차기를 성공시키는 등 먼저 10득점하며 승기를 잡았다. 조강민이 맹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결국 진호준이 15:13으로 이기며 승부를 최종 재결승전으로 넘겼다. 2차전에선, 선배 조강민이 기선을 잡았다. 조강민은 1라운드 왼발 머리 공격과 주먹 득점 등을 묶어 8점을 뽑았다. 반격을 시작한 진호준은 2라운드 중반 내려찍기 머리 공격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13:9로 역전하며 승기를 잡았다. 조강민의 매서운 반격에 일시적으로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던 진호준은 오른발 머리 공격으로 달아나며 21:19로 승리했다.

진호준은 “청소년 국가대표만 하고 국가대표는 못 할 줄 알았는데, 대표로 선발돼 실감 나지 않는다. 새롭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아직 어리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꼭 우승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호준은 이어 “승자 결승전에서 패해 무척 아쉬웠다.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난 뒤 마음을 가다듬고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졌다. 최종 결승 재경기에서는 힘들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교생답지 않은 정신력을 보였다.

여자 -67㎏급 결승전에서, 송다빈은 이 체급 ‘터줏대감’ 김잔디(삼성에스원)를 따돌리고 태극 마크를 달았다. 부상을 훌훌 털고 첫 시니어 대표 선발을 일군 것이어서 더욱 빛났다. 송다빈은 “이번 대회 직전 부상으로 한 달 반 정도 공백기가 있었다. 나는 물론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 체력을 기르며 주특기인 발차기 얼굴 공격과 접근전 공격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좋은 성적이 나와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진호준과 송다빈은 지금 모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가 아시아 선수권을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둘은 선수촌 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배울 점도 많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좋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서, 이승환(왼쪽)은 노장의 투혼을 발휘해 남자 -87㎏급 우승을 차지하며 2020 국가대표에 뽑혔다.

‘세대교체 선봉장’ 배준서-박우혁, 2년 연속 대표 선발

남자 -54㎏급에서, 배준서는 모두가 “역시 배준서”라는 감탄사를 자아낼 만큼 빼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2년 연속 국가대표로 뽑혔다. 배준서는 4경기에서 143점을 올리는 화끈한 경기로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사로잡았다.

배준서는 승자 결승전에서 이민영(경희대학교)을 맞아 특유의 압박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하며 50점을 뽑아내면서 여유 있게 최종 결승전에 올라갔다. 패자부활전을 통과한 이민영은 반전의 드라마를 노렸지만, 이변은 없었다. 최종 결승전에서, 배준서는 이민영을 압박하고 왼발 돌려차기 머리 공격, 몸통 공격을 잇달아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승기를 잡았다. 이후 단 한 차례의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33:24로 승리하며 국가대표 1진에 뽑혀 세대교체 선두 주자로서 위상을 뽐냈다. 남자 -74㎏·-80㎏ 통합 체급에서,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동메달리스트인 박우혁은 같은 학교 선배인 김지석을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대표로 선발됐다.

시니어 국가대표 선발 명단에, 배윤민, 김용환(이상 한국체대), 명미나(경희대학교)도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남자 +87㎏급에서 배윤민은 예선전부터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최종 결승전에 올라 박재광(한국가스공사)을 제압하고 첫 시니어 국가대표 타이틀을 손에 거머쥐었다. 남자 -58㎏급에서, 김용환도 같은 학교 조성호를 꺾고 생애 첫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여자 -73㎏급에서, 지난해 다 잡았던 국가대표 티켓을 놓친 명미나는 전소희(청주시청)를 누르고 대표로 선발됐다.

노장들의 투혼도 빛났다. 이승환(한국가스공사)은 남자 -87㎏급 패자조를 통과한 후 2019 나폴리 유니버시아드 금메달리스트인 박인호(성남시청)를 연파하고 자존심을 지켰다. 이승환은 최종 결승 재경기에서 골든 라운드까지 접전을 펼쳐 “굳센 의지를 바탕으로 자존심을 곧추세웠다.”라고 평가받았다.

NATIONAL TEAM



경희대, 30세 이하부 석권… 지도자들, 컷오프 경기 방식 선호

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서영애

2020년도 품새 국가대표 최종 선발 대회가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상남도 양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공인 품새 30세 이하부는 8위 안에 입상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얻어 대학 간에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오는 5월 덴마크 헤르닝에서 열리는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엔, 1위자가 개인전과 복식전에, 2~4위자가 단체전에 각각 출전한다. 그리고 3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리는 아시아 품새 선수권 대회엔, 5위자가 개인전과 복식전, 6~8위자가 단체전에 각기 출전 자격을 얻었다. 또 자유 품새 부문 1위자는 세계 선수권 대회 개인전과 복식전에, 2위자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개인전에 각각 출전 티켓을 얻었다. 한편 여자 17세 이하부는 3명이 참가해 선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으나, 남자 65세 초과부는 3명이 참가했는데도 선발전이 열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복 출전 불가, 컷오프 경기 방식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는 각 팀 지도자가 참석한 대표자 회의에서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 중복 출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30세 이하부에 출전하는 선수를 겨냥한 것으로, 올해는 세계 선수권 대회와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국가대표 선수 자격의 폭을 넓혀 각 선수가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 중 한 가지를 확실히 결정해 출전하라는 포석이 깔렸었다.

각 팀이 예민하게 반응한 경기 방식으로, KTA는 예선-본선-결선 모두 컷오프(Cut-off)를 채택했다. KTA는 당초 8강까지는 토너먼트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컷오프로 하려 했으나,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선수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는 컷오프 경기 방식을 원하는 각 팀 지도자의 의견이 대표자 회의에서 전격 수용됐다.

지도자들은 왜 컷오프 경기 방식을 선호할까? 이에 대해 전민우 경희대학교 감독은 “세계 선수권 대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또 7명의 심판진이 선수 두 명을 동시에 보는 것보다 한 명을 집중해서 보면 채점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두 번째다. 이 때문에, 경기가 좀 늦게 끝나더라도 컷오프 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노형준 나사렛대학교 감독은 “토너먼트나 컷오프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토너먼트로 할 경우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예선에서 만나서 경쟁하다가 탈락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 반면 컷오프로 경기하면 좋은 선수들이 선발된다는 가능성 때문에 컷오프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품새 심판들도 공정한 판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미옥 품새 심판위원장 대행은 “정확도는 실수하는 그대로 주고, 세 가지 숙련도는 교육받은 대로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주는 걸

로 했다. 심판이 판단한 채점은 기록지에 남겼다. 컷오프 경기 방식이기 때문에, 기록에 대해서 심판이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에 따라 심판들이 긴장감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다.

입상자 면모를 들여다보니 …

대학 선수들이 주로 출전하는 남녀 30세 이하부는 경희대가 단연 돋보였다. 경희대는 지난해 품새 그랜드슬램을 이룬 강완진과 2018 타이베이(臺北)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지수가 나란히 1위에 올랐다. 강완진은 공인 품새에 출전한 데 대해 "자유 품새도 자신 있다. 그러나 공인 품새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데다, 지도진과 상의해 8위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공인 품새를 선택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경희대는 30세 이하부에서 강완진·김지수를 비롯해 박기현·박지원·김영재·이소영·이효민 등 7명의 대표선수를 배출해 대학 최강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자유 품새 17세 초과부는 윤규성(서울아이티고등학교)이 대학 선배들을 제치고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다. 결선에서, 맨 먼저 경기해 다소 불리했던 윤규성은 대담한 아크로바틱과 짜임새 있는 연결동작으로 7.80점을 받으며 전체 10명 중 1위에 올랐다.

윤규성은 "올 1월 7일부터 제주도로 동계 훈련을 가서 새벽부터 야간까지 근력과 체력 강화 훈련을 하며 자유 품새 동작을 가다듬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다. 결선에서, 대진 번호 1번이 되어서 좀 긴장했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하자'고 다짐했다.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남녀 50세 이하부부터 65세 초과부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베테랑들이 강세를 보였다. ▲ 남자 50세 이하부에선, 이진한(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과 김학동(태권도고수회) ▲ 60세 이하부에선, 엄재영(대망태권도)과 신점화(한가림태권도) ▲ 65세 이하부에선, 이강수(태권도골든로드)와 강재진(미라클백봉태권도장) ▲ 65세 초과부에선, 이병채(한가림태권도)와 윤원상(태양체육관)이 각각 1, 2위를 했다. ▲ 여자부 50세 이하부는 김연부(국가대표참태권도장)와 김은주(제이칼리쿠) ▲ 60세 이하부는 서영애(전주비전대학교 일반부)와 김은숙(국가대표참태권도장)이 각기 1, 2위를 차지했다.

국가대표 다수 배출한 도장 화제

이번 대회에선, HTS-21c 한국태권도장(관장 최동훈)과 경희대 송라태권도장(관장 윤병권)이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한 도장으로 화제를 낳았다.

HTS-21c 한국태권도장은 출신 선수 3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신우섭은 공인 품새 남자 청소년부 개인전 1위에, 김상엽은 자유 품새 남자 30세 이하부 개인전 2위에, 김선호는 공인 품새 남자 30세 이하부 개인전 8위에 각각 자리했다. 이 도장은 또 세계 선수권 대회 청소년부에 3회 연속 대표선수를 배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장병열 HTS-21c한국태권도장 감독은 "책임감과 열정은 학문으로 배울 수 없다. HTS 모든 지도자와 선수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려서부터 스승님(최동훈 관장)의 책임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기뻐했다.

경희대 송라태권도장은 자유 품새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17세 이하부 장운태와 17세 초과부 윤규성이 각기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송라태권도장은 시범단을 구성해 '보라매' 팀명으로 활동하며 유아리틀·초등 타이거즈·송라 보라매(중·고등) 등 단계별로 전문 지도자들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 도장 장휘 코치는 "익스트림, 시범, 격파, 품새, 겨루기 등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내년 품새 국가대표 선발 대회도 자신감을 보였다. KTA



경희대 송라태권도장이 자유 품새에서 초강세를 보이는 데 앞장선 윤규성(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장운태(가운데)가 지도진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 심재영

"첫 출전 올림픽에서 부끄럼 없는 발걸음을 남기고 싶다"

글 최규섭
사진 WT 제공

마지막 순간, 신은 심재영(25·고양시청)을 택했다. 신이 내민 손길을 마주 잡은 그녀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피어났다.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는 함준 고양시청 감독의 얼굴에서도 함박웃음이 터져 나왔다.

얼마나 고대했던 순간인가. 올림픽 무대를 향한 열망을 불태웠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그토록 밟고 싶었던 올림픽 마당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인 올림픽에서 열정을 불사를 수 있게 됐으니, 솟구쳐 오르는 그 감격을 어찌 다 형용할 수 있으랴.

나래를 활짝 펴고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두 번씩이나 정상에 올랐어도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 응어리를 비로소 씻어 냈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행 태권도 마지막 티켓을 거머쥔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어른거렸다.

영광은 혼자 오지 않았다.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에 뽑혀 배가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올림픽의 해를 기분 좋게 열어젖힌 그녀다.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뒤 활짝 웃었던 심재영의 모습을 2020 도쿄(東京) 올림픽에서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고행의 끝은 올림픽 티켓 획득

올림픽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고행을 요구하는 가시밭길이었다. 보일 듯 보일 듯하면서도 좀처럼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안갯길이었다. 그만큼 애태우며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기에, 지난 1월 17일은 심재영으로선 잊을 수 없는 날이다. 2003년, 화성 송화초등학교 2학년 때 태권 도복을 입은 이래 17년 동안 숱한 승부극을 연출했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날만큼 선명하게 가슴속에 아로새겨졌던 극은 없었다. 적어도 그녀에겐 '운명의 날'이었다. 그녀에게 억제키 힘든 희열을 안긴 무대는 2020 올림픽 최종 티켓 쟁탈전이었다. 출전권을 다툰 대회전이 펼쳐진 전장은 양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이었다. 그리고 불꽃을 튀긴 각축전에서, 승자요 주인공은 그녀였다.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그녀는 맞수 김소희(26·한국가스공사)와 맞

붙었다. 세계태권도연맹(WT) 올림픽 랭킹 2위인 그녀(396.30점. 이하 2019년 12월 기준)가 3위 김소희(366.06점)와 벌인 숙명의 격돌이었다. 30.24점의 미세한 차가 엿보이듯, 누가 승자의 영광을 누릴지 좀처럼 내다볼 수 없는 한판이었다.

일차적으론, 둘 모두 WT가 올림픽 랭킹 5위권 선수에게 주는 올림픽 자동 출전권 자격을 보유한 상태였다. 그러나 체급별 한 국가 한 장 규정에 가로막혀 어쩔 수 없이 티켓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체육대학교 2년 선후배 사이로 국가대표팀에서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은 둘은 서로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 그만큼 부담감을 더욱 느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그녀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두 차례(2017 무주, 2019 맨체스터) 우승(-46kg)했고 김소희가 2016 히우(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49kg)을 차지했던 점이랄까?

누가 이겨 올림픽 마당에 나가더라도 이상할 리 없는 겨룸이었다. 티켓 쟁탈전을 알리는 우는살이 활시위를 떠나기 전, 섣불리 승패의 향방을 예측하려는 전문가가 없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접전이 잇따라 펼쳐졌다. 그녀도 김소희도 2연승을 내달리지 못했다. 서로 1승씩을 주고받은 뒤, 마지막 3차전에서야 승자가 가려졌다. 매 경기 승패는 1~2점 차로 판가름 났다. 더구나 3차전은 골든 라운드까지 가는 피 말리는 백병전의 연속이었다. 승자와 패자가 빚어내는 희비쌍곡선이 그려지며 역전과 동점이 연속되는 극적 승부에, 관중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1차전에선, 역전 세 번과 동점 두 번의 밀고 밀리는 격돌 끝에 그녀가 웃었다. 종료 8초 전 김소희가 17:16으로 뒤집으며 이기는 듯싶었으나, 1초도 채 남지 않은 순간에 그녀가 재역전극(18:17)을 연출했다. 2차전에선, 동점 두 번과 역전 한 번의 접전 끝에 김소희가 웃었다(10:9). 3라운드 19초께 2점짜리 발차기를 성공시켜 처음으로 앞서 나간(7:5) 김소희는 종료 13초를 남기고 3점짜리 발차기까지 심재영의 얼굴에 적중시키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골든 라운드까지 간 3차전에선, 종료 6초를 남기고서 마침내 티켓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다. 신은 심사숙고 끝에 그녀를 낙점(10:8)했다. 역시 역전과 동점이 각각 두 차례씩이나 나온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이로써, 그녀는 2020 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 도복' 대열 -▲ 남자 장준(20·한국체대·-58kg급), 이대훈(28·대전광역시청·-68kg급), 인교돈(28·한국가스공사·+87kg급) ▲ 여자 이아름(28·고양시청·-57kg급), 이다빈(24·서울시청·+73kg급) -에 합류했다.

첫 화살 적중 기세 타고 마지막 화살도 명중 노려

천당과 지옥을 오간 끝에 거머쥔 올림픽행 티켓이다.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만치 본무대에서 최상의 결실을 올리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고 다지는 심재영이다. "적은 곧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며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정신 자세를 경계한다.

"이제 첫 화살을 과녁에 맞혔을 뿐이다.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화살을 꼭 과녁 한가운데에 명중시키고 싶다."

그녀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이끈 함준 감독도 마찬가지 심정이다. 그녀가 언제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에 힘쓰라고 주문한다. 닦달보다는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데 애쓰도록 배려하는 연유다.

"자신감을 갖되 자만감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달콤한 과실에 집착해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한다. 긴장하지 않고 지닌 실력을 마음껏 나타낸다면, 풍성한 수확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재영이는 그만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내성적이다. 쉽게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 출전할 경우, 이동 중 홀로 음악을 듣거나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핑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 이유다. 그렇지만 일단 친구가 되면, 그녀는 봇물이 터진 양 말을 쏟아 낸다. 평상시엔 좀처럼 연상하기 힘든 모습이다.

이런 성격은 플레이에서 배어난다. 선제 공격보다는 받아치는 데 능한 그녀는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다가도 호기를 잡으면 상대를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인다.

이런 전술을 쓰는 까닭이 있다. 신장과 체력에서 열세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체력을 기르려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으로 약점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올림픽에서 어떤 수확을 올리느냐는 그날의 몸 상태와 집중력에서 결판나리라 본다. 체력 보강과 기술 배양은 물론 안정된 심리를 갖추는 데 남은 시간 온 힘을 쏟겠다. 적어도 '정신력에서 뒤져 농사를 그르쳤다.'는 말만큼은 듣지 않고 싶다."

올림픽 첫 출전의 꿈이 영근 감격을 안은 그녀가 기세를 타고 올림픽 메달 획득의 야망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KTA

프로필

생년월일	1995년 9월 14일
신체 조건	167㎝ 51kg
태권도 입문	초등학교 2년
출신 학교	화성 송화초등학교 → 화성 안화중학교 → 부천 정보산업고등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팀	고양시청(2018)
주요 성적	

• 세계 선수권 대회 : 2017 무주 금(-46kg급)
2019 맨체스터 금(-46kg급)

2020년도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 대회에서, '고교생 바람'을 일으키며 당당히 1진으로 선발됐다. 고교 1학년 때부터 '탈(脫)고교급 선수'로 평가받으며 고교 무대를 평정하고, 올해 첫 시니어 국가대표로 뽑혔다. 국가대표팀 막내지만, 2020 베이루트 아시아 선수권 대회 정상에 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생활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

올림픽에 대한 욕심도 가감 없이 드러내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겠다는 진호준(안중고등학교)을 『태권도』는 '1·2월의 유망주'로 선정했다.

발굴의 기량 그리고 정신력의 승리

지난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양산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20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이번 최종전은 고교생 돌풍이 불어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돌풍을 주도한 진호준 선수.

최종선발전 남자부 -63㎏, -68㎏ 통합 체급에 출전한 진호준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최종결승에 진출했다. 대표선발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을 비웃으며, 까마득한 선배 조강민(한국가스공사)을 내리 두 번 꺾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최종결승전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발굴의 기량과 더불어 정신력의 승리였다."라는 평가를 했다. 안중고등학교 전영환 코치도 이러한 평가에 공감했다. 전 코치는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2차전을 준비하면서 (진)호준이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타고난 소질도 있지만 평소 자기관리가 철저한 호준이에게 정신력을 언급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진호준은 "간절한 마음이 컸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진호준은 "승자결승에서 2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머리 공격을 허용해 패했을 때 다 끝난 기분이 들었고 허무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패자조로 내려갔을 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며 경기에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체력이 바닥난 최종 2차전에서 진호준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 다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이기고 나오자는 의지를 다

『태권도』 선정 '1·2월의 유망주' 진호준

천재성·노력·열정 어우러져 '진화 중'

글·사진 박상욱 WTN 기자



2020년도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 대회 남자부 -63㎏·-68㎏ 통합 체급 최종 결승전에서, 진호준(오른쪽)이 조강민에게 오른발 머리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졌다."라면서 "시작하자마자 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했는데 이기고자는 마음이 간절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밝혔다.

진천 선수촌 생활 … "배울 게 많다"

진호준은 아시아 선수권에 대비해 진천 선수촌에 입촌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과거 대표선수 훈련 파트너로 입촌한 적은 있지만, 당당히 대표 1진으로 선발돼 입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입촌이 낯설기도 하나 "배울 점이 많아 좋다."라고 한다.

"어색하고 운동할 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실력 있고 운동 잘하는 형들이랑 함께 지내다 보니 보고 배울 게 많다. 일상생활에서도 형들에게 배울 점, 좋은 점들이 많아 얻는 게 많다. 체계적 훈련도 좋다. 힘들 때가 있긴 해도, 재미있을 때가 더 많다. 항상 긍정적 생각으로 선수촌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대표팀 내에서 그에 대한 선배들의 평가는 칭찬 일색이다. 고교생이고 대표팀 막내이지만, 훈련할 때나 일상생활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아 선배들과 지도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이창건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는 진호준에 대해 "실력을 갖춘 좋은 선수다. 훈련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다. 선배들에게 좋은 점을 배우려는 자세가 진지하고 개인 연습도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

'연습벌레'에다 별명은 '쌈닭'

진호준은 소문난 '연습벌레'다. 공식적인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도 야간에 별도로 개인 연습을 하고 있다. 대회가 코앞에 닥쳤을 때만 별도의 개인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하고 있다. 선수촌에 입촌해서도 변함없이 야간에 별도의 개인훈련을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개인훈련과 야간훈련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해야 그만큼 더 성장하는 게 아니냐."며 반문했다. 말솜씨가 고교생답지 않게 어른스러웠다.

"부족한 게 아직 많다.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해서 빨리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평상시에도 개인 훈련 및 야간 훈련을 빼먹지 않는다. 대회 두 달 전부터는 더욱 강도 높게 하고 있다."

평상시 훈련과 일상생활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진호준은 코트 위에 들어서면 '쌈닭'으로 돌변한다. 진호준은 "경기에서 선배들을 만나도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투지 있게 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진호준과 경기를 한 대부분 선수는 "물러서거나 두려움이 없이 공격할 때면 마치 싸움닭 같다."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그를 지도해 온 전영환 안중고 코치는 "호준이가 좋은 성적을 내는 데엔, 타고난 소질도 있지만 자기관리가 철저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호준이가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쉬는 시간도 있다. 그러나 쉴 때도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늘 생각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부단없는 개인 연습을 해 온 게 국가대표 1진이 된 비결이 아닐까 싶다."

프로필

생년월일	2002년 04월 15일
출생지	서울시 자양동
신장·체중	185㎝, 67㎏
출신학교	송화초등학교 → 안화중학교
소속	안중고등학교
태권도 입문	초등학교 1학년

주요 성적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전국 체육대회 우승
2019년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 1위
2020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1위

올림픽 무대서 금빛 발차기

진호준은 국가대표 최종전 직후 믿고 응원해 준 부모와 전 코치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한다. 진호준은 송화초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도장에서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면서 지역 겨루기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휩쓸었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안화중학교에 입학 후 2학년 때까지 체력과 기본기 다지기에 매진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진호준은 안중고에 진학 후 가파른 성장을 시작해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전국 체육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고교 무대를 평정했다. 지난해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아시아까지 평정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건 세계 무대다. 진호준은 올림픽에 향한 도전도 내비쳤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막연하게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꿈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랭킹 포인트도 쌓아야 되는 등 구체적 방법까지 생각하게 됐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차근차근 다가서서 올림픽 무대에 반드시 서겠다. 목표를 이루는 그 날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

타고난 소질에 노력을 더하고 열정을 가미해 세계 최강의 선수로 발돋움 하려는 진호준. 그가 진정으로 꿈꾸는 세대 무대와 올림픽 무대를 평정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SPECIAL PROJECT

태권도 수련 효용을 널리 알려 위기를 호기로 전환해야

글 서완석
사진 KTA DB



최근 미국의 태권도장을 탐방하고 돌아온 태권도 전공 대학생의 얘기는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성공한 미국 태권도장은 하나같이 태권도 기본에 충실한 커리큘럼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본이란 간단했다. 우선 태권도 그 자체만 가르치는 데 집중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태권도 그 자체라 함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도장 내에선, 태권도만 가르치는 걸 뜻한다. 줄넘기니 공놀이 같은 신체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네와 달리, 태권도 기본기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태권도 수련은 이 같은 신체 단련 외에 정신적 수양도 겸한다. 태권도는 바로 무도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같은 태권도 5대 정신을 늘 염두에 두고 다양한 교육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수련에 들어가기 전 자신을 길러 주신 부모께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그 같은 교육 방법의 일환이다. 부모가 자녀를 태권도장에 동반하는 미국 도장의 특성을 잘 살린 것으로 보면 된다.

물론 우리네 지도자(관장·사범)도 이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국 지도자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건 비단 우리가 종가(宗家)여서가 아니다. 국내 태권도 생태계가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도장 경영이 점점 어려워진 탓이다. 그만큼 도장 경영이 팍팍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도장 관장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어쩔 것인가.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쳤고,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태권도는 본질적으로 이 같은 감염증이나 질환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가 면역성을 강화하는 데 최적의 운동이다. 태권도인들은 오히려 이 같은 역경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당장 어린 관원들이 감염을 우려해 도장을 찾아오지 않으나, 역설적이게도 평소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해 온 관원들은 코로나19를 무사히 극복했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 태권도는 자기 방어, 혹은 호신술로 인기가 높았다. 호신술을 익히려고 도장을 찾는 여성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치안 상태가 안정돼 있어, 호신을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이 호신이라기보다 건강을 지키려고 다니는 관원이 많은 점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무술의 기본 속성이 심신 단련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호에 실린 태극 품새를 통한 호신술 강좌는 눈여겨 볼 만하다. KTA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 이해

글·사진 최중구 KTA 강사

1. 표준 교육과정의 필요성

태권도장은 태권도를 교육하는 장소다. 수련자가 태권도를 처음 경험하는 곳으로, 태권도 수련을 통해 정신과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평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사범(지도자)이 교육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지금까지 태권도장은 지도자의 열정과 수련자의 열성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교육 활동은 개별적 의미를 담은 사적 가치재로는 의미가 있어도 공적 가치재로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즉, 태권도장라는 명칭은 하나인데 수련 체계와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수련자들의 신뢰를 쌓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은 하나의 통일된 방향으로 중심축을 제공한다. 따라서 태권도 교육이 보다 강력한 공공 가치재로 변모하게 됨으로써 수련자와 잠재적 수련자에게 신뢰를 주게 돼 도장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 표준 교육과정 및 표준 교육과정 의미 이해

1) '교육과정' 및 '표준'의 의미

교육과정은 단위별 수준이 있다.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수준이 결정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단 한 개의 교육과정으로, 17개 시도협회가 운영하는 시도 수준 교육과정을 가이드한다. 그 다음 각 시도에 속한 개별 태권도장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과 시도 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17개 시도 수준 교육과정과 수많은 태권도장 수준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 교육의 기본 골격을 세우고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구실을 한다.

2) 교육 내용의 범위와 계열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의 범위와 계열을, 범위는 태권도를 주어진 시간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칠까를, 계열은 범위에서 결정된 교육 내용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까를 각각 결정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범위는 주어진 시간 동안 'A, D, E, H'라는 네 가지 내용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그럼 계열은 이 네 가지를 어떤 순서로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즉, 지도 순서를 태권도의 교육적 차원에서 결정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태권도장의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 속에서 선택하는 최선의 교육 로드맵을 결정하는 일이다.

3) 표준

표준은 태권도장의 지역(서울·경기·제주 등), 위치(대도시·중소 도시·읍·면 등), 규모(도장 크기·사범 수·수련생 수 등) 등에 관계없이

시 간	교육 범위	교육 계열	
	품 새	A 사범	B 사범
50분	손기술	1. 손기술	1. 서기
	서기	2. 차기	2. 손기술
	차기	3. 서기	3. 방향전환
	방향전환	4. 방향전환	4. 차기

통일된 교육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 표준은 태권도 교육의 확산과 교육 수요자(수련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태권도 교육의 질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3.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 및 취지

1)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배경

개발 배경은 태권도계의 내적·외적 요구에 따라 개발되었다. 최근 태권도계는 태권도 교육이 평생 교육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내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태권도 교육은 유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성인기·장년기·노년기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계에선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태권도 교육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외적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유소년과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국가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적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외적 요구는 태권도 교육 브랜드 가치 상승의 필요성과 사회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한다. 태권도 전통과 명성을 기반으로 한 KTA 표준 교육과정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2) 표준 교육과정 개발 취지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것과 지도자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개발 취지는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의 공유를 통해 표준 교육과정의 긍정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첫째, 새로운 태권도 교육 혁신의 아이디어 실현을 쉽게 전국화할 수 있다. 둘째, 질 높은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사후 질 관리(AS)를 국가 수준에서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넷째, 통일된 교육 내용으로 전국 태권도장의 교육 수준을 균등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다섯째, 태권도장의 교육과정 개발 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끝으로, 국가 차원의 설계와 관리로 태권도 지도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발 취지는 태권도 지도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일선 현장에서 태권도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은 태권도 지도자(=사범)다. 태권도 지도자의 수준이 바로 태권도 교육의 수준이 될 수 있다. 본 KTA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은 태권도 지도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4.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특징

1)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방향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의 네 가지 개발 방향은 ▲ 공공 가치재로서 태권도장 교육 위상 강화 ▲ 보통교육으로서 태권도 교육 체계 우수성 홍보 ▲ 교육과정 전문성 기반 국가수준 태권도장 교육과정 개발 ▲ 태권도장 교육과정의 질 관리 도모를 위함이다.

첫 번째, KTA 표준 교육과정은 공공 가치재로서 태권도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데 개발 방향을 맞추고 있다. 곧, 일부 태권도 지도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공공 가치재로서 위상을 지속하기 위해 태권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돼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보통교육으로서 태권도 교육체계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 KTA 표준 교육과정은 태권도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태권도 보통교육 체계의 완성품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수월성 교육)으로 구분된다. 태권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교육은 보통교육으로 태권도장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KTA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문성에 기반하여 국가 수준 태권도장 교육과정으로 개발됐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 개발됐으며, 지난해 최초로 만들





어진 제1차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은 향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제2차, 제3차 등으로 개정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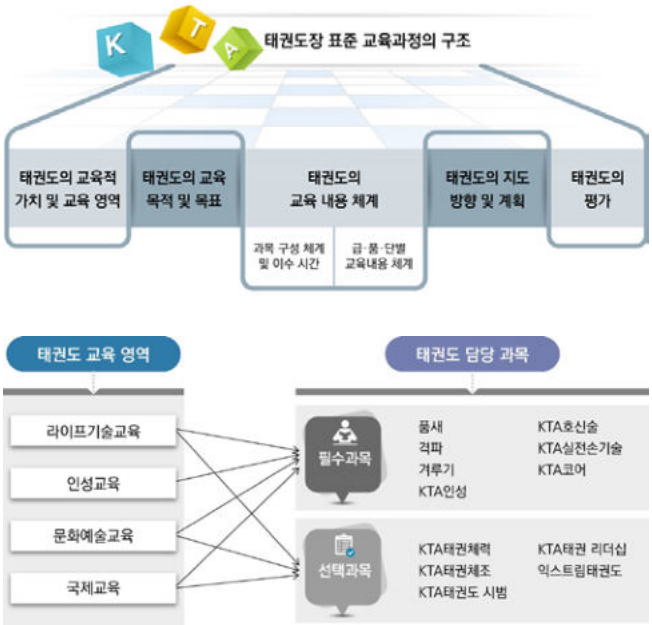
네 번째,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 주도 태권도장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함이다. 국가 수준 또는 국가 주도 차원에선, KTA 태권도장 교육과정이 개발된 이후 후속 작업(After Service)이 가능하다.

2) 표준 교육과정 개발 특징

구조적 특징은 다섯 가지 세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 영역, 태권도의 교육 목적 및 목표, 태권도의 교육 내용 체계, 태권도의 지도 방향 및 계획, 그리고 태권도의 평가다. 이 다섯 가지 세부 구조는 모든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되는 기본 요소이자 필수 요소다.

관계적 특징은 네 가지 교육 영역, 두 가지 과목 분류, 열세 가지 세부 과목으로 관계돼 있다.

세부 계획안은 과목 지도 계획안, 단원 지도 계획안, 수련 지도 계획안 순으로 정리돼 있다.



5. 제1차 표준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 이해

1)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는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역량, 대인 역량, 국가 역량, 그리고 글로벌 역량이다.

2) 태권도의 교육 영역

태권도의 교육적 네 영역은 라이프 기술, 인성교육, 문화·예술교육, 국제교육이다.



3) 태권도의 교육 내용 체계

태권도의 교육 내용 체계는 일정 기간 가르쳐야 할 태권도 교육의 범위와 계열성을 담고 있다. 유급자용과 유·품단자용으로 구분돼 있으며, 수련 기간과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이 소개돼 있다.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은 다시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필수과정은 모든 수련생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다. 반면, 선택과정은 태권도장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을 말한다. 그리고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은 교육 수준(교육 난이도)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심화 과목은 기본 과목 후 순차적으로 지도하는 과목이다. 유급자 및 유품자의 세부 수련 내용 체계는 다음 호에서 설명할 것이다.

4) 태권도의 지도 방향

KTA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과목을 지도할 때 과목 안에 있는 이론적 내용과 실기적 내용을 모두 융합하여 가르쳐야 한다. 융합 지도 방향과 방식은 태권도 과목별 지도 계획안의 구성 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도 방향은 태권도 정신과 가치 확산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도한다.
- 지도 방향은 태권도 과목을 이론과 실기 융합하여 지도한다.
- 지도 방향은 수련생의 특성을 고려해 수준별로 지도한다.
- 지도 방향은 IT 기술을 활용한 창의 융합적으로 지도한다.
- 지도 방향은 도장과 가정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5) 태권도의 평가

태권도의 평가는 KTA 태권도장 표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 과목 구성, 이수 체계, 지도 방향과 연계돼야 한다. 또한 태권도 교육 활동으로 가르친 내용과 평가하는 내용이 일치돼야 교수 타

단계	유급자용		유품 단자용		
			1품 단	2품 단	3품 단
수련기간	총18개월 (총360시간)		총12개월 (240시간)	총 24개월 (총480시간)	총36개월 (총720시간)
필수과정	[기본과목] 품새 격파 겨루기 KTA인성	기본과목	품새 격파 겨루기 KTA인성	품새 격파 겨루기 KTA인성	품새 격파 겨루기 KTA인성
		심화과목	KTA호신술 KTA실전손기술 KTA코어	KTA호신술 KTA실전손기술 KTA코어	KTA호신술 KTA실전손기술 KTA코어
선택과정	[기본과목] KTA태권체력 KTA태권체조 KTA실전손기술	기본과목	KTA태권체력 KTA태권체조 KTA태권도시범	KTA태권체력 KTA태권체조 KTA태권도시범	KTA태권체력 KTA태권체조 KTA태권도시범
		심화과목	KTA태권리더십 익스트림태권도 무기술	KTA태권리더십 익스트림태권도 무기술	KTA태권리더십 익스트림태권도 무기술

당도가 확보된다. 평가는 평가 방향, 평가 계획, 평가 결과 활용 등 세 가지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가) 평가 방향

평가의 균형성은 특정 과목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다양한 요소가 첨가된 태권도 평가 내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태권도의 평가 방법과 도구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수련 결과와 수련 과정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도 함께 평가돼야 한다, 한편, 평가 주체로 볼 때 교육적 차원에서 태권도 지도자 평가뿐만 아니라 수련생에 의한 동료 평가 또는 수련생이 스스로 하는 평가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태권도 평가 방법 및 도구의 활용 정도가 다르므로,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끝으로, 태권도 평가는 평가 시기별 목적에 따라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 평가 계획

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수련생과 학부모와 한 약속이므로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해야 신뢰를 얻게 된다.

(다) 평가 활용

태권도장의 평가 결과는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주기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평가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차기 태권도 수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KTA





KTA 지상 강좌 지도법 〈2〉

KTA 태권도 호신술 〈2·끝〉

글 김영수 KTA 강사
사진 『KTA 태권도 품새 응용 호신술』 발췌 | 시범 _ 김영수·김충환

1. 태권도 품새 응용 KTA 호신술

태극 품새(1~2장) 태권도 호신술

태권도 호신술은 품새 동작의 쓰임을 이해하고 동작의 확장성을 통한 기술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대의 약점(급소)을 정확하게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공격을 멈추게 함으로써 위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성공적 자기방어 능력 기술이 태권도 호신술의 강점이다. 품새를 통해 단계별로 습득 과정이 이뤄져 있다. 품새 동작을 익힌 후 동작의 쓰임과 호신술 기술의 연장선으로, 반복 수련을 통한 효과적 자기방어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실전에 강한 현장성도 지녔다.

태권도 호신술의 구성

KTA 태권도 품새 응용 호신술은 유급자 품새(태극 1~8장)와 유품·단자 품새(고려~십진) 동작을 발췌해 실전에 강한 태권도 호신술로 구성했다. 아울러 유품·단자에 대한 실전 상황 대치법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유급자부터 4품·단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호신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했다. 기술의 확장성을 통한 실전에 강한 태권도 호신술을 도장 교육에 적용하여 도장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1) 태극 1장 [앞 차고 오른주먹 몸통 반대지르기(멱살 잡으러) 할 때]



공격자: 오른발 앞차기를 한다.
방어자: 왼팔목 아래막기를 한다





공격자: 오른주먹 몸통 반대지르기를 한다.
방어자: 왼발을 뒤로 물러 왼뒷굽이 자세에서 오른(바깥팔목)몸통 안막기를 한다.



중간 동작



방어자: 오른앞굽이 자세에서, 오른손날 목치기로 공격자의 급소(부돌혈)를 친다.
- 응용 동작(주의)



방어자:
왼주먹으로 공격자의 급소(구미혈)를 지른다.



방어자:
왼발 앞차기로 공격자의 얼굴을 찬다.



방어자: 방어 자세를 취한 후 다음 상황에 대비한다.

태극 1장 호신술 지도법

수련 목표	기본 자세 익히기
	* 과정의 낱동작을 익혀 품새 동작의 쓰임을 알게 하고 동작을 통해 방어 기술을 이해한다. * 공방을 통한 신체 부위의 사용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중심 이동과 거리 조절의 관계를 알아보며 표적 설정을 판단하여 순간 타이밍을 통한 공격 모드로 가져오는 과정을 이해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본 자세 익히기	기본 동작 익히기	1보 맞춰 겨루기	1보 연결 맞춰 약속 겨루기	응용 호신술 익히기



*** 기본 자세 익히기(1단계)**

1. 지도자의 구령에 맞춰 주춤서기 자세에서 왼팔을 기준으로 아래막기(4회)를 실시한다.
2. (바깥팔목) 몸통 안막기(4회)
3. 손날 목치기(4회)
4. 주먹 지르기(4회)
5. 앞차기(4회)



*** 기본 동작 익히기(2단계)**

1. 지도자의 구령에 맞춰 왼앞서기 자세에서 왼팔을 기준으로 아래막기(4회)를 실시한다.
2. 아래 막고 한 발 뒤로 물러 (바깥팔목) 몸통 안막기를 한 후 제자리 앞서기 자세를 한다.
3. 아래 막고 한 발 뒤로 물러 (바깥팔목) 몸통 안막기, 오른손날 목치기를 한 후 제자리 앞서기 자세를 한다.
4. 아래 막고 한 발 뒤로 물러 (바깥팔목) 몸통 안막기, 오른손날 목치기, 왼주먹 지르기를 한 후 제자리 앞서기 자세를 한다.
5. 아래 막고 한 발 뒤로 물러 (바깥팔목) 몸통 안막기, 오른손날 목치기, 왼주먹 지르기, 왼발 앞차기를 한 후 제자리 앞서기 자세를 한다.



*** 기본 자세 익히기(3단계)**

자도자의 구령에 맞춰 한 동작씩 익히며, 공격에 의한 방어의 신체 부위 위치와 타격 위치(급소)를 정확히 이해하여 구분 동작으로 연습한다.



*** 1보 연결 맞춰 겨루기(4단계)**

방어자는 2번을 인지하면서 1번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태극 1장 호신술을 연결 동작을 한 후 뒤돌아 2번 대상자에게도 대응하여 연습한다.

* **기본 자세 익히기**: 과정의 낱동작을 익혀 품새 동작의 쓰임과 방어 기술을 이해한다.
* **기본 동작 익히기**: 과정의 낱동작을 익혀 연결되는 동작을 통해 방어 기술을 이해한다.
* **1보 맞춰 겨루기**: 과정의 낱동작을 익혀 두 수련자 간의 공격과 방어 동작을 짜 맞추듯 적용 수련해 실제 상황을 이해한다.
* **응용 호신술 익히기**: 두 수련자 간의 공격과 방어 동작을 실전에 가깝게 기술을 응용하여 적용하고 실제 상황처럼 숙달하여 실전에 응용하는 과정을 익힌다.



*** 응용 호신술 익히기(5단계)**

방어자는 공격자의 순서에 맞춰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대응하되, 항시 다른 공격자도 인식하면서 대응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고 숙달이 되면 빠른 동작으로 연습한다. 상대방과 간격 유지, 타이밍, 공격과 방어의 신체 부위 위치를 정확히 익히는 게 중요하다.

(2)태극 2장 [오른주먹 얼굴 반대지르기(머리 잡으려) 할 때]



중간 동작



공격자: 오른 앞굽이 자세에서 오른주먹 얼굴 지르기를 한다.

방어자: 자세를 낮추어 위로 올리면서 왼앞굽이 자세에서 (바깥팔목) 왼팔 얼굴막기를 한다.



공격자: 왼주먹 몸통 바로지르기를 한다..

방어자: 공격 타이밍을 맞춰 왼바탕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 헤쳐막기를 한다.



방어자: 오른 주먹으로 공격자의 급소(장문혈)를 지른다.



방어자: 오른발 앞차기로 공격자의 얼굴을 찬다.



방어자: 방어 자세를 취한 후 다음 상황에 대비한다.

태극 2장 호신술 지도법

수련 목표	동작 익힘(기본 자세 익히기)
	* 과정의 낱동작을 익혀 품새 동작의 쓰임을 알게 하고, 동작을 통해 방어 기술을 이해한다. * 공방을 통해 신체 부위가 사용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중심 이동과 거리 조절의 관계를 알아보며, 표적 설정을 판단하여 순간 타이밍을 통한 공격 모드로 가져오는 과정을 이해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본 자세 익히기	기본 동작 익히기	1보 맞춰 겨루기	1보 연결 맞춰 약속 겨루기	응용 호신술 익히기



*** 기본 자세 익히기(1단계)**

1. 지도자의 구령에 맞춰 주춤서기 자세에서 왼팔을 기준으로 얼굴막기(4회)를 실시한다.
2. 바탕손 헤쳐막기(4회)
3. 주먹 지르기(4회)
4. 앞차기(4회)



*** 기본 동작 익히기(2단계)**

1. 지도자의 구령에 맞춰 왼앞서기 자세에서 왼팔을 기준으로 앞발을 앞으로 약간 옮기면서 자세를 낮추어 얼굴막기(4회)를 실시한다.
2. 얼굴막기, 바탕손으로 헤쳐막기를 한 후 제자리 앞서기 자세를 한다.
3. 얼굴막기, 바탕손으로 헤쳐막기, 오른주먹 지르기를 한 후 제자리 앞서기 자세를 한다.
4. 얼굴막기, 바탕손으로 헤쳐막기, 오른주먹 지르기, 오른발 앞차기를 한 후 제자리 앞서기 자세를 한다.



*** 1보 맞춰 겨루기(3단계)**

자도자의 구령에 맞춰 한 동작씩 익히며, 공격에 의한 방어의 신체 부위 위치와 타격 위치(급소)를 정확히 이해하여 구분 동작으로 연습한다.



*** 1보 연결 맞춰 겨루기(4단계)**

방어자는 2번을 인지하면서 1번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태극 1장 호신술 연결 동작을 한 후 뒤돌아 2번 대상자에게도 대응하여 연습한다.



*** 응용 호신술 익히기(5단계)**

방어자는 공격자의 순서에 맞춰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대응하되, 항시 다른 공격자도 인식하면서 대응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고, 숙달이 되면 빠른 동작으로 연습한다. 상대방과 간격 유지, 타이밍, 공격과 방어의 신체 부위 위치를 정확히 익히는 게 중요하다.

KTA 태권도 품새 응용 호신술은 성공적 자기 방어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며, 과학적 이론과 인체 약점인 급소를 정확히 익히고 태권도 기술을 응용하여 현장감을 높였다. 기술의 확장성은 상대방에게 치명적 공방 기술의 효과적 방어 능력을 키울 것이다. 품새를 숙지한 수련생은 과정에 따라 천천히, 점점 빠르게, 상황적 공격에 따라 공방 기술을 적용해야 교육 효과가 더욱 좋다.



KTA 지상 강좌 경영법 〈2〉

태권도장 홍보와 마케팅 〈1〉

글·사진 최훈민 KTA 강사



홍보란 기업·단체 또는 관공서 등의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활동·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마케팅은 시장경제 또는 수요를 관리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이다. 마케팅은 광고와 영업 등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갖는 산업으로, 판매 행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모든 일련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상대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잠재 욕구를 자극하여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행위와 상품과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포함한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희망을 결합해서 능률적 공급을 하는 게 마케팅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핫한 상품이 무엇인가? 바로 마스크와 소독제일 것이다. 코로나의 여파로, 이 상품들은 가격이 최소 2~3배까지 상승했다. 연일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용품들도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보도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재기까지 부추겼다. 만약에 "태권도를 꾸준히 하면 면역력이 증대되고 10년 정도 더 장수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온다면, 많은 학부모가 앞다투어 자녀를 데리고 태권도장을 방문할 듯싶다.

코로나19로 또 바뀐 문화는 외출이 줄어들면서 배달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식당 가는 대신에 집에서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생필품 등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



KTA의 홍보 자료 예

어났다.

지난 2월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 '기생충'이 4개 부문(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 장편 영화상)을 석권하자, 기업들은 영역 불문하고 기생충 특수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식품 유통업계를 비롯해 각종 주류 회사와 병원 등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생충과 인연 만들기에 나섰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시장에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홍보와 마케팅은 이러한 특수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케팅 전략과 수단

태권도장의 홍보는 경영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련생이 입관하는 직접적 동기가 될뿐더러 각 도장의 이미지를 미래의 관원에게 심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도장을 홍보하는 일반적 방법엔, ▲ 홍보물(전단지·현수막·간판 등) ▲ 기념품(로고나 마크를 넣어 제작한 물품) ▲ 특수 이벤트(시범 경기·승급 심사·체험 학습·지역사회 축제 참가) 등이 있다.

신규 수련생 유치 전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시즌별 수련 행사 등을 기획하고, 체력 관리와 진로 상담 등 학부모의 요구 조건을 읽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각각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전략을 구상하여 태권도장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 마케팅 전략엔,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외부에 태권도장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거나 기존 수련생을 통한 홍보로 신규 수련생을 유치해 태권도장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둘째, 휴·퇴관자에게 지속적 유선 활동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재입관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셋째, 태권도 이외의 다른 요소를 병행함으로써 수련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흥미 유발 전략이다. 넷째, 주변 경쟁 도장과 유사 체육 시설을 비교·분석한 후 시설, 지도, 프로그램 등을 차별화하는 전략이다.

이 가운데 홍보 마케팅 전략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미지 홍보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홍보 전략(태권도장 로고와 마크 등)은 홍보물과 연관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케팅 방법엔, 크게 직접 고객과 접촉을 통해 실시하는 직접 마케팅(부모 초청 참관 수업, 공개 심사, 교육 설명회, 가족 체육 대회, 합숙 훈련, 친구 초청의 날, 주말 행사 등)과 타인의 도움 또는 간접적 방법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간접 마케팅(홍보물, 전단지, 벽보, 현수막, 크리에이티브 광고, 모바일 광고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또한, 태권도장 마케팅을 선택할 때에는 도장의 특성, 지도자의 성향, 경제적 상황, 기간 및 상황적 요소, 마케팅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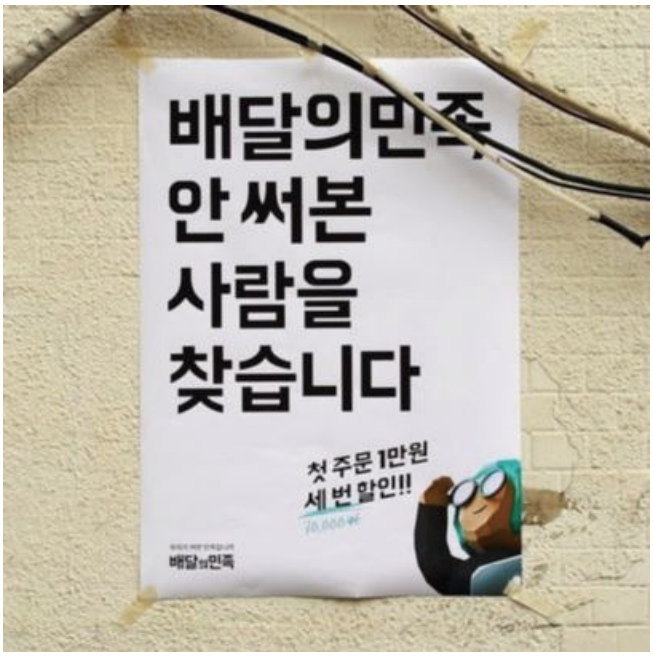
태권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마케팅 수단과 방법을 예로 들면, 광고지 혹은 홍보지가 대표적이다. 광고지는 도장을 외부에 홍보하는 방법 중 가장 직접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이다. 광고지 제작 방법엔, ▲ 트렌드 분석을 이용한 방법 ▲ KTA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사회적 이슈를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요소로 활용하는 방법 ▲ 패러디를 활용하는 방법 ▲ 감성을 자극하는 결정적 문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TV·패러디를 활용한 홍보 자료

마케팅 방법을 선택한 이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선택한 방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트렌드 분석을 활용한 방법은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 새로운 변화, 환경 변화의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태권도장만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에서 나온 홍보 포스터 및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홍보 방법은 홍보물 제작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 제작·활용의 예

홍보물 제작과 활용 방법

홍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홍보성이 짙더라도 사회적 이슈와 연관성이 있다면, 홍보 대상의 시선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사회적 이슈를 태권도와 연관시켜 홍보하려면 최신 뉴스, 기사, 홍보 대상이 관심을 갖는 트렌드 등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시기별 사회적 이슈를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과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사회적 이슈와 태권도 접목의 예로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과 관련해 '나를 지키고, 나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힘! 태권도로 길러요!' 같은 문구와 이미지 활용이 있다. 이와 같이 태권도만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지어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층간 소음을 예로 들면,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이가 많이 뛴다고 밑에 집에서 찾아왔다고 가정해 보자. 부모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일 때, "우리 아이가 마음껏 뛰며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곳, OO 태권도장으로 오세요."라고 내세운다면, 비슷



트렌드 분석을 활용해 제작한 홍보물 예.



부모 초청 교육 세미나 홍보물

한 상황이 염려되는 부모는 그런 이유에서라도 태권도장 등록을 고려하지 않을까?

여가 생활에 TV 및 유튜브 등의 영상 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매스컴을 탄 광고와 드라마 등은 이미 친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도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패러디 광고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공감을 끌어내는 좋은 아이디어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또, 잠재적 수련생과 부모에게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감성을 자극하고, 태권도에 흥미를 가져 태권도장 등록 욕구를 일으키고, 태권도를 배우게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면, 때때로 긴 설명보다 하나의 단순한 문구를 통해 핵심을 전달하는 방법이 파급력이 클 때가 있다. 곧, 딱딱한 관원 모집이라는 광고 문구보다는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실감 나게 해야 한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광고를 보자. 배달의 민족이 우리를 압도하는 이유는 이런 데에 있다. 같은 신규 회원 유치 경쟁인데, 뭔가 달라도 다르다. 배달의 민족 광고인 "배달의 민족 안 써 본 사람을 찾습니다."와 요기요 광고인 "선미 누나 요기요 첫 주문 만 원 할인"을 태권도장 홍보에 활용해 보니 좋은 반응이 생겼다.

간접 마케팅을 선택하여 홍보물을 제작한 후엔, 활용(배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홍보 대상에게 부담이나 강압적 방식으로 거부감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 등원 시간을 이용한 배포 ▲ 행사, 발표회, 체험 학습 등을 이용한 배포 ▲ 태권도장 로고나 마크를 넣어 제작한 기념품과 함께 배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벤트 행사를 이용한 홍보 방안은 시범, 공개 심사, 교육 세미나, 친구 초청 행사 등이 있다. 이 중 교육 세미나와 친구 초청 행사를 통한 홍보는 잠재적 수련생 유치와 기존 수련생의 장기 수련 독려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교육 세미나 경우 잠재적 수련생과 부모, 기존 수련생과 부모, 즉 부모의 참여를 통해 직접적 홍보를 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잠재적 수련생과 기존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 세미나를 활용하는 방안의 예로, 신학기를 압두고 예비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부모 초청 세미나를 들 수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먼저 유치원 졸업식과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기존 수련생을 대상으로 추천서와 프로그램 안내문을 배포한다. 또, 교육 세미나 강사를 통해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을 전달한다. 이와 연결해 태권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 홍보와 궁금한 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부모와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세미나는 신학기와 같은 시기별 주최도 가능하지만, 성교육·호신술·성장 관리와 같은 이슈를 주제로 주최할 수 있다.

친구 초청 행사는 기존 수련생을 활용한 홍보 방법으로 분류된다. 기존 수련생을 대상으로 행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부하고, 행사는 태권도와 태권도 외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영화 시청, 과자 파티,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 구성한다. 행사에 참여한 외부 아이들과 지속적 의사소통과 태권도장의 행사 정보 전달을 통해 도장 등록을 유도한다.

추가적으로 통신문을 이용한 홍보 방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수련생과 부모에게 주변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추천을 부탁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 추천서를 보내고 도와준 부모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나 선물을 준비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다. KTA



등록 추천서 홍보물 예

도장 탐방 〈13〉
태권도장 다물원

태권도장다운 태권도장 다물원

글·사진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2020년 현재, 국내에는 1만 2,000여 개의 태권도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중 20%가량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에 등록되지 않은 도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태권도장이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천편일률적이다. 도장의 이름부터가 주로 태권도 관련 학과가 있는 유명 대학의 이름을 딴 'OO대 태권도장', 'XX대 석사 태권도장' 등의 이름이 아마도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목이 좋은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상가 건물에는 A대 태권도장, B대 동문 태권도장, C대 석사 태권도장이 층마다 각각 자리한 경우도 있다.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와 수업 내용도 비슷하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배우는 수련생들의 평균 연령이 열 살 안팎인 점도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서도 도장 수는 줄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주 수련생인 아이들의 절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태권도장의 위기가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 태권도장의 각자도생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다물원 수련생들이 유경민 사범(가운데)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태권도장다운 태권도장 찾기 힘들어

최근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련생의 층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소년 대상 태권도장에서 벗어나 성인 태권도, 더 나아가 실버 태권도까지 수련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실 인식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태권도의 원래 의미를 되찾아 간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성인 태권도를 표방하고 나선 태권도장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반응도 대체로 좋은 편이다.

그러나 그 비율은 1만 개 이상의 태권도장에 비하면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성인이 태권도를 즐길 수 있는, 정말 도장다운 태권도장을 찾는 건 여전히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도장다운 태권도장이란 어떤 도장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태권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그 의미를 성인이 배울 수 있는 도장다운 태권도장이라는 의미로 좁혀서 최소한의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우선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첫째, 샌드백이 있는 태권도장이다. 요즘 태권도장에서는 발차기를 할 수 있는 샌드백을 찾아 볼 수 있는 곳이 무척 드물다. 샌드백이 태권도장에서 사라진 이유는 지도자(관장·사범)가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구구하게 따지지는 않겠다. 그래도 샌드백이 없는 태권도장을 '태권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둘째, 지도자가 태권도를 함께하는 태권도장이다. 요즘 일선 태권도장의 관장과 사범이 태권도를 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 말고 본인의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다.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태권도 지도자가 많이 존재하기를 바란다. 불행하게도 기자가 만난 대부분 태권도 지도자는 자기 운동을 하지 않고 다만 '말로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통 태권도를 회복하자'는 뜻 담아 명명

물론 다른 조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 – **도장 내에 정말 수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는지, 지도자가 수련생과 함께 운동하면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이 성인 태권도장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장 중의 한 곳이 바로 태권도장 다물원이다.

'다물원.' 이름부터가 특이하다. 무슨 뜻일까?

"보통 태권도 아홉 개 기간 도장의 경우엔, 무덕관·청도관·지도관 하는 것처럼 '관'을 쓴다. 그런데 그중에서 강덕원처럼 관보다는 '원'이라는 이름이 좀 차별화되고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장 이름에 '원'을 붙이게 됐다. 고구려 말로, '다물'은 '옛것을 회복한다.'는 뜻이더라. 그래서 과거 우리 태권도가 가지고 있던 정통 태권도의 의미, 가치, 기술 같은 것들을 복원하자는 뜻을 담아서 '다물원'이라고 도장 이름을 지었다."

유경민 사범의 말이다. 유 사범은 '관장'이라는 호칭도 사양하고 있다. 자신은 '사범'이라고 불리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유 사범이 도장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아닌 사범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것은 겸양의 뜻도 있지만, 자신 역시 직접 함께 수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련생이 '선생님'으로 불리는 태권도장, 왜?

태권도장 다물원을 찾은 지난 2월 17일 오후 8시. 아직은 일선 태권도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휴관에 들어서기 직전이었기에, 도장 문은 열려 있었다. 수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수련생이 평소보다는 좀 적은 편이었다. 도복을 챙겨간 기자는 1시간 동안 다물원의 수련을 함께했다. 이날의 수련은 도장을 가볍게 뛰면서 도는 달리기로 시작해 기초 체력, 발차기와 손동작의 기본 수련, 품새 등으로 이어졌다. 가장 인상적인 건 유경민 사범이 수련생과 거의 모든 수련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사범은 구령만 붙이고 미트만 잡



제자들과 늘 함께 수련하는 유경민 사범(왼쪽).

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수련생과 똑같이 그 안에서 함께 수련하고 있었다. 기자도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물원의 한 시간 수련은 숨이 차고 도복을 땀에 젖게 하기에 충분했다. 유 사범도 기자만큼은 아니어도 이마에 땀방울 정도는 맺혀 있었다. 성인 태권도장과 성인 태권도장 사범은 적어도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최근 들어 초등학생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성인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도장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을 수련생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이제 모든 태권도장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돼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되묻고 싶다. "지도자는 성인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인을 지도하는 것과 아이를 지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우선 지도자와 수련생의 상호 호칭과 관계에서부터가 다르다. 유 사범은 수련생을 연령에 상관없이 '아무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미성년자인 경우엔 그렇지 않아도, 다물원엔 미성년자가 거의 없다. 고등학생 정도가 있을 뿐인데, 유 사범은 역시 수련 시간엔 같은 호칭을 사용했다.

사범이 수련생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도장. 다물원 말고 또 있을까?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무개 씨'도 아니고 '아무개 선생님'은 좀 지나친 건 아닐지….

"그래서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친구에겐, 수련 시간 외에는 편하게 장난도 걸면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그런데 수련생 중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누구 누구 씨' 하고 부르는 건 오히려 예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다."

일반 태권도장에서는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인성을 교육한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말이다. 유 사범은 이러한 사실이 불편했다고 한다.

"예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장에서 사범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불편했다. '내가 과연 누군가의 인성을 교육한다고 말할 정도의 인성을 갖추고 있을까? 태권도를 한다고 인성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물론 나쁜 인성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인은 태권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아이들에게 태권도가 아니라 인성을 가르친다고 내세우는 건 불편했다.

우리 태권도장 수련생 중엔, 40대부터 60대까지 분포돼 있다. 이분들 중엔,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진 분도 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태권도 사범이라고 해서 스승입네 하고 그분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 태권도장과 성인 태권도장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인가. 태권도장에서는 태권도만을 제대로 가르치면 될 뿐이다.

"그래도 무도를 가르치는 도장이다 보니, 나이가 많은 분들 가운데 태권도 외의 측면에서도 기대하는 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더 부담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지고 나 자신의 인성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곤 한다. 항상 조심한다."

유 사범은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부담감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느껴지기도 했다.

이상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유경민 사범은 아직 30대 초반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다물원을 차리고 독립한 게 이제 1년 반 남짓한 '초보 관장'이다. 도장을 시작하면서 의욕이 넘쳤을 것 같은데,



도장 운영은 어떨지 궁금했다. “역시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 유 사범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도장 위치가 방배동 번화가에서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헬스와 필라테스 같은 성인 대상의 체육 시설도 여러 곳 있고 해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봤다. 그런데 위치만 놓고 봤을 때, 한 블록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홍보 역시 사범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과 직접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이 또 달랐다.”

운동하려고 하는 성인은 많다. 요즘 운동 한두 가지 안 해 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태권도는 성인에게 여전히 내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아이가 하는, 곧 아들딸에게 시키는 운동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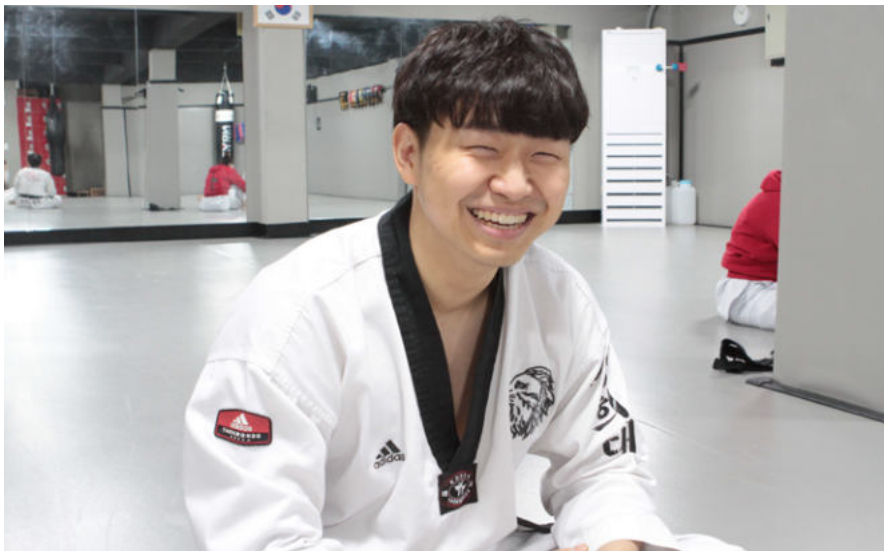
“성인이 태권도를 하는 태권도장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좋다고 알려진 많은 운동을 배웠다. 도장에 오는 분들에게 그것들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

다물원은 지하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 자체가 비싼 동네다. 현재의 인원만 가지고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유 사범의 솔직한 심정이다.

“곧 재계약한다. 일단 이번까지는 재계약하고 버텨 볼 생각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수련생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이 동네에서 머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물원엔, 별도의 유소년 클래스가 없다. 별도의 지도 사범이 없기도 하고, 낮에는 유 사범이 부업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오직 저녁에 성인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배우는 사람 처지에선, 최고의 태권도장이다.

수련생 중엔, 영국에서 온 제시카가 있었다. 영국에서 태권도를 배운 제시카는 태권도의 본향인 한국에서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2년 전에 한국에 왔다. 현재는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권도장을 찾았지만, 배울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대부분 태권도장은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경민 사범은 성인 제자들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한다.

“친구가 ‘다물원에 가 보라.’고 알려 줬다. 그 친구도 인터넷을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았는데, 와 보니 제대로 찾아온 느낌이 들었다.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이 도장은 집에서도 가깝다. 이런 도장이 많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다. 어쨌든 나에겐 다행이다.”

현재 진행형 + 미래 지향형 = 태권도장 다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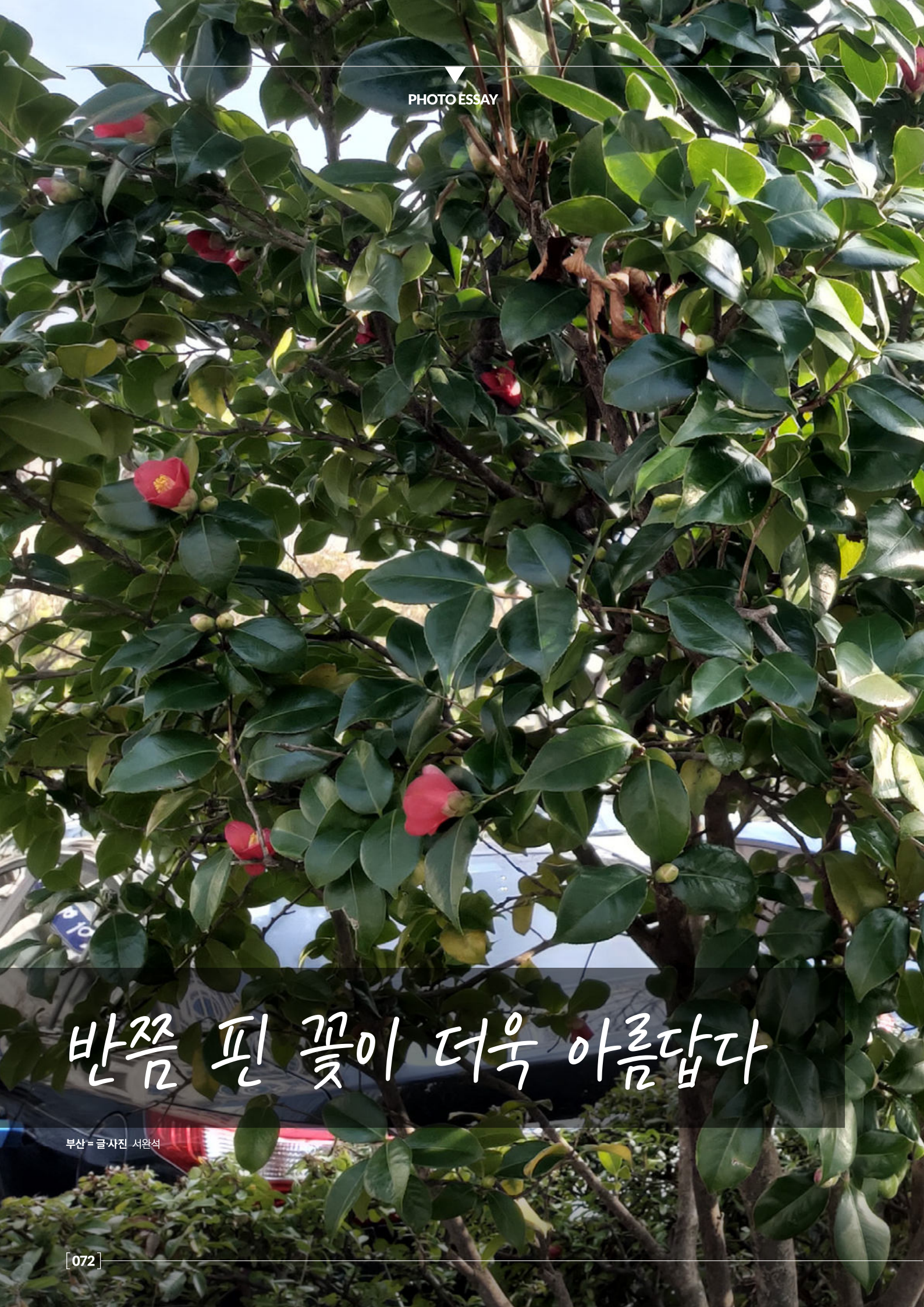
유경민 사범은 경희대학교 출신이다. 학교에서 태권도 학술 동아리인 ‘선배’를 이끌기도 했고, 실전 태권도 모임인 ‘싸울아비’에서도 열심히 활동했다. 태권도에 대한 열정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태권도를 유튜브로 알리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유 사범은 ‘배우는 사범’이다. 다물원 태권도장엔, 다른 태권도장에서 볼 수 없는 샌드백만 있는 게 아니다. 킥복싱 도장에서 볼 수 있는 킥복싱용 글러브,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케틀벨이나 메이스벨 같은 고대 체력 훈련 기구, 중국 무술 영춘권에서 하는 치사오를 하기 위한 목인장 등 다양한 장비가 구비돼 있다. 도장 인테리어로 구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유 사범이 수련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다.

유 사범은 태권도의 이론과 실전을 증명하기 위해 타 무술에 대한 수련과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킥복싱과 주짓수도 배웠고 종합격투기 대회에도 출전했다. 결과는 꼭 이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평생을 두고 수련할 태권도의 가치를 위한 도전이었고 실험이었다. 지금은 희미해진 고전 태권도 수련을 복원하기 위해서 강덕원의 지승원 사범 같은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다물원 태권도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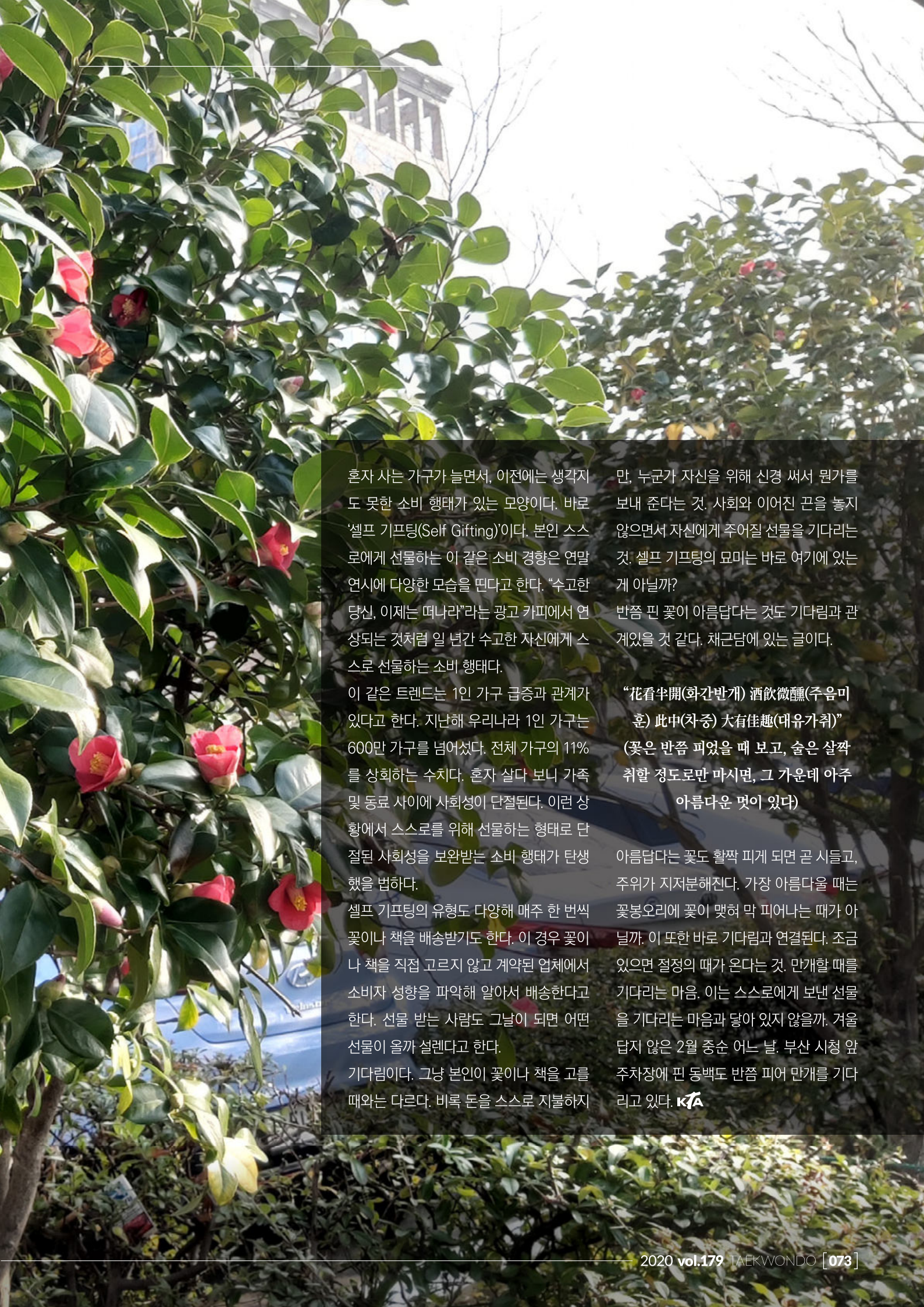
다물원 태권도장은 현재 진행형이면서 미래 지향형이다. 항상 꽃길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경영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말이다. 그러나 유 사범의 도전은 많은 태권도인이 지켜보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태권도인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뿐더러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KTA



반쯤 핀 꽃이 더욱 아름답다

부산 = 글·사진 서완석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소비 행태가 있는 모양이다. 바로 '셀프 기프팅(Self Gifting)'이다. 본인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이 같은 소비 경향은 연말연시에 다양한 모습을 띤다고 한다. "수고한 당신, 이제는 떠나라"라는 광고 카피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일 년간 수고한 자신에게 스스로 선물하는 소비 행태다.

이 같은 트렌드는 1인 가구 급증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의 11%를 상회하는 수치다. 혼자 살다 보니 가족 및 동료 사이에 사회성이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위해 선물하는 형태로 단절된 사회성을 보완받는 소비 행태가 탄생했을 법하다.

셀프 기프팅의 유형도 다양해 매주 한 번씩 꽃이나 책을 배송받기도 한다. 이 경우 꽃이나 책을 직접 고르지 않고 계약된 업체에서 소비자 성향을 파악해 알아서 배송한다고 한다. 선물 받는 사람도 그날이 되면 어떤 선물이 올까 설렌다고 한다.

기다림이다. 그냥 본인이 꽃이나 책을 고를 때와는 다르다. 비록 돈을 스스로 지불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신경 써서 뭔가를 보내 준다는 것. 사회와 이어진 끈을 놓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질 선물을 기다리는 것. 셀프 기프팅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반쯤 핀 꽃이 아름답다는 것도 기다림과 관계있을 것 같다. 채근담에 있는 글이다.

"花看半開(화간반개) 酒飮微醺(주음미훈) 此中(차중) 大有佳趣(대유가취)"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살짝 취할 정도로만 마시면, 그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멋이 있다)

아름답다는 꽃도 활짝 피게 되면 곧 시들고, 주위가 지저분해진다. 가장 아름다울 때는 꽃봉오리에 꽃이 맺혀 막 피어나는 때가 아닐까. 이 또한 바로 기다림과 연결된다. 조금 있으면 절정의 때가 온다는 것. 만개할 때를 기다리는 마음. 이는 스스로에게 보낸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과 닿아 있지 않을까. 겨울답지 않은 2월 중순 어느 날. 부산 시청 앞 주차장에 핀 동백도 반쯤 피어 만개를 기다리고 있다. KTA



세월의 강요도 감싸 안은 나목에선,

더욱 진한 봄 내음이 배어나고

글·사진 최규섭



"외로움도 타지 않는가 보다
앙상한 빈 몸으로 홀로 서서
쌓이는 세월의 더께를 기꺼이 맞이하며
감도는 스산함과 쓸쓸함 흘려보내네
찾아온 서릿바람도 눈바람도
그 초연한 모습에 쑥스러운 듯 슬며시 물러서누나.

부끄러움도 타지 않는가 보다
잿빛 맨몸으로 외따로이 서서
하늘 끝 마주해 손을 내뻗으며
둘러싸는 애잔함과 애처로움 뿌리치네
다가온 봄바람과 포근한 햇살
조용히 움을 틔우고 비껴가누나."

-「나목의 삶」·춘추필

봄이 왔다. '생명의 계절'답게 생동감이 넘치는 기운이 산하에 가득하다. 싱그러움을 머금은 새싹이 돋아나며 봄이 왔다고 속삭인다. 꽃구름이 일고 있는 하늘을 희롱하는 제비는 봄소식을 물고 날아든다. 비할 데가 없을 만큼 어우러져 봄의 교향악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귀를 기울여 봄의 화음을 음미하고, 마음의 눈을 떠 봄의 자태에 도취한다. 좀처럼 봄에서 배어나는 매혹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만물이 깨어나 약동하는 삼사월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몽촌토성(夢村土城)에도 봄이 왔다. 겨우내 파리했던 은행나무도 봄 내음을 풍긴다. 외로이 뿌리를 내린 채 고고함을 자랑하는 나목의 내뻗은 가지에선, 가득한 봄기운이 넘쳐 나온다. 세월의 풍파에 맞서지 않고 몸을 내맡기고 오히려 받아들인 포용의 힘에서, 새삼 거목의 풍모를 느낀다.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며 582개의 나이테가 쌓였을지 궁금하다. 오늘도 말없이 서서 꽃샘바람과 햇귀의 간질임에도 싫어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다. 아! 그 의연함을 좇고 싶다.



지금 가면 또 언제 오려나?

글·사진 우용희 무도 매거진 편집국장

무엇을 희구하는 몸짓일까? 떼 지어 조용히 편안하게 유영하는 모습에선, 초연함마저 엿보인다. 벗으로 삼을 만큼 한강이 맑아졌음을 알리는 듯 여유 있게 떠다닌다. 비록 한 철일지라도 겨울 철새의 도래는 정겨움을 자아낸다.

'겨울 진객'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가 무리 지어 한강 당점섬 근처에서 '고별 유영'을 하고 있다. 곧 고향인 시베리아 캄차카반도로 떠나기 전 먹이 활동에 나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

당정섬은 먹이가 풍부하고 주변 수심이 얕으며 강폭이 넓어 시베리아의 찬바람을 피해 찾아오는 겨울 철새에게 최적의 쉼터다. 수도권 최대 철새 도래지로, 큰고니를 비롯해 호사비오리(천연기념물 제448호), 참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 비오리, 흰뺨오리, 청둥오리 등 40여 종의 겨울 철새 5,000여 마리를 관찰할 수 있다.

태권도와 영어를 접목하고 영상을 융합하다

지구촌 태권도 가족에게 '희망의 빛' 될 공인 품새 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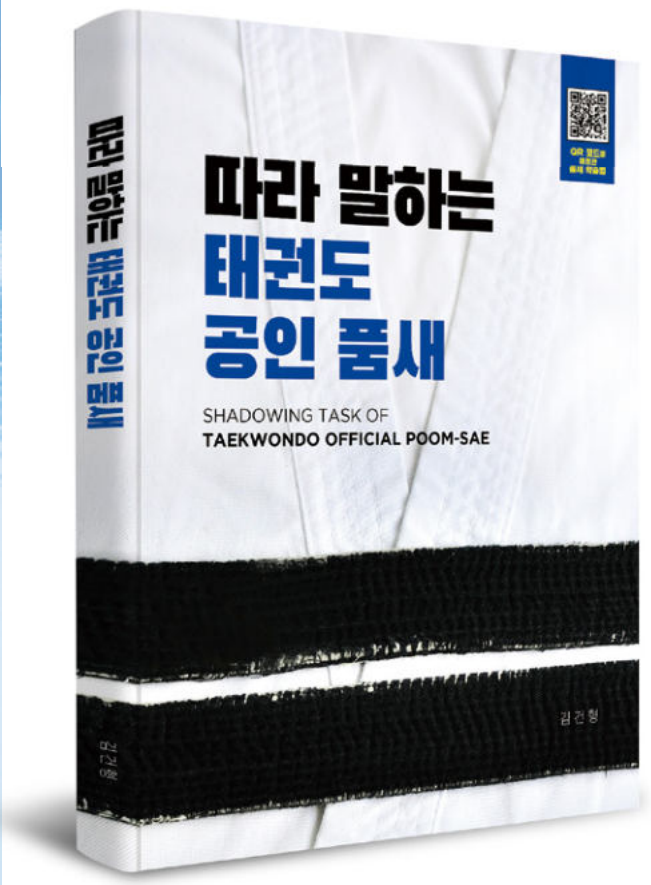
태권도는 세계태권도연맹(WT) 회원국이 210개국(2019년 기준)에 이를 만큼 지구촌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그만큼 세계인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이처럼 국가와 인종과 관계없이 크게 인기를 누리는 추세에 따라, 태권도를 보급하고 가르치기 위해 힘을 쏟는 지도자의 수도 점증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맞춰 해외에서 지도 경험을 쌓기 위해 도전하는 태권도 전공 대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즈음이다.

열망을 불태우며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 매진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장벽이다. 태권도 기술은 시나브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기술 용어(명칭)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어떤 표현으로 외국인 수련생을 가르칠지 막막할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듯싶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지도에 애로를 겪는다면, 자괴감 내지는 상실감에 부딪혀 심적으로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 말하는 태권도 공인 품새』는 가르칠 때 부닥치는 언어의 벽을 허무는 데 초점을 맞춰 저술된 책이다. 신체 활동을 통해 언어 습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눈 뜬 저자가 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내놓은 작품이다. 태권도 공인 품새를 가르치고 배우는 신체 활동을 디딤돌로, 자연스럽게 외국어(영어)를 터득하는 묘미가 숨어 있다. 신체 활동에 무도의 가치관을 더해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작게나마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담겼음이 엿보인다. 저자가 기대하는 효과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 외국인에게 품새를 가르치려는 한국인 지도자가 시범과 함께 영어로 동작 및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 외국인 품새 수련생이 기본 기술 동작의 바뀐 한글 용어를 배우는 데 ▲ 유아·청소년은 물론 성인이 품새를 수련하며 외국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데 각각 도움이 됐으면 한다."



『따라 말하는 태권도 공인 품새』
—
김건형 지음
㈜베스트 일레븐 펴냄
정가 2만 5,000원

교육은 인간 형성 과정으로,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을 계도(計圖)하는 작용이다. 아울러 심신을 갈고닦아 자기 계발을 꾀하는 순기능의 도구기도 하다. 이 책은 저자가 이런 교육의 참된 이상에 기반을 두고 실용적 효과까지 고려하며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훌륭한 교본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책과 영상의 융합이라는 새 양태로, 공인 품새 교본의 전형을 모색한 저자의 불타오르는 열정이 진하게 배어나는 수작이다.

무릇 한민족이라면 '태권도 종가(宗家)'로서 한껏 자긍심을 부풀리고 자존심을 곧추세울 만하다. 따라서 그 자부심이 더욱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름을 뿌리고 정성스레 가꾸고 길러야 하는 마음가짐을 굳게 하는 게 이 시대 한국 태권도인의 소명이다. 『따라 말하는 태권도 공인 품새』의 탄생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까닭이다. '변환의 시대'다. 분초를 다투는 변화의 흐름은 따라잡기가 버겁다. 현실을 꿰뚫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만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절이다. 이 맥락에서도, 이 책은 이 시대 태권도 교육의 한 생존 묘약으로서 그 효능을 봄낼 만한 힘이 엿보이는 양서(良書)다. KTA

“재밌고 흥미롭다” … 무도성 강조

글·사진 박상욱 WTN 기자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기존 전자호구의 터치 개념이 아니라 반자동 전자호구를 채택, 위력 중심의 겨루기 경기로 바꿔 재미없는 태권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걸음새는 지난 1월 12~1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한 KTA 파워 태권도 프리미엄리그 쇼케이스로 나타났다. 이번 쇼케이스가 어떤 취지에서 시작됐는지 살펴보고, 또 진행 방식, 성과, 반응, 개선 및 향후 계획 등을 짚어 보았다.



위력 중심의 겨루기 경기로 바꿔 재미없는 태권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KTA 파워 태권도 프리미엄리그 쇼케이스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재미있고 무도성을 회복한 태권도 경기'가 목적

태권도 경기의 재미를 배가하기 위한 태권도계의 노력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권도 경기는 재미가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재미없는 경기규칙에서 기인한 문제로, "태권도 경기는 재미없다."라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코트에 나선 선수는 제자리에서 6분(2분 3회전) 동안 톡톡 뛰다가 발차기 몇 번 하고 끝냈다. 그러다 운이 좋아 득점하면 그 점수를 지키기 위해 슬슬 도망 다녀, 박진감은커녕 6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게다가 일반 대중의 시각적 득점 이해도까지 떨어져 '재미없는 태권도'라는 인식은 더욱 팽배해졌다. 자연히 대중적 미디어 노출도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축구, 야구, 농구 같은 스포츠 종목은 인기 스타의 발굴, 유료 경기 관전, 상품 개발 같은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반면, 태권도는 수많은 수련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스포츠로서 대중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꾸준히 받는 단초를 제공했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라데가 가장 비슷한 종목인 태권도와 재미와 대중적 호응도를 놓고 비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KTA는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어 일반 대중의 외면을 관심과 사랑으로 바꿔 보려는 고민을 거듭했다. KTA 파워 태권도 프리미엄리그는 이러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창신 회장도 고민에 고민을 더한 시간을 보냈다.

"2015년에 세계태권도연맹(WT) 전자호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첼랴빈스크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정상적이고 파워 있는 발차기는 득점이 안 나오고,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파워가 떨어진 발차기는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왜 나타나는지 정확히 알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연히 재미가 반감되고 이해도 또한 떨어졌다. 그래서 혼자서 문제점을 머릿속에 담았다. 이런 상태론, 누구든지 태권도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없으며, 태권도 경기가 재미없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림픽이든 세계 선수권 대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경기가 재미없으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듬해 KTA 수장으로 선출된 최 회장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했고 이번 쇼케이스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데 산파 역을 했다. 최 회장은 프리미엄 리그의 목적을 "프리미엄리그는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쇼케이스에 참가한 선수, 지도자, 심판,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여기에 무도성이 가미된 태권도를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도 가미됐다. 이번 쇼케이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재춘 KTA 사무총장은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득점이 이뤄지는 현재 전자호구 시스템상의 태권도는 변칙 발차기 등으로 '발 펜싱'이라 불리며 외면받는 현실이다. 태권도가 재미없다는 논란 속에 퇴보하느냐 전진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관중 친화적이고 미디어에 적합한 태권도 경기가 어떤 것인지 연구했다. 무도성을 회복한 태권도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쇼케이스를 개최했다."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진행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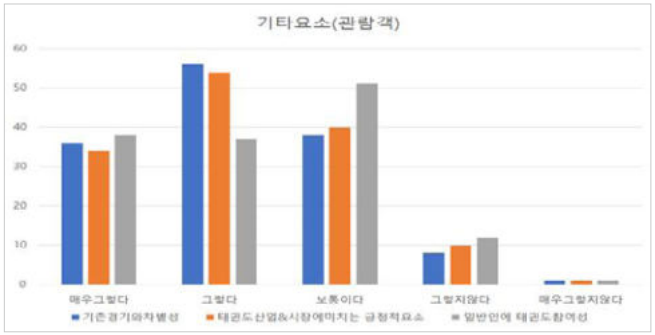
이틀(일수 기준) 간 진행된 프리미엄리그 쇼케이스는 타격 강도에 따라 상대의 파워 게이지를 소멸시키는 오락 게임의 방식을 접목시켜 재미와 흥미를 한층 높였다. 두 선수가 '100'이라는 똑같은 충격량을 갖고 경기를 시작해 상대의 충격량을 먼저 많이 떨어뜨리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충격량은 기술, 강도, 타격 부위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줄어들게 해 박진감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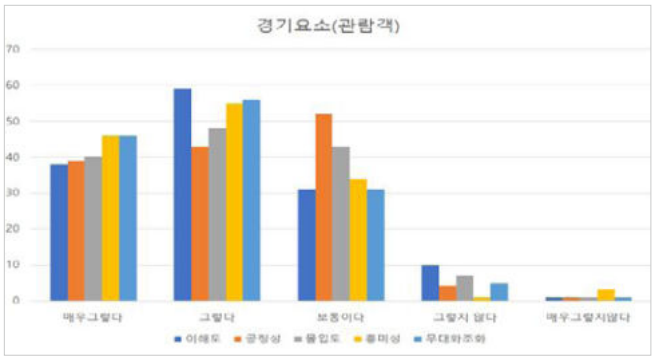
반자동 전자호구를 썼다. 타격 시 미리 체급별로 선정한 충격치 값이 측정돼 부심의 채점기에 전달되고, 부심이 유효한 공격으로 인정하면 그때 득점으로 표출된다. 머리는 정확한 공격만 인정받았다. 득점은 고강도 타격과 저강도 타격으로 구분했다. 반칙 행위를 한 선수에게는 10초의 페널티 시간을 주고, 이 시간에 상대로부터 받는 충격치는 2배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기는 2분씩 3전 2승제로 치러졌다.

현장 테스트를 거쳐 이번 쇼케이스에 참가할 18명의 선수와 심판 10명을 선발했다. KTA는 뽑은 선수와 심판에 대해 강원도 영월에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 1월 8일까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이 KTA 파워 태권도 프리미엄리그 쇼케이스 개최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틀에 걸쳐 테스트 경기 평가를 가졌다. 테스트 평가에서, 계체와 테스트 경기로 체급마다 한 명씩 후보 선수로 잔류시켰다. 또한, 무작위 추첨으로 대진표를 생성하여 경기를 진행, 4명의 승자 선수와 4명의 패자 선수로 구분하여 시드를 배정하고 쇼케이스 당일 대진표를 만들었다. 쇼케이스에선, 두 체급으로 나눠 12일에는 75~85㎏급, 13일에는 65~75㎏급 경기를 치렀다.

대회장도 확 달라져 기존 경기장과 확실한 차별을 두었다. 한 면을 가득 채운 LED 전광판, 쇼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조명, 프로필 소개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등장하는 선수 모두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현장 평가, "흥미롭고 재밌다"

첫선을 보인 프리미엄리그 쇼케이스에 대한 현장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관람객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존 방식과 확실히 다르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쇼케이스에 참가한 선수 및 심판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흥미롭고 재밌다."라고 입을 모았다.

KTA와 시도 협회 관계자들은 "태권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얼마든지 재미있고 무도성을 강조한 태권도가 태권도인과 일반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베스트 킥 상을 받은 65~75㎏급 정찬호(강화군청)는 "타격감도 있고, 경기 발차기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기존에 체력을 바탕으로 밀면서 운영을 하는 것과는 다른 스타일의 태권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했다.

75~85㎏급에 출전한 김용식(대전광역시청)은 "이번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기존 전자호구 방식에서 앞쪽 발을 들고 하던 경기 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힘들었다. 새롭고 달라진 방식에 적응되면 재미있는 경기가 될 거 같다. 태권도가 더 화려해지고 다이내믹해질 것 같다."라고 밝혔다.

쇼케이스 심판으로 참여한 박태욱 KTA 상임심판은 "센스 터치에 의한 변칙 발차기를 위주로 하는 올림픽 경기 겨루기의 특징에서 벗어남으로써 다양하고 자유로운 발차기 동작이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어필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다. 재미는 물론 경기가 다이내믹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고,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었다. 정확성과 파워가 요구돼 기존 경기 방식보다 무도성이 회복된 듯싶다."라고 평가했다.

온라인과 미디어의 뜨거운 반응

이번 쇼케이스 주관 방송사인 MBC는 공중파 방송 1회와 스포츠 전문 채널 방송 3회 방영을 했다. 김세혁 KTA 부회장의 해설로 녹화한 뒤 내보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지상파에선, ▲ 태권도 파격 실험 ▲ 뒤차기 한 방에 파워 게이지 반 토막 ▲ 재미없다 인식 탈피하고 대변신한 태권도 ▲ '재미없는 태권도는 가라' 등의 제목 아래 방송을 내보냈는데, 호평이 쏟아졌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평가로 지면을 채워 프리미엄리그 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새롭고 재미있는 태권도 경기를 만들어 올림픽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해외에서까지 긍정적 평가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미디어와 온라인 관중 평가는 "▲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 기존 발 펜싱 경기보다 박진감 있고 재미있다 ▲ 디스플레이와 경기 장면의 합작이 IT 강국답다 ▲ 올림픽



이번 쇼케이스는 참관 관중은 물론 일반 대중과 미디어로부터도 크게 호평받았다.

에도 이 방식이 접목되면 좋겠다 ▲ 운동을 그만두었는데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 방어 위주에서 공격적으로 변환을 유도했다 ▲ 확실히 보는 맛은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성과와 개선해야 할 점은?

이번 프리미엄리그 쇼케이스는 "재미있는 태권도 및 무도성을 회복한 태권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류호윤 쇼케이스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종주국 협회로서 무도 태권도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면서, 재밌고 화려한 경기와 새로운 경기 방식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프리미엄리그를 추진했는데,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선해야 될 사항도 지적됐다. 현장 관람객들은 "총 파워치가 적어 경기가 짧아 아쉬웠다. 또, 경기 방식이 조금 쉬웠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쇼케이스에 참가한 선수들은 반자동 전자호구에 대한 개선점을 주로 언급했다. 이들은 "호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머리에 대한 충격 파워치가 있어야 되고, 주먹 득점이 높았으면 좋겠다. 유효 공격 시 게이지 감소가 느리게 반응해서 헷갈린 점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심판들은 "선수와 심판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기준의 정확성과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의견으로 "활동적이고 독창적인 심판복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김세혁 KTA 부회장(왼쪽)이 TV 해설을 하고 있다.

미디어들은 "태권도 이미지 개선, 친미디어형 태권도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주먹공격에 대한 아쉬움을 꼬집었다. 또한, 경기규칙에 대한 쉬운 이해도를 주문했다.

추진위원회는 ▲ 방송 그래픽 및 전광판 시스템 ▲전자호구 시스템 ▲경기 운영 시스템 등으로 나눠 개선해야 할 점을 꼽았다. ▲ 방송 그래픽 및 전광판 시스템에 대해선 "몸통·머리 주먹 점수 누적 포인트 노출 개선과 바(BAR) 청홍 컬러 구분 및 충격 게이지 색깔 등을" ▲ 전자호구 시스템에 대해선 "센스 반자동 전자호구 심판 공정성 문제, 몸통 공격 부심 진동 인정으로 인한 표출 1초 간격 문제, 호구 재질 등을" ▲ 경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선 "단조로운 경기 및 운영 테마별 BGM 개선, 장내 및 경기 진행 아나운서 전문화 강조, 심판복 개발 등을" 각각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했다.

향후 계획: 2021년 프리미엄리그 출범 목표

향후 계획 및 일정에 신중한 자세인 KTA는 2차 및 3차 쇼케이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KTA는 "1차 쇼케이스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방식을 보완하여 스포츠 흥행성이 높은 경기 방식을 채택해 2차 및 3차 쇼케이스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업 목적에 대해선, KTA는 "1~3차 쇼케이스 이후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2021년 시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KTA는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다. 사업 추진은 1차 쇼케이스 경기 방식을 보완·개선해 선수단 훈련을 진행하려 한다. 2020년 KTA 파워 태권도 프리미엄리그 2차(예선전) 및 3차(최강전) 쇼케이스 개최 후 결과에 따라 2021년 최종 경기 방식을 확정해서 KTA 프리미엄리그를 출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 경기 방식 보완 ▲ 장비 및 방송 시스템 구축 보완 ▲전자호구 및 채점 보완 등으로 프리미엄리그 경기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 서울시청

10년의 기다림 마침표 찍고 비상의 나래 펴다

글 박상욱 WTN 기자
사진 박상욱, 서울시청 제공

서울특별시청 직장 운동부는 태권도를 포함해 22개다. 서울시 직장 운동부는 전략적 기획과 실행으로 서울 시민의 만족감을 끌어내고 서울시 위상 제고 등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권도부 또한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2010년 지도자 1명과 선수 3명으로 창단됐다. 한 번의 강산이 변하는 동안 역경, 고난, 환희의 순간도 맛보면서 묵묵히 성장을 거듭했다. 창단 후 10년의 기다림 끝에, 서울시 직장 운동부 염원인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한 걸음 다가섰다. 팀 색깔이 '가족'으로 대변되고 있는 서울시청 태권도부를 찾아가 보았다.



'작지만 강한 팀'을 만들어 가는 서울특별시청 태권도부.



서울시청 선수들은 훈련을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제9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기 대회 3인조 단체전 우승 후 기념 촬영을 했을 때 모습이다.

시민에게 만족 주고 시 위상 제고에 기여

서울특별시청 태권도부는 2010년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창건 감독을 필두로 왕혜리, 최유진, 장경심 등의 선수로 팀을 구성했다. 서울시청 직장 운동부는 서울 시민과 함께하며 만족과 자긍심을 주고 나아가 서울시를 세계 속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권도부 또한 서울시 여느 직장 운동부와 마찬가지로 창단 당시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창건 감독은 창단 때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사령탑을 지휘하고 있다. 이 감독은 "지도자 1명과 선수 3명으로 작게 시작됐지만, 목표는 뚜렷했다. 보통 실업팀은 전국 체육대회 자구책으로 창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서울시청은 시민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고 서울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창단됐다."라고 그때를 되돌아봤다.

이 감독은 "이런 가치 실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다. 지구촌 축제 올림픽, 아시아인의 대축제 아시안 게임,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등에서 성적을 내 서울시청 직장 운동부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게 변하지 않는 목표다."라고 덧붙였다.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도쿄 올림픽

서울시청 태권도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굵직한 여자 선수를 배출했다. 중량급은 종주국을 대표하는 선수 계보를 이어 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창단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고대하던 올림픽 금메달 사냥은 이뤄지지 않았다. 태권도를 포함해 서울시 직장 운동부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은 획득했어도, 금메달 수확은 아직 없다.

이 감독은 "태권도를 제외한 기타 종목에서, 서울시청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지만, 금메달은 없었다. 서울시청 태권도부는 올림픽 무대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려고 그동안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실현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태권도는 2012 런던 올림픽, 2016 히우(리우) 올림픽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런던 대회 땐 왕혜리가, 히우 대회 땐 이인종과 서소영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그렇지만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팀도 성장을 거듭하며 비로소 2020 도쿄(東京) 올림픽에 우리 팀 선수가 출전하게 됐다. 출전권 획득뿐 아니라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도전은 이다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시청 직장 운동부 염원 풀어 줄 이다빈

이다빈은 10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고 서울시 직장 운동부의 염원을 풀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다빈은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후 서울시청에 둥지를 틀었다. 더 좋은 환경의 실업팀에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이다빈의 선택은 서울시청이었다. 이다빈 영입에 얼마나 공들였는지 많은 뒷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한 이창건 감독의 말이다.

"다빈이 영입에 계획서까지 만들었다. 계획서를 관계자에게 전해 주면서 올림픽 금메달 이야기를 했다. 관계자분이 선수 영입에 계획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돕겠다고 확답한 뒤, 다빈이 영입을 추진했다. 다빈이 영입은 올림픽을 겨냥해 추진했다. 그 배경엔, 팀의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밑그림도 있었다."

이 감독은 "올림픽 출전을 확정 짓기까지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도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때를 이다빈은 "2019년도 국가대표 최종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기였다. 팔꿈치 부상으로 코트 위에 서 있기도 힘들었



2019 오세아니아 프레지던트컵 우승 직후, 이창건 감독(왼쪽)과 이다빈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다. 1주일 훈련하고 최종전에 출전해 패자부활전을 거쳐 대표 1진으로 선발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돌아봤다.

이다빈은 그 뒤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우승했다. 이 감독은 "큰 고비를 넘긴 이후는 걱정 없이 승승장구했다. 다빈이가 세계 선수권 대회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며 올림픽 자동 출전의 발판을 마련하더니 그 기세를 타고 도쿄행을 확정 짓고 이제 금메달 획득에 성큼 다가섰다."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이어 "서울시 직장 운동부의 염원을 다빈이가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팀 색깔은 '가족'

서울시청은 현재 남현정, 문소윤, 박유영, 신현선, 윤재은, 이다빈(이상 가나다순) 등 6명의 선수가 한솥밥을 먹고 있다. 취재 차 서울시청 태권도부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첫 느낌은 '따뜻함'이었다. 자신보다 동료를 먼저 챙겨 주는 모습 때문에, 한겨울 한파를 녹일 만큼의 온기가 넘쳤다. 훈련이 녹녹지 않게 진행됐어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열정을 더 불태우고 있었다.

서울시청 태권도부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가족'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6명의 자매가 끌고 밀며 각자 목표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 가족이란 표현이 잘 어울린다. 6년 차로 맏언니며 주장인 신현선은 "실업팀 중 팀원이 많지 않은 팀에 속한다. 그러나 강하다. 우리 팀은 작지만 강한 팀이다."

'작지만 강한 팀'이라고 서슴없이 표현한 것은 각자 몫을 다해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결집한 힘이 모이기까지, 서울시청 태권도부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라는 생각을 깊이 새겼다.

서울시청에 몸담은 연차가 짧은 선수들도 이러한 팀 분위기이자 색깔을 희석하지 않기 위해 각자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하면, 나머지 선수가 이를 악물고 채워 준다. 여느 팀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이 감독은 팀 색채와 관련해 하나의 예를 들었다.

"다빈이를 영입할 당시, 팀원 중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별한 선수 영입으로 팀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더니, 다빈이 영입을 환영했다. 지금은 다빈이를 위해 목청껏 응원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배려한다. 마치 집안에 수험생 한 명을 둔 분위기다."

이처럼 지도자와 선수의 한결같은 마음이 모여 소속감으로 발전했다. 팀에서 팀원에게 요구되는 첫 덕목이 소속감이다. 서울시청 태권도부는 개인으로 인연을 맺고 가족으로 변해 동고동락한다. 가족으로서 각자의 힘을 모아 직장 운동부의 중요한 덕목인 소속감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실마리 찾아

훈련 등 일과를 마친 서울시청 선수들의 일정은 여느 20대와 비슷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개별 훈련을 하는 팀원도 있고, 일상생활을 즐기려는 팀원도 있으며, 자기계발에 시간을 할애하는 팀원도 있다.

신현선은 "열정의 시간(훈련을 의미)을 보낸 후 자유 시간엔,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 힘들었던 선수는 휴식을 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선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자유 시간에도 불문율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 실마리도 함께 찾는 것이다. 신현선은 "진로에 대한 고민도 각자 한다. 은퇴 이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같이 해결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창건 감독도 이런 분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선수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한다.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다. 창단 이후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청 태권도부 소속으로 은퇴 이후 경찰에 투신하는 선수들이 유독 많았다. 왕혜리(부산경찰청), 이인종(분당경찰서), 서소영(경찰교육 중)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10년의 역사를 지난 서울시청 태권도부는 작지만 강한 팀이다. 지난 10년의 기다림 속에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성큼 다가선 선수도 있다.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 비상의 날개를 펴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서울시청이다. KTA

〈4〉 경희대학교

한국 체육 주춧돌 자긍심을 바탕으로 명가로 자리매김하다

용인 = 글 최규섭
사진 최규섭, 경희대학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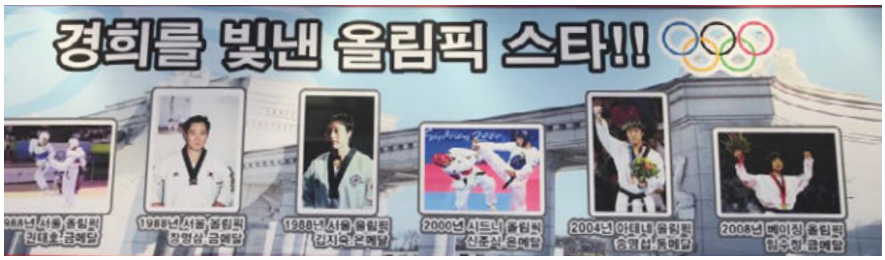
"내가 흘린 땀방울은 경희인의 기쁨 되어 돌아온다."

땀방울로 이룬 화려한 역사다. 한국 태권도사의 한 쪽을 당당히 차지하는 빛나는 연혁이다. 뚜렷하고 굵게 새겨진 그 족적을 더듬어 가다 보면 "대단하다!"라는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온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경기도 용인시) 선승관에 걸려 있는 큼지막한 이 현판은 그래서 더욱 깊은 인상으로 가슴에 와 닿는다.

흘린 땀의 양과 이뤄지는 결실은 비례한다. 스포츠, 아니 모든 분야를 한결같이 관통하는 진리다. 이 맥락에서, '땀방울'을 기치로 내건 경희대학교 태권도팀이 얼마나 혁혁한 전과를 거뒀을지 쉽게 연상된다. 실제로, 지나온 발자취가 입증한다.

"가자, 정상으로!" 경희대학교 태권도팀이 중흥을 힘차게 외치고 있다. 세 번째 줄 왼쪽 끝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정을진 감독이다.





역대 올림픽에서, 경희를 빛낸 얼굴들.

〈표 1〉 역대 감독

	이름	학번	재임 기간
제1대	최영열	1964	1981~1986년
제2대	전정우	1981	1987~1997년
제3대	김봉근	1989	2002~2014년
제4대	강남원	1997	2015~2016년
제5대	문광선	1993	2016~2018년
제6대	정을진	1990	2020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 체육의 개척자

경희대학교의 연원은 일제 강점기 신흥무관학교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11년 서간도에서 개교한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 양성 기관으로서 무장 독립운동의 한 축을 이루며 민족 해방에 크게 이바지했다. 광복 후 신흥전문학원(1947년)→신흥초급대학(1949년)→ 신흥대학(1952년)→ 신흥대학교(1955년)를 거쳐 현재의 교명(1960년)에 이르렀는데, 그 정통성과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경희대가 건전한 신체 단련과 정신 함양을 이념으로 하는 체육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부터 이의 실천에 앞장서 온 배경이다.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체육학과를 개설한 때가 71년 전인 1949년일 정도로, 개척자로서 오늘날 한국 체육의 초석을 이뤘다. 곧, 건국 후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체육을 일궈 옥토로 만드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한 체육 교육의 전당이었다.

자연스레 경희대가 육성하는 각종 체육부는 한국 스포츠 초창기에 두각을 나타내며 위세를 떨쳤다. 그중에서, 경희대 체육을 널리 알리는 데 주역이 됐던 종목은 단연 태권도였다. 1960년대 무도 태권도가 경기화의 싹을 틔우던 시절에, 선두 주자로 나서며 최강으로 자리매김한 팀은 경희대 태권도부였다.

지금까지 '전설'로 회자되는 최영열, 유기대, 최권열, 유형환 등 당대를 주름잡던 걸출한 선수들의 둥지는 한결같이 경희대였다. 이들은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오늘에도 쟁쟁했던 이름에 걸맞게 한국 태권도계의 중핵에서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기원장(최영열),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최권열), 대한민국태권도협회 고문(유기대)과 회장 특보(유형환)로서 태권도 진흥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1980~1990년대 '경희대 천하' 열며 전성기 구가

경희대학교 태권도는 1970년대 들어 조용했다. 1960년대를 빛냈던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졌다. 반전을 이루며 재도약의 길에 들어서는 데 필요한 시간은 10여 년이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뛰어난 전과를 거두기엔 한계가 있었다.

1981년,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편 전기가 마련됐다. 선배 최영열을 감독으로 영입하고 우수 선수를 대거 스카우트하며 정상 재도전에 나섰다. 경희대 태권도사에 이해가 태권도부의 원년으로 기록된 연유다. 즉,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 선임한 태권도부 초대 사령탑(표 1 참조)이 최 감독이었다. 1983년 4년제 대학 최초로 개설된 태권도학과도 중흥의 계기가 됐다.

투자와 땀의 효과는 금세 두드러지게 나왔다. 1981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제1회 월드컵 태권도 대회서, 송범수(밴텀급·-56㎏·이하 당시)와 이준걸(페더급·-60㎏)이 금빛 솜씨를 봄내며 '경희(慶熙)'의 이름을 세계에 떨쳤다. '흥성[熙]에 기뻐하다[慶].'는 뜻의 학교명에 어울리는 빛나는 결실이었다.

물꼬가 트이니, 봇물이 흘러넘쳤다. 스포츠 각 종목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경희 태권도인'의 이름이 잇달아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장명삼이 제5회(1982) 세계 선수권 대회(에콰도르 과야킬) 페더급(-60㎏)에서 우승하며 첫 세계 선수권자로 이름을 올린 이래, 수많은 후배가 그 기세를 이어 가며 경희대 태권도의 빼어남을 과시했다(표 2 참조). '경희대 천하'가 열렸다고 할 만했다.

1980년대 위 두 주요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횟수만도 열 번이었다. 이 가운데 1988 서울 올림픽 페더급(-64㎏)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장명삼을 비롯해 1987 바르셀로나 대회와 1989 서울 대회를 거푸 석권하며 세계 챔프로 자리매김한 김소영(여자 페더급·-55㎏)과 이은영(여자 라이트급·-60㎏)은 각각 두 번씩 달콤한 맛을 만끽했다. 태권도학과 1기인 장명삼은 1980년대를 호령하며 독보적 경지에 올랐던 세계적 선수였다.

특히, 이 시기에 1989 서울 대회에선, 김소영과 이은영을 필두로 권태호(남자 핀급·-50㎏)까지 세 명씩이나 왕좌에 앉을



경희대학교 태권도는 각종 국내 대회도 휩쓸어 왔다. 개가를 올린 뒤 기념 촬영한 모습들.

만치 초강세를 떨쳤다. 남녀 각 8체급씩 총 16체급 중 20%에 가까운 비중이었으니, 두말할 나위 없는 '경희대 세상'이었다.

한편 이 대회에선, 우리 나이 열여섯 살로서 수원 수성 여자 중학교 3학년인 원선진이 플라이급(-47㎏)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각광을 받았다. 원선진은 6년 뒤 경희대 3학년 때 1995 마닐라 대회에서 밴텀급(-51㎏) 우승을 차지하며 경희대 전성기 주역의 한 명으로 맹활약했다.

뭐니 뭐니 해도 경희대 최전성기는 1990년대였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세 번씩이나 정상에 오른 정명숙과 조향미를 필두로 빼어난 경희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명숙은 1993 뉴욕 대회부터 1997 홍콩 대회까지 여자 헤비급(+70㎏)에서, 조향미는 1995 마닐라 대회부터 1999 애드먼턴 대회까지 여자 웰터급(-65㎏)에서 각각 3연패를 이루며 세계 선수권 대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 기간에, 경희대가 배출한 세계 선수권 우승자는 열 명에 이른다. 이들이 올린 금 결실은 모두 15회나 된다.

중흥 향한 힘찬 날갯짓, 사령탑 영입

21세기에 접어들며 경희대학교 태권도는 좀 주춤한 듯한 모양새다. 월등한 운동 환경과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스카우트에서 대어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밀려 기세가 한풀 꺾였음이 엿보인다.

그러나 명가의 후손답게 간단없는 전통의 명맥을 잇고 있다. 2000년대엔, 임수정이 2008 베이징(北京) 올림픽 여자 라이트급(-5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경희대 금맥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널리 알렸다. 이에 앞서 신준식과 송명섭이 경희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신준식은 2000 시드니 대회 때 은메달을, 송명섭은 2004 아테네 대회 때 동메달을 각각 남자 라이트급(-68㎏)에서 따냈다.

2010년대엔 세 명의 세계 선수권 대회 왕자가 나왔다. 2013 푸에블라 대회에서 김유진(여자 -53㎏급)이, 2015 첼랴빈스크 대회에서 하민아(-49㎏급)가, 2017 무주 대회에서 정윤조(남자 -58㎏급)가 각각 경희대 태권도의 자존심을 곧추세웠다.

2020년, 경희대는 다시 한번 비상의 나래를 펴기 위해 날갯짓하고 있다. 최전성기의 막을 올렸던 1990년에 '경희 도복'과 연을 맺은 태권도학과 8기인 정을진 감독을 제6대 사령탑에 영입하고 중흥을 기약한다. 20년 넘게 전주시청에 몸담았던 정 감독은 '덕장(德將)'으로 유명하다. 대단한 포용력으로 선수들을 이끌며 좋은 성과를 내왔다.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가대표를 배출(이선기·남자 -87㎏)하는 등 '명조련사'로서도 이름 높다.

정 감독은 선수단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존중'과 '화합'을 강조했다. "자신이 귀중하게 보이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하라.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데서 화합이 싹트고, 나아가 한 마음 한뜻을 이룬 한 팀으로서 최상의 결실을 빚을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두 덕목을 앞세운 정 감독을 새 영양분으로 수혈한 경희대 태권도가 힘차게 다시 걷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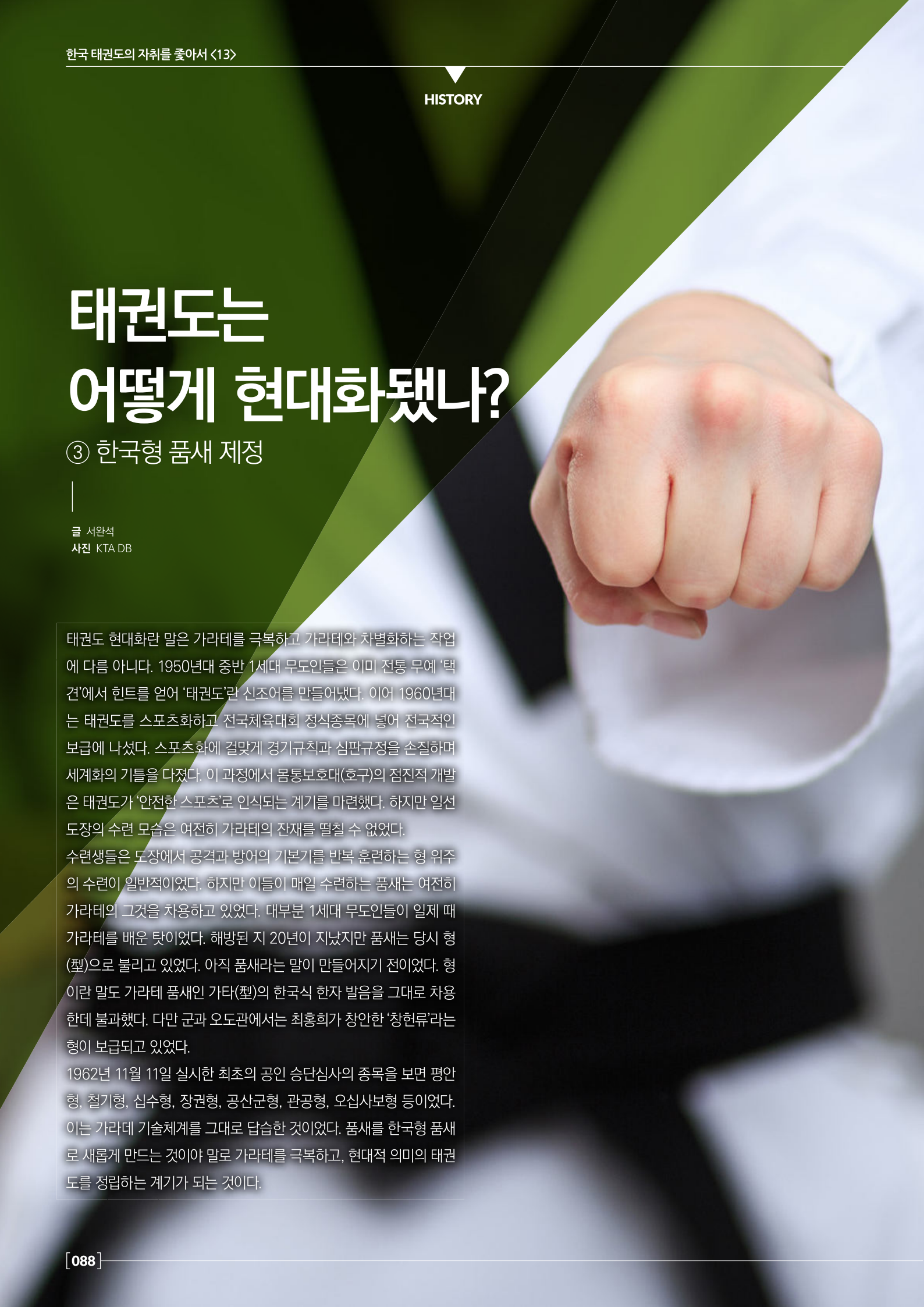
〈표 2〉 역대 올림픽·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년도	대회	개최지	이름	체급
1982	제5회 세계 선수권	에콰도르 과야킬	장명삼	페더급(-60㎏)
1983	제6회 세계 선수권	덴마크 코펜하겐	한홍식	밴텀급(-56㎏)
1987	제8회(제1회 여자) 세계 선수권	스페인 바르셀로나	김소영	여자 페더급(-55㎏)
			이은영	여자 라이트급(-60㎏)
1988	제24회 서울 올림픽 (시범 종목)	대한민국 서울	권태호	핀급(-50㎏)
			장명삼	페더급(-64㎏)
			김현희	여자 미들급(-70㎏)
1989	제9회(제2회 여자) 세계 선수권	대한민국 서울	권태호	핀급(-50㎏)
			김소영	여자 페더급(-55㎏)
			이은영	여자 라이트급(-60㎏)
1991	제10회(여자 제3회) 세계 선수권	그리스 아테네	박용웅	웰터급(-76㎏)
			윤순철	미들급(-83㎏)
1993	제11회(여자 제4회) 세계 선수권	미국 뉴욕	박세진	라이트급(-70㎏)
			임영호	웰터급(-76㎏)
			이승민	여자 페더급(-55㎏)
			박은선	여자 미들급(-70㎏)
			정명숙	여자 헤비급(+70㎏)
1995	제12회(제5회 여자) 세계 선수권	필리핀 마닐라	원선진	여자 밴텀급(-51㎏)
			이승민	여자 페더급(-55㎏)
			박경숙	여자 라이트급(-55㎏)
			조향미	여자 웰터급(-65㎏)
			정명숙	여자 헤비급(+70㎏)
1997	제13회(제6회 여자) 세계 선수권	홍콩	조향미	여자 웰터급(-65㎏)
			정명숙	여자 헤비급(+70㎏)
1999	제14회(제7회 여자) 세계 선수권	캐나다 애드먼턴	조향미	여자 웰터급(-65㎏)
2008	제29회 올림픽	중국 베이징(北京)	임수정	여자 라이트급(-57㎏)
2013	제21회(제14회 여자) 세계 선수권	멕시코 푸에블라	김유진	-53㎏급
2015	제22회(제15회 여자) 세계 선수권	러시아 첼랴빈스크	하민아	-49㎏급
2017	제23회(제16회 여자) 세계 선수권	대한민국 무주	정윤조	-58㎏급

태권도는 어떻게 현대화됐나?

③ 한국형 품새 제정

글 서완석
사진 KTA DB



태권도 현대화란 말은 가라테를 극복하고 가라테와 차별화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1950년대 중반 1세대 무도인들은 이미 전통 무예 '택견'에서 힌트를 얻어 '태권도'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어 1960년대는 태권도를 스포츠화하고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에 넣어 전국적인 보급에 나섰다. 스포츠화에 걸맞게 경기규칙과 심판규정을 손질하며 세계화의 기틀을 다졌다. 이 과정에서 몸통보호대(호구)의 점진적 개발은 태권도가 '안전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선 도장의 수련 모습은 여전히 가라테의 잔재를 떨칠 수 없었다.

수련생들은 도장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본기를 반복 훈련하는 형 위주의 수련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매일 수련하는 품새는 여전히 가라테의 그것을 차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1세대 무도인들이 일제 때 가라테를 배운 탓이었다. 해방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품새는 당시 형(型)으로 불리고 있었다. 아직 품새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 형이란 말도 가라테 품새인 가타(型)의 한국식 한자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데 불과했다. 다만 군과 오도관에서는 최홍희가 창안한 '창헌류'라는 형이 보급되고 있었다.

1962년 11월 11일 실시한 최초의 공인 승단심사의 종목을 보면 평안형, 철기형, 십수형, 장권형, 공산군형, 관공형, 오십사보형 등이었다. 이는 가라데 기술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품새를 한국형 품새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가라테를 극복하고, 현대적 의미의 태권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1967년 가라테의 잔재 극복하려 한국형 품새 제정

1965년 최홍희가 대한태수도협회 회장이 됐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태수도를 버리고 자신의 지론대로 '대한태권도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그는 자신이 만든 창헌류 형을 협회 공식 품새로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가라테 형을 승단 심사종목으로 사용하고 있던 협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갈등이 커지자, 이종우·엄운규가 주동이 된 이사회는 그를 불신임 결의했고, 최홍희는 1년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한국형 품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67년 취임한 김용채 회장 때다. 그는 강덕원 출신의 태권도인이자 공화당 실세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취임 전부터 협회 중앙도장(국기원) 건립 필요성과 한국형 품새 제정 등 태권도 현안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특히 품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협회 행정의 중추였던 이종우·엄운규 등과 교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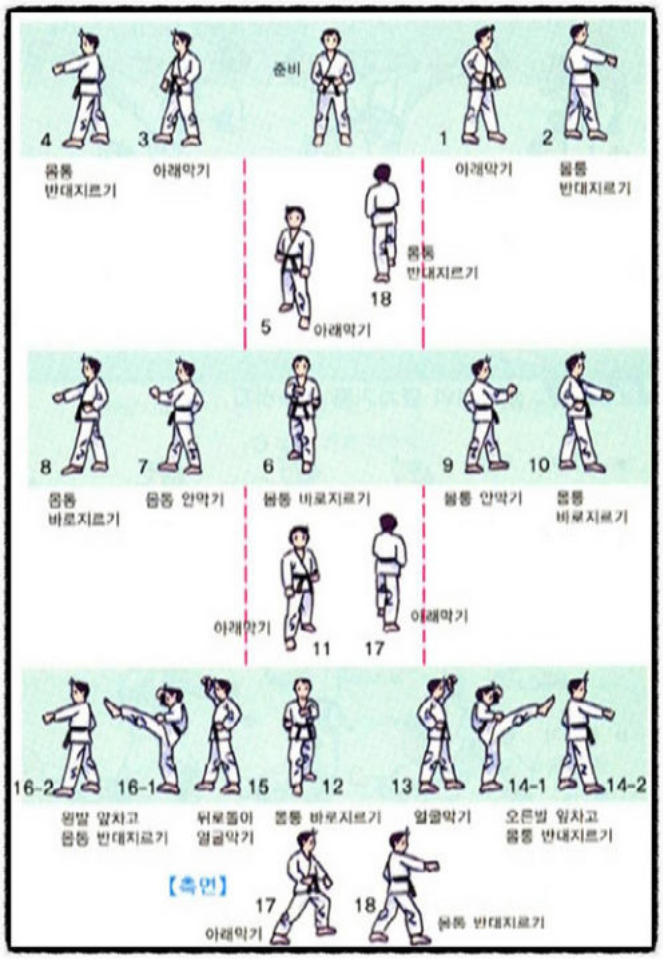
우선 각 관에서 추천 받은 인사들로 품새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종우(지도관)가 위원장을 맡았고, 각 관에서 곽근식(청도관) 이영섭(송무관) 이교윤(한무관) 박해만(청도관) 김순배(창무관) 등 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형 품새 작업은 쉽지 않았다. 전통 무술인 택견과 중국 무술 등을 두루 참고했다. 그 결과 택견의 '칼잽이' 기술은 고려 품새에 차용돼 있고, '바탕손 턱치기'는 금강 품새에 삽입되어 있다. 그렇지만 기본기는 가라테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질 못했다. 태권도 품새가 지금껏 '가라테 모방설'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품새 명칭만큼은 일제 잔재를 벗어나 한국화하는 데 애썼다.

품새에 택견의 기술도 담아…명칭만큼은 한국적으로

제정위원들은 최종적으로 유급자용인 8개의 팔괘 품새와 유단자용 9개 품새 등 총 17개를 만들었다. 이종우 위원장은 유급자용 품새 명칭을 태극으로 정하고 싶었지만 유급자 가라테 형에 태극이 있어서 팔괘로 이름을 바꿨다.

팔괘 품새의 품새선을 보면 주로 만들 공(工)자를 택했고, 5장은 방패 간(干)자, 7장은 한글 우자, 8장은 선비 사(士)자로 돼 있다. 단조롭고 철학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가라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평가받을 만하다. 가라테에 없는 발차기라든가 점프 동작이 바로 그것이다.

유단자 품새는 고려·신라·백제·십진·태백·금강·지태·천권·한수 등 9가지 품새였다. 유단자 품새에서 현재의 고려 품새는 품새선 일(一)자에서 선비 士(사) 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 품새는 나라 이름이 많다하여 다시 백제는 평원으로, 신라는 일여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오직 맨몸으로 표현되는 무술 속성상 가라테와 완전히 다른 몸짓을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동작의 직진성에서 가라테와 확연히 다른 우리만의 품새를 창작하려고 애쓴 것만은 분명하다.



태극1장의 품새선

1967년 8월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협회 간부, 고단자, 체육인,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김순배의 지휘 아래 품새 발표회를 가졌다. 새 품새를 지켜본 최홍희는 "동작 자체도 엉망이고 그에 대한 명칭이나 술어조차 전혀 없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1966년 대한태권도협회장에서 물러난 뒤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로 추대된 그는 협회가 자신이 만든 창헌류 품새를 무시하고 새로운 품새를 제정한다는 점 자체가 마음에 거슬렸던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마침내 1967년 11월 30일 자로 새로운 품새를 제정, 공포한다. 협회는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대한체육회 체육회관에서 고단자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열어 본격적인 보급에 착수했다. 이듬해 2월 18일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승단대회



이종우 기술심의회 의장이 새로 제정된 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태극품새 제정 시 주도적 구실을 한 박해만 관장.

부터는 새롭게 만든 품새가 적용되면서 전국적인 보급에 나서게 된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만든 태극 품새

현재의 유급자용 태극 품새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제정됐다. 1972년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해외에 나가 보니,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모두 다 태권도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다. 교과과목에서조차 없었다. 그래서 4~6학년 체육교과서에 넣었지만, 기존 유급자 품새인 팔괘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다시 만든 유급자 품새가 바로 현재의 태극 품새다.

협회 기술심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성격의 형제정분과위원회가 설치됐다. 기술심의회 의장은 이종우였다. 그는 1967년 팔괘 및 유단자 품새 개발에 주도적 구실을 했었다. 비록 첫 한국형 품새가 가라테 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새선과 품새 명칭에서 가라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었다.

형제정분과위원회에는 협회 사무총장 엄운규와 기심회 부의장 홍종수, 심판위원장 배영기, 연구위원장 현우영 외 이병로, 곽근식, 박해만, 한영태, 홍정표, 고재천, 백준기 등이 참여했다.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유급자용인 팔괘형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개발한 품새가 현재 전 세계로 보급된 태극 1~8장이다. 태극 품새는 당시 청와대 경호실 태권도 사범을 맡고 있던 박해만(청도관 관장)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기존 유급자 품새인 팔괘를 제치고 전국적으로 보급

태극 품새의 구성은 어린 학생들이 쉽게 태권도를 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성장기 어린 수련생을 위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배우기 쉽게 만들었다. 태극 품새의 품새선은 우선 팔괘로 정한 뒤 좌우로 똑같은 선을 만들었다. 또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걸음걸이라는 데 착안해 1~3장에는 앞차기를 넣고, 4장에는 옆차기, 6장에는 돌려차기, 8장에는 뛰어 발차기를 각각 넣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 점점 난이도가 높은 동작으로 올라갔다. 또 기존 팔괘 품새의 뒷굽이 등 난이도를 피하고 겨루기의 실전에 적합한 서기로 앞서기를 택했다. 앞서기를 기본 품새에 넣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분명 가라테의 그것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2년 3월 14일 대한체육회 대강당에서 한형식 문교부 편수관을 비롯, 형제정분과위원회 멤버와 서울의 학교 대표 이간모, 박병주, 충남의 안영희, 강원의 황한배, 전북의 김순재, 전남의 박여배, 경남의 송진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그 후 일부 수정 작업을 거쳐 문교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협회 제정 품새는 앞선 팔괘와 유단자 품새 17개에 이어 모두 25개가 됐다.

태극 품새는 기존 유급자 품새인 팔괘를 제치고 단숨에 전국 도장으로 확대 보급됐다. 사실 이전에 만든 유급자용 품새인 팔괘가 훨씬 태권도의 특징을 잘 표현한 품새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새로 만든 태극 품새가 전국 도장으로 보급됐다. 애초 태극 품새는 교과과정에 집어넣기로 하고 만들어진 품새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등 5, 6년과 중고교 6년간 매년 1개씩의 품새를 가르칠 요량으로 모두 8개의 품새를 주문했던 것이다. 비록 기술적으로 팔괘가 훨씬 우수한 품새임에도, 문교부가 적극 나선 태극 품새가 전국적인 보급에 유리했다. KTA



글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사진 KTA DB



1995년 국제 태권도 대회 찾은 김영삼 대통령

1994년 12월 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기념하는 KBS배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열렸다. KBS와 세계태권도연맹(WTF·이하 당시)이 공동 주최한 이 대회엔, 각 대륙별로 태권도 강국 12개국이 참가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회식에, 김영삼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문화체육부 장관과 각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이 참석해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를 격려했다. 개회식은 KBS 팝 오케스트라의 행진곡에 맞춰 국제 심판들이 WTF 깃발을 들고 입장하며 시작됐다.

치사에서, 김 대통령은 "태권도는 한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가교 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왔다. 태권도는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인류의 화합과 번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후 공개 행사 시간에, 태권도 유단자인 탤런트 김혜수(3단)와 이동준(5단·맨 왼쪽)과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 어린이 2명이 태권도복과 꽃다발을 김 대통령 내외에게 증정하자, 김 대통령은 즉석에서 도복을 입고 띠를 맸다. 김 대통령은 경기장에 내려와 태권도 시범 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한편 이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했다. 남자부 2위는 이집트, 여자부 2위는 대만이 각각 차지했다.



1995년 76회 전국 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1995년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 포항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76회 전국 체육대회 태권도 경기가 열렸다.

포항고 체육관을 방문한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단상에서 홍종수 대한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뒤에선, 각 시도 태권도협회를 대표하는 임원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경기를 보고 있다.

앞줄 김 총재 옆에선, 태권도 현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종우·엄운규 원로가 나란히 앉아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두 원로는 대한태권도협회 집행부 임원이 아니었지만 1960년대 초 태권도계를 통합하고 경기화를 추진한 주역이었다. 이들은 각자의 여건이 달라 대립하기도 했으나,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줄에 앉아 있던 4명은 태권도 제도권의 상징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들은 건강했지만, 세월을 비켜갈 수 없어 모두 세상을 떠났다. 30년 동안 태권도계를 쥐락펴락했던 이들이기에, '인생무상(人生無常)'이 절로 느껴진다.

한편, 이 대회는 15개 시도 협회와 미국·캐나다·호주 등 3개 해외 동포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어, 서울이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했다. 시도 간 과열 경쟁으로,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가 잦아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또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여자부 경기에선, 전남이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KTA

전통 실전 무예 수박(手搏) 전승자 송창열·준호 부자

글·사진 이길우 자유기고가



송준호 대한수박협회 회장의 수련 모습. 왼쪽부터 소뿔잡기, 단매, 땅밟기 동작.

태권도와 달리 손기술이 위력적 … 혹독한 손바닥 단련

질박하다. 토속적이다. 전통 무예 수박의 용어와 동작을 보자.

우선 절구질. 수박의 대표적인 기본 동작이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를 앞으로 굽힌다. 양 팔을 교차해 가슴 앞에 놓는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다. 상체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편다. 이때 숨을 깊이 들이쉰다. 마치 아랫배에 숨이 꽉 찬 것처럼 들이쉬고 또 들이쉰다. 더는 숨을 들이 쉬지 못할 정도까지 숨을 들이쉬다가 순간적으로 내쉰다. 최대한 들이쉰 숨은 강한 에너지로



변해 폭발적인 위력을 보인다. 팔과 발에 그 힘이 강하게 전달되도록 반복적으로 수련한다. 수련 동작이 반복적인 절구질처럼 허리를 비롯해 온 몸을 단련한다.

이번엔 게걸음이다. 발을 벌려 주저앉은 것처럼 자세를 낮춘 뒤 한 발을 옆으로 뻗어 몸을 옮긴다. 상체를 들지 않고 주저앉은 상태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며 옆으로 옮긴다. 땅이 파일 정도로 발을 옮기는 데 힘을 준다. 하체가 단련된다.

택견에 비해 묵직한 발놀림

땅밟기를 보자. 한 발을 크게 들어 올린다. 절구질 자세처럼 숨을 힘껏 들이쉰다. 발을 구부린 채로 체중을 그대로 실어 발을 땅에 강하게 딛는다. 두 발을 번갈아 한다. 체중과 함께 호흡이 실려 땅을 울리며 하체가 강해진다. 땅에는 발자국이 파인다. 택견의 품밟기가 경쾌하다면, 수박의 땅밟기는 무겁다.

단매는 대표적인 공격기술이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뿜으며 손바닥으로 적을 공격한다. 평소 아름드리 나무 기둥에 손바닥을 치며 단련한다. 손바닥이 두텁게 변할 정도로 수련을 한다. 수박은 손(手)으로 친다(搏)는 의미이기에, 손기술이 많다. 단박에 매질을 끝난다는 의미에서 단매이다. 여러 번도 필요 없을 만큼 위력적이다. 일발 필살의 공격수이다.

소불잡기도 상대방을 겁준다. 양팔을 마치 소의 두 개 뿔을 잡는 것처럼 벌린다. 소뿔을 실제 잡은 것처럼 손끝에 힘을 주고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번갈아 돌린다. 안쪽으로 돌리면 상대방을 당겨 넘어뜨리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달려드는 상대의 힘을 비껴가게 한 뒤, 목을 조르는 동작으로 이어진다.

수박을 수련할 때는 따로 도복이 없다. 조선시대 농민이 모내기 할 때의 복장이다. 평민들의 일상복이 도복인 셈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 무용총에 그려진 견주기 동작



스스로 전통 무술이라고 주장하는 무술이 많지만, 수박은 옛 문헌에 실제 그 명칭이 실려 있는 대표적인 한민족의 무술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인 무용총(위 사진)엔, 두 남자가 마주서서 수박의 견주기 동작을 취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

삼실총 벽화에도 수박의 기본자세인 제몸치기 동작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석굴암 입구의 금강역사상은 수박의 주먹질 막기와 견주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고려사'에는 수박(手搏)이나 수박희(手搏戱)라는 무술의 기록이 있다. 당시 장군인 이의민과 두경승이 임금 앞에서 수박으로 맞붙는 구체적인 장면도 등장한다.

조선에서도 수박을 무인 등용의 과목으로 법률로 정했다. 〈세종실록〉에 보면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 능히 삼백보를 달리는 자가 상등이고, 이백보를 달리는 자가 중등이다. 또 수박의 기능이 능히 네 사람을 이기는 자가 상등이고 세 사람을 이기는 자가 중등이 된다."라고 하였다. 수박을 단련해 4대1, 3대1의 대련에서 이기면 벼슬길이 열린 것이다. 세조 때는 노비들도 수박을 잘하면 관리로 등용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평양의 날파람과 박치기, 함경도의 주먹치기, 개성의 수박치기와 제비치기, 서울 택견 등이 맨손 무술로 이름을 떨쳤다.



고인이 된 수박 전승자 송창열옹의 수박 시연 모습.

송도 수박의 고수에게 사사한 아버지 송창열

이런 수박을 어렵게 전승한 이는 고 송창열(1932~2017)이다.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초리가 고향인 그는 일제 강점기 개성에 살았다. 일본인 학교에 입학한 그는 일본 학생들에게 '조센진'이라며 놀림을 받았고, 덩치도 크지 않아 맞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개성에서 큰 주물공장을 했다. 태평양전쟁이 한창때엔, 포탄 껍데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징집되기도 했다. 그 공장엔 '천 서방'으로 불리는 공장장이 있었다. 본명이 '천일룡'인 그 공장장은 무술에 뛰어났다고 한다.

천 서방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몸싸움으로 유명한 개성 보부상을 했다. 보부상들은 산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술을 익혔다. 천 서방은 '송도(개성) 수박'의 고수였던 것이다. 그는 천 서방에게 개성 숲 속에서 무술을 배웠다. 자신의 고용주에게 아들을 부탁받는 천 서방은 그에게 정성껏 수박을 가르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일본인 학생들을 혼내줄 수 있었다. 소년이 배운 송도 수박은 손으로 밀고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로 박치기하며 상대를 제압하는 맨손 무술이다.

해방이 되고 서울로 이사를 온 소년은 한국전쟁이 날 때까지 개성을 오가며 스승에게 무술을 배웠다. 그리 크지 않은 덩치(키 170㎝)였지만, 그는 어느새 수박의 고수가 됐다.



수박은 자기 몸을 치며 수련

송 옹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 대구에서 주류 도매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다. 한때 남미로 이민을 가려고 전 재산을 정리했으나, 박정희 정권이 이민을 막는 바람에 이민의 꿈을 접고 부산에 정착했다. 송 옹은 거친 부산 바닥에서 수박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부산에서 선박업 등 여러 사업을 하며 둘째 아들에게 수박을 전수했다. 둘째 아들은 송준호 씨(52)로 현재 대한수박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송 옹은 생전에 어릴 때 자신이 배운 수박을 꼼꼼히 공책에 적어 아들에게 수박을 가르쳤다. 송 회장이 여섯 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수박을 시범 보인다.

우선 몸풀기다. 수박에서는 이를 '제몸치기'라고 한다. 절구질로 시작해서 두 손으로 발목과 무릎을 쓰다듬으며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어지는 운동은 '학춤'. 온 몸을 유연하게 한다. 마치 들판의 학이 춤추듯 좌우로 오가며 두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쓴다. 언뜻 보면 춤을 추는 동작이다. 어깨를 들썩이고, 오금을 폈다 굽혔다 한다.

수박에는 다른 무술처럼 정형화된 품새(투로)가 없다. 전쟁에서 적군과 몸으로 맞붙었을 경우, 그대로 실전용으로 쓰는 동작이 투박하게 이어진다. 연습이 바로 실전인 셈이다. 송씨는 '손등치기' '한 손으로 걸고 차기' '칼싸움 겁주기' '박치기' '돌려치기' '어깨로 넘어치기' '안다리 차기' 등의 우리말로 된 동작을 차례로 보여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곧바로 상대의 빈틈을 파고 든다. 우직하게 자신의 몸 중심을 지키며 묵직하게 공격을 한다.

"실전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목을 휘감고, 어깨를 감싸고, 그리고 박치기도 해야 합니다. 온 몸이 무기인 셈이죠."

수박은 '자기 손바닥이나 팔뚝 등으로 제 이마를 비롯해 뺨, 어깨, 옆구리, 허벅지, 발바닥 등을 치며 단련한다. 상대와 같이 연습을 할 때에는 같은 동작으로 게가 걷듯이 걸음하고, 서로 치며, 타격 시의 감각이나 거리에 익숙해지기 위한 독특한 연습방법을 쓴다.

용쓰며 어깨치기는 상대를 서로 밀어내며 소가 싸움을 하듯 힘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여기에 밀거나 끌고 돌려대기, 치기 등의 기술이 접목된다.

송준호 대한수박협회 회장,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 위해 최선

중국 지린(吉林)성 조선족 가운데 아직도 수박을 배우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은 땅을 파고 그 구덩이에 두 명이 들어가 마주선 채로 번갈아 땅밟기를 한다고 한다. 한동안 그렇게 땅밟기를 하면 구덩이가 깊숙하게 팬다고 한다.

"한 조선족 아가씨가 수박을 시범보였어요. 아름드리 나무를 걸쳐 놓더니 발로 밟는데, 단숨에 뽀개졌어요." 송 회장이 수박의 위력을 설명한다.

소설『단』의 실제 주인공인 권태훈(1900~1994)은 생전에 "수박이란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편 상태로 재빨리 뻗으며 상대방 역시 손을 내밀어 부딪치는 식으로 훈련한다. 흔히 곡조를 띤 소리를 질러가며 박수도 쳐 가며 행한다."라고 수박을 설명하기도 했다.

송 회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판소리 등 국악에 빠졌다가, 아버지의 길을 잇기로 하고 수박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아버지가 평소에는 선비처럼 조용하다가도 힘을 쓰면 무서웠다고 한다.

"고교시절 반항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시는데, 허공에 매달려 허우적거렸어요. 그때 수박의 위력을 실감했어요."

송 회장은 수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수박은 문화재청이 발주한 국가무형문화재 기초조사 용역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에 일곱 군데 지부가 있다고 한다.

지방 체육회장 선거, 태풍의 전주곡?

글 고진현
사진 스포츠 서울 DB

말 많고 탈 많던 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예상했던 대로 후폭풍이 거세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왔고, 급기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당선 무효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모두가 예측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로 지방 체육회장 선거에 접근한 게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품고 밀어붙인 정치권 주도의 제도 변화였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올 게 오고야 말았다. 체육의 자율성 확보가 법 개정 취지이자 명분이었으나, 정반대 현실을 목도한 체육계는 "이런 썩어 빠진 선거를 왜 해야만 하는가?"라고 자조 섞인 넋두리를 연방 토해 냈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안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법 개정 취지를 부끄럽게 한 실패한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체육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자기모순에 빠진 정책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헤치는 건 향후 한국 체육의 권력 지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어 자못 흥미롭다.

지방 체육회장 선거 결과

나타난 선거 결과는 한국 체육 지형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그동안 한국 체육은 경기인 출신의 엘리트 체육이 주류를 형성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17개 광역 체육 단체 중 무려 11곳에서 생활 체육 출신이 수장으로 뽑혔다. 체육 권력의 이동은 상당히 큰 의미를 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엘리트 체육 대 반엘리트 체육 진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나눠져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체육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선거 결과는 향후 체육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한체육회장 선거(2020년 12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체육의 정치화

선거 내내 체육의 정치화는 부끄러워 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의 전략으로 급부상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지자체장과 정치색이 같은 후보들은 하나같이 그 인연을 강조하듯 나란히 사진을 찍은 포스터를 만드는 등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 선거로 변질됐다. 마타도어도 판을 쳤다. 지자체장과 정치색이 다른 후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제아무리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해도 먹혀들지 않았다. "지자체장과 정치색이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라는 공포의 가설은 이번 선거 내내 만병통치약으로 쓰인 선거 전략에 불과했다.

결국 체육의 자율성 확보라는 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체육의 정치화를 부추긴 말도 안 되는 선거였음이 입증된 셈이다. 광역 체육회인 17개 시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무려 13곳이 현재의 지자체장과 정치색이 같은 후보가 당선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표 참조).

기획(Plan)-실행(Do)-분석(See)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정책의 제대로 된 프로세스다. 사상 첫 민선 지방 체육회장 선거는 실패한 정책

■ 전국 17개 시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 결과

지역	당선인	출신	정치 성향/비고
서울특별시	박원하	엘리트 체육	지자체장과 동일
부산광역시	장인화	엘리트 체육	동일
대구광역시	박영기	생활 체육	동일
인천광역시	강인덕	생활 체육	반대/당선 무효
광주광역시	김창준	생활 체육	동일
대전광역시	이승찬	엘리트 체육	동일
울산광역시	이진용	엘리트 체육	반대
세종특별자치시	정태붕	생활 체육	동일
경기도	이원성	생활 체육	반대/당선 무효
강원도	양희구	생활 체육	동일
충청북도	윤현우	엘리트 체육	동일
충청남도	김덕호	생활 체육	동일
전라북도	정강선	생활 체육	동일
전라남도	김재무	생활 체육	동일
경상북도	김하영	생활 체육	반대
경상남도	김오영	엘리트 체육	동일
제주도	부평국	생활 체육	동일





2016년 10월에 열린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흥 회장이 당선이 확정된 뒤 기뻐하고 있다.

으로 판가름 났다. 잘못된 정책은 정교한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되는 게 맞다. 얽히고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누가 풀어야 할까? 정치인도 관료도 그리고 대한체육회장도 아니다. 현장에 발을 붙이고 있는 체육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옳다.

선거를 둘러싼 미묘한 머리싸움

지자체장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엔, 다양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정치권에선 향후 벌어지는 굵직한 대형 선거인 4·15 총선,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 체육회장 선거를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심산으로 법 개정을 주도했다. 특히, 지역 색깔이 도드라진 정당이 중심이 돼 법 개정을 주도했고, 한국 체육을 이끄는 대한체육회는 겉으로는 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이런 행동은 할리우드 액션에 다름 아니었다. 겉으로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을 돌아다니며 우호적 관계 맺기를 통해 표밭을 다지는 이중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이다. 이는 곧 체육회 스스로가 1년 먼저 선거 체제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술수는 2018년 12월 27일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면 아래서 진행됐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 지방체육회는 뒤늦게 선거 반대를 외쳤다. 그렇지만 지방 체육을 대변해야 할 대한체육회는 그제서야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밀어붙였다. 대한체육회의 변심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지방 체육계는 체육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선거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며 퇴행의 역사에 몸을 맡겼다.

대한체육회의 지방 체육회장 선거 강행 이유는?

체육의 정치화를 부추긴 이번 선거에서, 대한체육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체육인 대부분이 선거를 통한 지방 체육회장 선출을 극구 반대했으나,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대한체육회가 이중 플레이를 펼치며 오히려 선거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당초 대한체육회가 선거를 강행한 데는 논리와 철학도 없었다. 선거 강행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요한 질문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정치권이 이 사안에 집착하고 있어, 체육회로선 저지하기 힘들다."

궁색한 변명에는 늘 그렇듯 의도를 감춰야 할 절박함이 도사리고 있다. 정보가 하나둘씩 쌓이면, 거짓과 변명에 꽁꽁 숨어 있던 진실의 길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선거가 모두 끝난 뒤, 똬리를 틀었던 궁금증이 하나둘씩 풀렸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선거를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

대한체육회가 지방 체육회장 선거를 강행한 이유는 결국 이 회장의 체육 권력 유지와 맞닿아 있다. 이번 선거를 오는 12월에 열리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게 축적된 정보가 알려주는 진실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 체육의 지형 변화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유력 당선자를 지원하면서 그들의 호감을 사는 데 전력을 다했다. 선거 지원도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가리지 않고 양다리를 걸쳐 놓는 전략을 택했다. 당선자에겐 "우리가 지원해서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 회장은 아시다시피 엘리트 체육의 대변자로 대한체육회 수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통합 체육회장 선거가 대의원 제도가 아닌 선거인단 제도로 바뀌면서, 새로운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거인단 제도하에선, 생활 체육 쪽 표를 얻지 못하면 당선되기 힘들다고 보고 이번 선거를 자신의 지지층을 넓히는 발판으로 활용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노림수는?

선거 이후 대한체육회의 인사 개입 또한 주목해 볼 대목이다. 이기흥 회장이 직접 나서 당선자에게 사무처장을 추천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왜 이 회장은 지방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며 집착할까. 바로 오는 12월에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맞닿아 있다.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몫으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직을 꿰찬 이 회장 처지에선 차기 회장 선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지면 필생의 꿈이었던 IOC 위원 자리를 허무하게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방 체육행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여기에 자기 사람을 심어 놓으면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이 회장의 노림수다.

이번 선거는 정치권의 정치 공학적 셈법과 체육 권력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의 검은 욕심이 한데 어우러져 탄생한 괴물이다. 이중 플레이를 펼친 대한체육회의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모든 게 오는 12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맞닿아 있다. 체육 권력을 지켜 내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자칫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선거 이후 체육계에 감지되는 의미 있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 KTA



자신의 체육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지방 체육회장 선거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TOPIC

심각한 청년 실업, 태권도계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요즘 사회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한 연구 기관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경제 이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9.6%가 '청년 실업 및 고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리나라 실업자 5명 중 1명은 20대 후반의 청년이다. 전체 실업자 중 25~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청년 체감 실업률이 평균 23%에 달할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태권도계도 마찬가지다. 국내 태권도 관련 학과는 총 74개 학과(태권도학과 11개, 타 종목·태권도 통합 학과 48개, 체육대학 내 태권도 전공 15개)로, 한 해에 졸업생 수만 약 2,000 명이 넘는다. 해마다 수많은 태권도 전공생이 취업을 비롯해 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이들이 갈 만한 곳이 적은 데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선 태권도장의 사범은 태권도 전공생이 주로 선택하는 직종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수 등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KTA 일자리창출협의회 활동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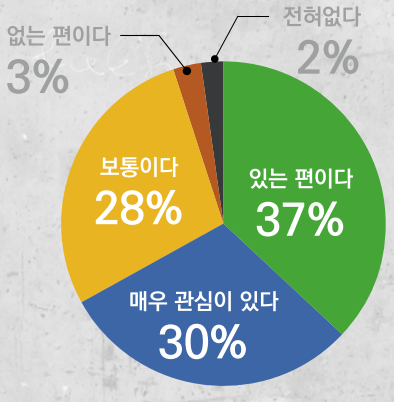
이 같은 위기의식을 느낀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창출협의회(의장 이화연)를 발족하고 태권도 전공생을 비롯한 청년 태권도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가 열린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계획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일자리창출협의회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태권도 직업사관학교 세 부문으로 나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화현 의장은 "우선 공공 부문에서 태권도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2021년에는 자치 경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당연히 경찰 인력이 확대될 텐데, 태권도 전공생이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일자리창출협의회는 태권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등을 두루 방문해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태권도학과 교수, 전공생, 지도자가 참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위한 설문 조사 분석

일자리창출협의회는 20~30대 청년 태권도인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지를 만들어 태권도학과 재학생과 일선 지도자 및 태권도협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했다. 2019년 12월 14부터 2020년 1월 11까지 태권도학과와 태권도 행사장을 방문해 설문지 300부를 배포하고 응답이 충실한 187부(지도자 99·임원 15·태권도 전공생 남자 55·태권도 전공생 여자 22명)를 분석했다. 설문지 작성→ 배포→ 수합→ 결과 분석은 일자리창출협의회 위원인 필자가 진행했다. 각 문항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Q. 평소 청년 태권도인 취업 및 사회 진출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임



원 중 33%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관심이 보통이거나 있는 편"이라고 응답해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반면 졸업 후 취업을 앞둔 남녀 태권도 전공생들은 일자리 창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Q. 앞으로 일자리창출협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문항은 각 지역 시도 태권도협회와 연계해 ▲ 일자리 창출 정보 공유 ▲ 태권도 전공생 공무원 채용 확대 방안 제시 ▲ 태권도 관련 학과 교과과정 중 현장 중심 실무교육 권장 ▲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태권도 직업사관학교(가칭) 설립 추진 ▲ 민간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 태권도 전공생 취업 방안 제시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 내용이다. 따라서 응답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응답 결과가 많이 달랐다. 남자 태권도 전공생 40%와 여자 태권도 전공생 36%는 태권도 전공생 공무원 채용 확대 방안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공무원을 안정적 직종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의 인식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도자들은 공무원 채용 확대 방안 제시(24%) 못지않게 태권도 관련 학과 교과과정 중 현장 중심 실무교육 권장(23%)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Q. 일자리창출협의회는 태권도 유관 기관 중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항은 응답자들이 한결같이 KTA · 국기원 · 태권도진흥재단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태권도진흥재단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지도자 25%, 남자 태권도 전공생 27%)도 적지 않았다.

Q. 태권도 전공생의 취업과 사회 진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문항은 ▲ KTA 산하 해외 인턴십 운영 담당 부서 신설 ▲ 태권도 전공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민간 기업 취업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정보 제공 ▲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성인 수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태권도장 지도자의 권익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남자 태권도 전공생 50%와 여자 태권도 전공생 40%는 압도적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지도자들은 ▲ 민간 기업 취업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정보 제공(23%)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20%) ▲ 성인 수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18%) 등 골고루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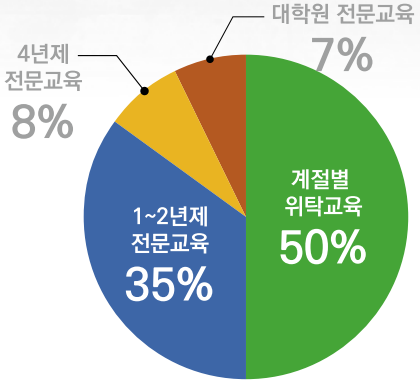
Q. 청년 태권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큰 차이 없이 ▲ 태권도 관련 자격증 가산점 제도 개선 ▲ 태권도 우수 선수 특채 및 공채 제도 개선 ▲ 태권도 일자리 창출 관련 행정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Q. 태권도 직업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들의 30%는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태권도 전공생들도 예상보다 설립할 필요성(남자 40%, 여자 55%)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Q. 태권도 직업사관학교가 설립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응답자들은 대체로 계절별 위탁교육과 1~2년제 전문교육을 선호했다. 4년제 전문교육과 대학원 전문교육은 기간과 교육비 등을 염려해서인지 응답이 많지 않았다. KTA

OUR WORLD

미국 태권도장의 경쟁력은 '태권도 교육 그 자체'

샌디에이고=**글·사진** 박진주(경희대학교)



필자는 지난해 5월 대한민국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제5회 태권도 교육·산업 박람회에 다녀왔다. 많은 강사가 태권도 교육의 미래와 바뀌어야 하는 교육방법에 대해 강의해 줬다. 당시 미국 뉴욕주에서 40년간 성공적으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순기 관장과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다. 최근에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해외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샌디에이고에 가서 미국 MTA 태권도장을 방문, 이건흥 관장과 익스플로어(xplore) 시범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석진유 관장을 만났다. 박람회에서 강사들이 언급한 방법들과 정순기 관장이 말한 내용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번 방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실제로 태권도가 어떻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국 정서와 문화에 태권도 교육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 도장의 차이는 수련생의 연령대

미국 태권도장과 한국 태권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련생의 연령대다. 미국에서는 3~4세 어린이부터 50대 이상의 노년층까지, 또는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가족단위 수련생이 많았다. 도장 분위기는 활기차지만 엄격해서, 오롯이 태권도 수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이 조성되었다. 2시간 동안 수업을 참관하니. '태권도 교육에서 강조하는 예의, 인내, 자존감, 배려 등의 가치관이 지도 기술에 참 잘 녹아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박람회 인터뷰에서, 정순기 관장은 "도장에서는 미국 학교와 부모에게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교 모두 변화된 자녀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태권도 교육을 보고 나니, 변화된 자녀의 모습이란 '태권도 교육으로 인한 예의와 인내, 자존감과 배려'를 말했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미국 도장에서도 우리나라 도장에서 많이 시행하는 '효도카드'도 비슷하게 실행하고 있다. 도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다소 개인적 문화권에서 자란 수련생이 동양의 예의, 인내, 배려, 효도라는 좋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입관할 때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고, 도움을 주는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매 수업마다 가족의 수련을 지켜봐 주는 가족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다. 수업 군데군데에 수련생의 인격과 인성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또 태권도 교육으로 말미암아 바뀐 수련생의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주는 시간



미국 도장은 예의·인내·배려·효도라는 동양문화를 배우도록 지도한다.

이 마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자녀의 운동으로 태권도장에 방문했던 부모가 태권도 교육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바뀐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함께 수련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였다. 이 진정성이 바로 미국에서 태권도장이 갖는 경쟁력이었다. 다른 마케팅 방법도 물론 많았으나,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지도철학과 교육관을 잘 정립하는 것이 미국 태권도장의 제1 경영비법이었다.

4~6시간 진행되는 엄격한 심사

수련 횟수는 주 2, 3회로 조정되어 있었다. 매일 태권도장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부담감이 클뿐더러, 운동에 질릴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주 2~3회 수련은 수련생이 꾸준히 오랫동안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다. 또 미국 태권도장은 오랫동안 장기 수련생을 계약하는 것이 특징인데, 수련에 만족하는 수련생들은 짧으면 3년 길게는 10년까지 장기계약을 하곤 한다. 오로지 태권도 교육 하나로 도장 경영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태권도 띠별 수련법처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매뉴얼과 까다로운 심사과정도 인상적이었다. 띠별 수련으로는 수련생들에게 실력에 맞는 각자의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시 띠에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도자에게는 이 수련생의 수련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심사가 4~6시간 동안 진행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수련생도 적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심사를 끝낸 후에는, 지도자와 수련생의 가족 모두 기립박수를 치며 수련생의 성취를 축하한다. 힘들게 따낸 단증은 수련생과 그 가족에게 높은 성취의 가치로 인정받는다. 수련생은 어려운 심사를 통해 자신이 해 온 수련 기간과 지도자에게 받은 태권도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태권도가 강인함, 당당함, 겸손, 예의 등의 상징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필자는 이를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수련생들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종주국 한국에서 태권도가 미국보다 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이제는 태권도 수련이 갖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도장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시범과 품새 입시 준비생들의 보금자리, ‘하이어 태권도 퍼포먼스’

글 박상현(배재대학교)
사진 하이어 태권도 퍼포먼스 제공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세계적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엔, 겨루기뿐 아니라 품새·시범·공연·태권 체조 등 여러 갈래가 있다. 그중 시범은 ‘태권도 공연’이라는 예술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도복을 입고 다양한 동작으로 감동을 주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도장도 많이 생겨났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하이어 태권도 퍼포먼스는 그 하나다. 태권도 공연 및 품새 입시 전문 특화 도장으로 태권도학과 진학을 겨냥한 입시생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 도장 이름이 독특하다. “하이어는 문자 그대로 ‘더 높은’이라는 뜻이다. 태권도장의 의미와 공연 동작을 의미하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추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하이어 태권도 퍼포먼스’라 이름붙였다.” 유재혁 대표(관장)의 설명이다. 유 관장은 태권도 공연을 특화한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태권도 공연예술학과 교수기도 하다.

시범과 품새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인 품새는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름답고 전통적인 무도기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 이에 비해 무도 시범의 양태를 취한 시범 공연은 현대적 문화에 맞추어 더욱 화려한 예술성이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시범과 품새를 수련하는 데 있어서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운동하면서 직접 몸으로 배우고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태권도 학과를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이어 태권도 퍼포먼스만의 강점이 있다면?

“보통 태권도장은 겨루기나 품새 등 한 가지만 특성화한 경우가 많은데, 하이어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진으로부터 품새와 시범 종목을 함께 수업받을 수 있다. 그만큼 입시 도전 폭이 넓다.”

입시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과 보람찬 순간은 언제인지?

“학생들이 대학만을 생각하고 피땀 흘려 수련하다가도 여러 유혹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도록 꾸준히 도와주야 하는 점이 어렵다고 하겠다. 보람찬 순간은 가르친 부분에 대해 입시생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하루하루 달라진다고 스스로 깨달아 갈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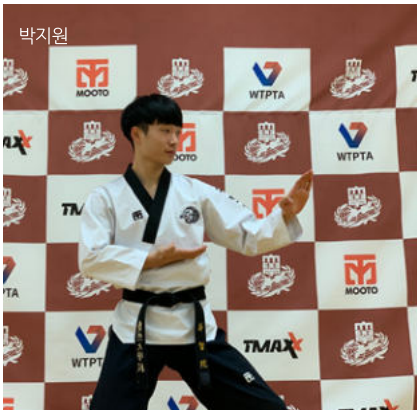
앞으로 계획은?

“하이어 태권도 퍼포먼스를 이 지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수련생에게 집중하여 실력을 끌어올려 주는 것이다. 아울러 ㈜와이킥엔터테인먼트 태권무 ‘혼’ 협력 기관으로서 태권도 공연 문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려 한다.”

하이어 태권도 퍼포먼스는 부산·경남 지역에 유일한, 태권도 공인 품새를 기반으로 한 태권도 공연 전문 도장이다. 태권도 시범엔, 위험한 동작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태권도장은 기술 연습의 부담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익스트림 태권도와 자유 품새에 적합한 탄성 바닥 시설을 완비했다. 즉, 태권도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공인 매트를 바닥에 깔아 놓아, 점프 기술에 최적화한 높이에서 더욱 안전하게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현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진과 함께 운동하며 실력 향상은 물론 재미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하이어 태권도 퍼포먼스다.

영광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들… 처음으로 이룬 품새 국가대표의 꿈

글 김수진(경희대학교)


박지원


이효민



김영재

때를 기다리는 것은 비단 어부만이 아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단한 각오로 임하는 선수들 또한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 하지만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대회 우승보다 국가대표 선발이 더 힘들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번엔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거머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2020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현식(한국체대), 김영재, 박지원, 이효민(이상 경희대)이다.

지난 1월에 열린 2020 국가대표 품새 국가대표 선발전선, 기존 대표 출신 선수들이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대거 발탁되었다. 상향 평준화한 품새 선수들 사이에서, 아시안 게임이나 청소년 국제대회처럼 큰 무대를 경험해 본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첫 국가대표에 도전했던 선수들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품새 선수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던 부상으로 말미암아, 원활한 대회 준비가 어려웠다. 골반 탈구, 고관절 연골파열 등 치명적 부상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활운동, 품새 연습, 영상코칭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태극마크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자존감은 대회만 나서면 위축되곤 했다. 이전에 치뤘던 수많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마셨던 쓴잔이 그 원인이었다. 어떤 선수는 실력만 놓고 보면 당장 국가대표로 뛰어도 손색없지만, 선발전만 되면 강한 상대를 일찍 만나 불운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진짜 실력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집중하는 한편 강력한 정신력을 키우는 데도 안간힘을 쓴다. 이럴 때는 가족은 물론 동료들과 스승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곤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국가대표에 들겠어?' 하는 끝도 없는 자신감은 든든한 밑천이 된다. 그리고 실전이 펼쳐지는 경기장 매트 앞에서는 무아지경(無我之境)이 돼 혼자 되뇐다. "나의 것만 잘하고 나오자."

마침내 긴긴 자신만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꿈을 이뤘다. 혹독하고 외로웠던 긴 싸움. 이들은 바로 2020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첫 출전하는 국가대표다.

"대회장 시상식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가를 듣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라는 이효민의 시선은 벌써 저 멀리 레바논에 가 있다.

한편, 레바논에서 개최되는 2020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되어, 오는 5월 12일 품새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30세 이하부 개인전과 페어전에 이현식·신비한(이상 한국체대), 남자 단체전에 박지원·김영재·김선호(용인대), 여자 단체전에 심소미(용인대)·이효민·김보선(한국체대) 등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제자들에게 늘 미안한 이병조 대전광역시 태권도 시범단 감독

글 조선영(방송통신대학교)

"충청권을 넘어 세계 최고의 태권도 시범공연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병조 대전광역시 태권도 시범단 감독(39)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20대 사범 시절부터 그의 꿈은 한결같았다. 태권도 공연자의 꿈을 꾸는 친구들을 키우고 프로듀싱하고 지도하는 것. 이미 그의 손을 거쳐 내로라하는 태권도 단체의 시범단원이 된 제자들만 20명이 넘는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과 태극마크도 선명한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단원을 비롯해 국내 여러 태권도 대학의 시범단에 그의 제자들이 있다. 그는 태권도 공연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예담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겸하고 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곳에는 아픈 상처가 있다. 자신이 애써 키운 제자들이 죄다 대전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전의 태권도 인프라가 좁기 때문에, 대전에서의 태권도 시범활동 범위가 제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아직 대전에는 태권도학과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청권에 있는 좋은 인재들과 함께 '멋진 태권도 공연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꿈이 있다. 그가 지난해 재창단된 대전광역시 시범단 감독을 맡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대전에는 10여 년 전 상설 태권도시범단이 있었다. 2008년 오노균 대전태권도협회장 시절 시범단이 만들어져 2009년에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등에서 매주 토요일에 무려 8개월간 상설공연을 펼친 바 있다. 당시 활동했던 어린이 시범단원들이 무럭무럭 자라 지난해 재창단된 시범단의 모태가 됐다.

그가 시범단 감독을 맡으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단원들의 부상관리다. 태권도 시범 종목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훈련을 할 때면, 안전장치가 있어도 부상이 잦은 편이다. 단원이 부상을 입으면 공연에도 큰 차질이 생기지만, 무엇보다 단원의 생계에 타격을 준다. 대부분 단원이 일선 도장 사범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원이 훈련 중 부상했을 경우 생계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이 이 감독의 고민이고 아픔이다.

단원의 개인 실력 상향을 위한 훈련은 코치들이 전담하고 있다. 이 감독은 무대를 임하는 자세와 공연물의 해석을 도와주고 있다. 특히 그는 단원들의 팀워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아무리 피지컬 좋은 군인들이 있다고 한들, 팀워크가 엉망이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무대에서 돌발 상황과 공연 레파토리의 흐름을 체크·분석하여 단원들과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시범 공연 연습 기간에는 단원들과 늘 함께한다.

지난해는 재창단 첫해다 보니 기본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한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올해는 테마를 삽입하는 시범이나 스토리 삽입 시범도 계획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로 하는 시범공연이다. 스토리 공연이나 테마 공연은 연습량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올해이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시범단 일정을 강타했다. 단원 오디션부터 미뤄진 상태다. 지난해보다 멋진 시범공연을 계획했지만 지금은 감염증이 빨리 누그러지길 기다리고 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잘 따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잘해서 전국에서 인정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범단이 되자." 이 감독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다.



지난해 열린 대전광역시 태권도 대표 시범단 선발대회.

KUSF 우수 지도자상 받은 전민우 경희대 품새 감독

글·사진 신유진(경희대학교)



경희대 품새팀과 포즈를 취한 전민우 감독(뒷줄 한가운데).

전민우 경희대학교 품새팀 감독이 2020년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KUSF) 어워즈에서 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2001년 경희대학교에 처음 품새 동아리를 만든 전 감독은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품새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한국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하며 품새 부분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 전 감독은 태권도 품새 종목을 포함해 경희대학교 선수부에서 최초로 KUSF 어워즈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KUSF는 대학 스포츠의 활성화 및 선진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대학 스포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 및 추진하고 있으며 약 105개의 회원 대학이 있다. KUSF는 대학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학생 선수와 지도자 및 대학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매년 KUSF 어워즈를 진행하고 있다.

전 감독이 선정된 지도자 부문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한 지도자를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전 감독은 KUSF에 지도자 경기 실적 증명서와 지도 학생 선수 성적 증명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경희대학교 품새팀은 지난 1월 2020년도 품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7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경기 실적과 학업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훈련 시간을 수업이 마무리 되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종목은 훈련 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수업시간과 겹쳐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품새팀은 이번 2020년도부터는 품새 동아리 '단군'이 아닌 선수부로 전향되면서 장학 선수, 출전 경비 등 선수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전 감독은 "이번 수상의 영예는 처음 품새 동아리가 시작된 2001년부터 2019년도까지 많은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품새 종목에서 좋은 사례들을 늘려나가 스포츠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은 '라라 태권도장'처럼

글 김정은(경희대학교)

요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해진 가운데, 전국 많은 태권도장이 휴관을 잇따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관장도 많다. 다른 태권도장과는 차별화되게 코로가19에 대응하고 있는 '라라 태권도장'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라정현 라라태권도장 관장은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부터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기존에는 주 1회 소독을 했던 것을 주 3회로 늘였고, 수련장 출입 전 손 세척과 소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수련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했다. 이후 사태의 심각성이 점점 커져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의 지침으로 지난 24일부터 3월 1일까지 휴관 결정이 내려지면서, 신학기 홍보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마스크를 라라태권도 수련생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우선 지급했다. 또한 친환경 피톤치드를 마련하여 관장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집안 방문소독을 하며 모두 함께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련생과 가족을 위한 홈 트레이닝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우울한 시기 우울하게 보내지 않기'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에 대한 VLOG형식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했다. 그래서 점점 커져 가는 불안감과 부정적 생각으로 말미암은 공포감 대신 희망과 긍정적 마인드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장운영에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라라 태권도장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라 관장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라라 태권도 가족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이겨 내고자 하는 긍정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 기존 운영상의 미비한 상황에 대해 재정비에 만전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따른 국가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장운영 정상화에 힘쓰는 것을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선 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동시에 KTA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를 통하여 관장님들께서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처럼 많은 관장은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조금이나마 우울한 날을 밝게 보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 개인이 아닌 집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어쩌면 지금 두려움을 떨게 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 덕목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이태성 태비체육관 관장의 태권도 인생

글 소지환(용인대학교)

여덟 살. 어린 그가 도장에 간 것은 장난감을 받고 싶어서였다. 어른들이 어린 관원들을 끌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것을 어른이 돼서야 알았다. 즐겁게 놀아주는 분위기에 이끌리다보니 어느덧 태권도에 흥미가 생겼다. 어린이에겐 억지로 강제하는 교육은 역효과를 낸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 태권도 수련은 중·고교를 다니면서도 계속했다. 도장에서는 때로는 어린 후배를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차츰 가르치는 직업이 좋아졌다. 자연스레 장래 희망도 태권도 관장을 꿈꾸게 되었다.

다양한 도전…학과 회장에 당선

통진고 3년 시절 겨루기를 전문적으로 배우며 입시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희망하던 용인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교를 다니는 1,2학년 동안 TPC, 인턴 사범 등 해외에 나가 태권도를 가르치는 각종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입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의 수행비서로 군 생활을 하였다. 전역 후 성적 장학금을 다수 수상하고, 필요한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다. 그리고 운동일지 대회, 학기말 평가전 등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자연스레 태권도학과 회장이라는 목표가 생겼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학생회장에 당선이 되었고, '학과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후배들에게 보다 좋은 길을 제시해 주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 학생회장의 임기인 1년 동안 후배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 모두가 태권도를 수련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행운아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가 후배들에게 주는 조언이다. "진로는 본인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목표가 있다면 그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 각종 태권도 관련 단체, 경찰, 소방, 군인 등 태권도를 수련했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다. 게다가 태권도학과의 장점은 해외 태권도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쉽게 주어진다. 요즘 같은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행운아에 속한다. 하지만 기회를 잡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해외 진출도 서슴지 않는 인식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

"도장을 경영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가장 숫자가 많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데는 사범들의 남다른 교육철학이 필요하다. 우선 아이들이 태권도를 좋아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화내거나 혼내는 행동은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오는 아이에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범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다. 아이들이 재밌고 행복하게 태권도를 인식하고 배울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태권도는 정말 좋은 운동이고, 태권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다. 자신의 목표에 멈추지 말고 더욱 무언가 도전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동료도 친구도 경쟁자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모든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KTA



태비체육관
이태성 관장

누가 장준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으랴
'올림픽의 해' 활짝 열어 … 2020 대한체육회 체육 대상 수상

글 서완석·최규섭 **사진** KTA DB. WT, TPF 제공



지난해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WT 갈라 어워즈서, 장준은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혔다.

장준(20·한국체육대학교) 천하다. 태권도를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으뜸의 선수에 올랐다. 잇달아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상에, 그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웠다. 덩달아 한국 태권도계도 영광을 누렸다. 해를 넘어 장준 시대가 이어졌다. 지난해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한국 태권도 신세대 기수의 상승세는 '올림픽의 해'에도 전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뻗쳐오르는 기세를 봄내며 2020년을 활찐 열어젖혔다.

장준은 지난 2월 11일 대한체육회 체육상의 백미인 경기 부문 체육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이 시대 '스포츠 아이콘'으로서 진가를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지난해 세계 태권도 최고 스타로 우뚝 섰던 바람을 휘몰아 한국 스포츠 1인자로 평가받았다. 한 해의 빼어난 활약상을 국내외로 높게 평가받으며 자신의 시대가 열렸음을 두루 알린 셈이다.

장준은 2019년 돋보이는 전과를 올리며 세계태권도연맹(WT) '올해의 남자 선수'와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 MVP(최우수 선수)를 석권한 바 있다. 그럴 만했다. 장준이 2019년에 올린 결실은 실로 눈부셨다. 5월 세계 선수권을 비롯해 월드 그랑프리 1차 로마(6월)-2차 지바(千葉·9월)-3차 소피아(10월) 시리즈를 잇달아 휩쓸

었다. 메이저 대회에서 무패 가도를 달리며 4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으니, 지존으로 자리매김은 당연했다.

곧, 장준은 '종가(宗家)'인 한국 태권도의 위엄을 곧추세우고 나아가 한국과 한국 스포츠의 위세를 널리 떨쳤다. 국위 선양에 앞장섰던 그 발자취에 걸맞은 영예는 이번에 대한체육회 체육 대상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비롯해 지도·심판 등 8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는 대한체육회 체육상 가운데 대상(大賞)은 경기 부문뿐이다. 2020 제66회 수상자는 8개 부문에 걸쳐 134명 10개 팀에 이르는데, 대상은 장준 한 명이다. 그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 할 수 있다.

장준은 한국 태권도계에도 영광을 안겼다. 체육 대상 사상 최초로 태권도 선수 수상의 새 지평을 열었다(**표 참조**). 1955년 '우수 선수 및 단체 표창'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이 시상 제도는 그동안 세 차례 변혁[대한체육회 체육상(1986~1987년)→ 대한체육회 표창(1988~2000년)]을 거쳐 2001년에 현재의 이름을 갖춰 시행돼 왔다. 그리고 2006년(제52회)부터 체육 대상을 신설해 시상해 왔는데, 태권도는 대상과는 인연이 없었다. 다섯 차례씩이나 수상자를 배출한 빙상에 비하면 초라하기만 했는데, 이번 수상은 그에 반비례해 더욱 진한 감격을 느끼게 한다.

참고로, 올해까지 열다섯 번 수상자(팀)가 나온 체육 대상에서, 빙상은 2012년(제58회) 노진규를 시작으로, 2014년(제60회) 이상화, 2015년(제61회) 박승희, 2018년(제64회) 김민석, 2019년(제65회) 임효준까지 다섯 번씩이나 최고 영예를 차지했다. ⅓, 33.3%의 높은 점유율로, 한국 스포츠를 알리는 데 최고 공신이었음을 인정받았다.

이 기간 경기 부문에서, 태권도는 유일하게 오혜리가 2017년(제63회) 최우수상을 받는 데 그쳤다. 지도 부문에선, 3년(2017~2019) 연속 최우수상 수상자(박종만→ 전문희→ 이석훈)를 배출한 바 있다.

선정 소식을 전해 들은 약관의 장준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성원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겨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태권도 종목의 우수성을 입증한 듯싶어 한결 뿌듯하다. 우리나라 태권도계 모든 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에서 금빛 결실을 올리기 위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서 담금질에 여념이 없는 장준은 아울러 야망에 가득 찬 각오를 덧붙였다. "수상을 한층 훈련에 정진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 자만하지 않고 늘 도전하는 마음가짐으로 땀을 아끼지 않겠다. 도쿄 올림픽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 대한체육회 체육상 역대 수상자(경기 & 지도 부문)

년도	횟수	경기 부문				지도 부문(최우수상)	
		체육 대상		최우수상		종목	이름
		종목	이름	종목	이름		
2006	제52회	복싱	이옥성	역도 수영	장미란 박태환	역도	염동철
2007	제53회	수영	박태환	사이클 빙상	장선재 김연아	펜싱	김영호
2008	제54회	역도	장미란	체조 볼링	김대은 최진아	역도	김도희
2009	제55회	야구	베이징(北京) 국가대표팀	수영 역도	박태환 장미란	역도	오승우
2010	제56회	양궁	주현정	역도 육상	안용권 김하나	사격	변경수
2011	제57회	사격	이대명	빙상 볼링	모태범 황선옥	축구	최덕주
2012	제58회	빙상	노진규	체조 스키	양학선 김선주	양궁	오선택
2013	제59회	사격	진종오	체조 양궁	양학선 기보배	유도	장성호
2014	제60회	빙상	이상화	레슬링 체조	이상화 손연재	체조	양태영
2015	제61회	빙상	박승희	볼링 체조	박종우 손연재	빙상	최광복
2016	제62회	체조	손연재	육상 빙상	김국영 최민정	육상	심재용
2017	제63회	양궁	구본찬	사격 태권도	진종오 오혜리	태권도	박종만
2018	제64회	빙상	김민석	역도 수영	원정식 안세현	태권도	전문희
2019	제65회	빙상	임효준	스노보드 사이클	이상호 나아름	태권도	이석훈
2020	제66회	태권도	장준	럭비 배드민턴	남자 국가대표팀 안세영	펜싱	조종형

※ 경기 부문 체육 대상이 신설된 2006년(제52회) 이후 수상자임.

KTA-USAT, 상호 교류 MOU 체결
최창신 회장, 전 세계 연계망 구축 위한 거침없는 발걸음



KTA-USAT 간 MOU 체결식이 끝난 뒤, 양측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창신 KTA 회장(왼쪽 두 번째)과 최재춘 사무총장(맨 왼쪽)이 KTA를, 제이 워익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메이 스펜스 부장(맨 오른쪽)이 USAT를 각각 대표해 참석했다.

2020년에도 '전방위 외교'는 계속된다. 이번엔 미국이다.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북아메리카에도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 세계 태권도 강국과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데, 한층 박차를 가하는 행보다.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의 거침없는 보조는 순조롭기만 하다.

최 회장이 눈길을 돌렸다. 영국 → 중국 → 우즈베키스탄 → 이탈리아→ 프랑스 → 불가리아에 이어 미국을 향했다. 지구촌을 종횡하는 발길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태권도가 교류의 손을 맞잡았다. KTA가 외국 협회와 손잡은 일곱 번째 자매결연(**표 참조**)이다. 지난 2월 21일 최 회장은 제이 워익 미국태권도연맹(USAT) 사무총장과 만나 두 나라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KTA 회의실에서 열린 양국 협회 MOU 체결식엔, KTA 측에서 최 회장과 최재춘 사무총장이, USAT 측에서 워익 사무총장과 메이 스펜스 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통역은 김규리 KTA 경기부 주임이 맡았다.

KTA-USAT 간 태권도 협약 체결식서, 최 회장과 워익 사무총장은 태권도 전반에 걸쳐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KTA와 USAT는 먼저 이번 MOU의 목적을 "KTA와 USAT가 국가대표팀, 기술 협정, 해외 전지훈련을 포함하는 태권도와 관련된 교류를 상호 간에 제공함에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 국가대표팀 훈련(모든 연령대 겨루기, 품새, 시범단) 상호 교류 ▲ 국제 회의 및 세미나 시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그룹의 지도자와 트레이너 상호 교류를 추진키로 뜻을 같이했다. 또 ▲ 태권도와 관련된 다른 내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 회장이 세계 주요 태권도 강대국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 배경엔, 그의 '태권도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들과 돈독한 유대 의식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협조 체계를 쌓아 태권도의 본바탕을 되찾겠다는 이념과 소신에 따른 적극적 움직임이다.

2018년 7월 18일 제주에서 영국(BT·회장 줄리아 뉴턴)과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한 이래 1년 7개월 만에 7개국 태권도협회와 MOU를 맺을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19개월 동안에 7개국, 곧 평균 2.7개월마다 세계 주요 태권도국과 교류 협약을 맺을 정도로, 최 회장은 빠른 보속을 보여 왔다.

영국에 이어 ▲ 그해 11월 1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CTA·회장 관젠민·管健民)과 두 번째로 ▲ 지난해 1월 4일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UTA·회장 아흐마드존 라히모프)과 세 번째로 ▲ 6월 8일 로마에서 이탈리아(FIT·회장 안젤로 치토)와 네 번째로 ▲ 7월 4일 춘천에서 프랑스(FFT·회장 더니 오드줘)와 다섯 번째로 ▲ 10월 19일 소피아에서 불가리아(BTA·회장 슬라비 비네프)와 여섯 번째로 잇달아 자매결연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KTA-각국 협회 MOU 체결 현황

차례	때	곳	협정 협회
1	2018. 7. 18.	제주	영국태권도협회(BT)
2	2018. 11. 1.	베이징(北京)	중국태권도협회(CTA)
3	2019. 1. 4.	서울	우즈베키스탄태권도협회(UTA)
4	2019. 6. 8.	로마	이탈리아태권도협회(FIT)
5	2019. 7. 4.	춘천	프랑스태권도협회(FFT)
6	2019. 10. 19.	소피아	불가리아태권도연맹(BTA)
7	2020. 2. 21	서울	미국태권도협회(USAT)

『태권도』, 청춘의 열정 불사를 새 깃 돋았다
제3기 대학생 명예 기자, 발대식 갖고 첫걸음 내디뎌



『태권도』 발행인인 최창신 KTA 회장이 제3기 대학생 명예 기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함께했다. 그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대현·조선영·박상현·신유진·소지환·이슬기·이소라 대학생 명예기자.

그대여! 『태권도』의 장(場)에서, 솟구치는 청춘의 정열을 마음껏 불살라라.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한마당인 『태권도』에서, 젊고 생생한 시각을 한껏 봄내려무나.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태권도』가 또다시 새로운 날갯짓으로 도약의 힘을 얻었다. 한결 풍성해진 날개깃을 바탕으로, 젊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부풀린다.

2018년 봄 7년 4개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켠 『태권도』가 도입해 운영한 대학생 명예 기자 제도는 태권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호평받아 왔다. 『태권도』 사상 최초로 창설된 제도답게 생기발랄한 젊은이의 눈에 비친 생동감 넘치는 대학가 태권도계의 풍속도는 신선한 자극으로 와 닿았다. 『태권도』는 그 '짜릿한 맛'을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 2020년에도 대학생 명예 기자를 찾고 구했다.

2년 동안 공들여 부은 마중물에 힘입어 깃이 돋았다. 앞으로 1년 동안 『태권도』의 힘찬 날갯짓에 일익을 맡을 새 깃, 곧 제3기 대학생 명예 기자다. 3:1의 경쟁률을 뚫고 날개깃을 내민 새 얼굴은 모두 7명이다. 박상현(배재대학교), 소지환(용인대학교), 신유진(경희대학교), 이소라(상지대학교), 이슬기(백석대학교), 장대현(백석대학교), 조선영(방송통신대학교·이상 가나다순)이 『태권도』의 새 가족이 됐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기존 4명(공찬욱·김수진·김정은·박진주)과 한 호흡으로 어우러져 『태권도』의 '명품' 구현에 앞장선다.

새롭게 명예 기자로 발탁된 7명은 지난 2월 20일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KTA가 마련한 제3기 대학생 명예 기자 위촉장 수여식 및 발대식에서, 이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바탕으로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 발굴로 지면을 풍족하게 꾸미겠다는 열망을 내뿜으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자로서 지녀

야 할 자세와 소양을 교육받고 명예 기자로서 기틀을 다졌다.

이날 오후 11시부터 KTA 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창신 회장은 “청춘의 끓는 피를 밑거름 삼아 한국 태권도 발전의 작은 밀알이 되라.”라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우리말 사랑을 역설하며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우리말을 지키고 사랑하는 단체를 만들어 여생을 바치고 싶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우리말 지킴이와 사랑이가 많이 나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십 수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던 때 깨달았던 소중한 사실은 매끄러운 문장을 쓰는 데 우리말처럼 좋은 ‘도구’가 없다는 거였다. 우리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기자가 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대학생 명예 기자는 이를 위한 좋은 훈련 기회로서 또한 자기 계발의 호기다. 이를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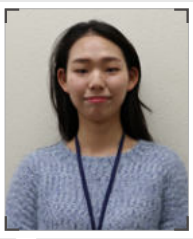
제3기 대학생 명예 기자 활동 각오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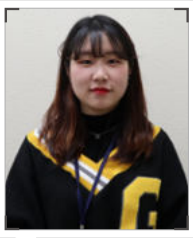
박상현(배재대학교)

태권도가 세상을 연결하는 영감이 될 수 있도록, 태권도를 통해 감동을 주는 기사를 쓰고 싶다. 이 맥락에서, 올 한 해 태권도 융·복합 산업 콘텐츠를 태권도인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태권도의 인지도에 비해 가치는 낮다고 생각한다. 그 숨은 이유를 찾고자 한다. 강하면서 부드럽고 세계를 품고 있는 태권도의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담아 『태권도』 애독자에게 선물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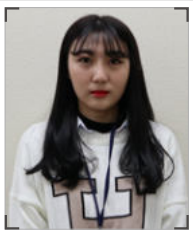
신유진(경희대학교)

태권도복을 입으며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 왔다. 『태권도』 대학생 명예 기자 활동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도약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태권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하려 한다. 태권도의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모든 태권도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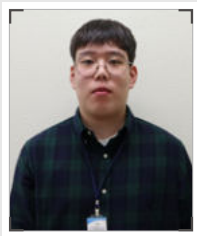
이슬기(백석대학교)

태권도 본연의 모습을 비롯해 다채로운 모양이 엿보이는 기사를 쓰고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 물론 그 대상은 우리나라 태권도 수련생, 지도자, 학부모, 나아가 전 세계 모든 태권도인이다. 그동안 많은 분이 겨루기, 품새, 시범 등 태권도의 완성된 모습만 보았다면, 그들의 일상을 영상을 통해 공유하려 한다. 태권도계의 부름에 언제든 달려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활동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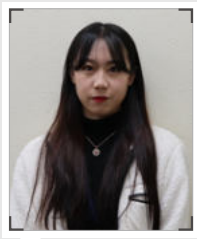
조선영(방송통신대학교)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되새기는 좌우명이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과연 내가 『태권도』 대학생 명예 기자에 어울릴까?’ 하는 의문이 순간적으로 일었다. 이 물음을 다시 갖지 않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뛰려 한다. 다니는 대학 특성상 기삿거리 소재는 훨씬 다양하다고 본다. 이 강점을 살려 모든 태권도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기사를 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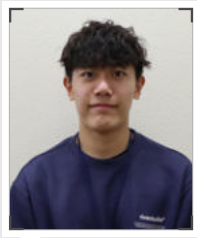
소지환(용인대학교)

지난해 『태권도』를 통해 태권도 전공생으로서도 미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며 부족한 부분이 충족되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 그 느낌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태권도와 관련된 충실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취재 활동을 하겠다.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젊은이의 눈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땀을 아끼지 않겠다.



이소라(상지대학교)

1년 뒤 보람차고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는 흡족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 누구나 알고 싶고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 기사와 영상 등으로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태권도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을 비롯해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신선한 영양분을 드리려 한다.



장대현(백석대학교)

『태권도』 대학생 명예 기자에 걸맞게 언제 어디서나 늘 최선을 다하겠다.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 자세로, 참신하고 흥미로운 기삿거리를 찾아 뛰려 한다. 아직 태권도 관련 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학교 시범단 활동으로 말미암아 시간에 쫓길 수도 있겠으나, 여건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겠다.



KTA, 이제 올림픽 향해 온 힘 다해 달려가야
순풍에 돛 달고 정기 대의원총회 마쳐



2020 경자년(庚子年) 막은 별 탈 없이 올라갔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이자 근간인 씨 뿌리기를 무난하게 마쳤으니 풍성한 가을걷이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올림픽의 해'를 맞아 이제 2020 도쿄(東京) 올림픽을 향해 전력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었다.

역시 시간은 멈춤 없이 흐르나 보다.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복지부동(伏地不動)할 뿐이다."라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1월을 무사히 마쳤다. "세우 찧는 절구에도 손 들어갈 때 있다."라는 우리네 속담이 새삼스레 피부에 와 닿는다. 흔들림 없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왔다가 가는 시간, 곧 세월이다. 붙잡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제 갈 길만을 재촉할 뿐이다.

어쩌면 숙명일지 모른다. 경기 단체는 해마다 이맘때면 으레 맞닥뜨려야 하는 연례행사인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긴장한다. 요맘때가 되면 마음을 졸이고 물 흐르듯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흐르기만을 바란다. 물론 KTA도 마찬가지다. 그랬기에 별다른 돌출 발언 없이 순탄하게 끝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마련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에서 열린 2020 정기 대의원총회(**사진**)는 거침없는 수순을 밟아 갔다. 감사 보고, 2020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보고, 정관 개정 심의 등이 제동 없이 진행되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끝났다. 예년과 달리 감사 보고에서 몇 가지 토가 달렸을 뿐, KTA 사무처가 올린 원안이 그대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 2020년도 수지 예산은 91억 7,400만여 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지난해 결산(95억 1,600만여 원)보다 3억 4,200만여 원이 줄어든 액수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포상금과 강화훈련비 등 지출 사항이 많은데, 오히려 적어진 예산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대목이다.

▲ 올 주요 사업 계획은 도쿄 올림픽(7월 24~8월 9일·태권도 7월 25~28일)을 비롯해 헤르닝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5월 21~24일), 베이루트 아시아 선수권 대회(겨루기/품새·미정), 소피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10월 14~18일), 칸쿤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미정) 등이다.

▲ 임원 선임 및 사임 보고도 순식간에 이뤄졌다. 지난해 제1차(2월 13일)·제2차(5월 31일) 이사회 결정 사항에 따라 이사 보선 권한을 위임받은 최창신 회장이 선임한 네 명이 원안 그대로 추인됐다. 보선 임원은 김세혁 부회장(전 KTA 전무 이사), 최재춘(전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박경환(전 전라남도체육회 이사)·염관우(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부회장) 이사 등이었다. 사임 임원은 최권열 부회장(4월 15일), 김무천(4월 15일)·양희석(5월 16일)·박상수(10월 29일) 이사 등이었다.

▲ 정관 개정에서도 거침없는 수순의 양상이 이어졌다.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규정 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상임 이사회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대의원총회 의결로 선임 △ 위원회 제척 및 기피 사유 구체화 △ 정관 개정 절차 변경(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대한체육회 검토→ 대의원총회 의결→ 문화관광체육부 승인) 등이다.

한편 정기 대의원총회에 앞서 지난 1월 14일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2019년도 결산 이사회가 열렸다. 역시 잡음 없이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선, ▲ 일자리창출협의회 2019 활동 결과 및 2020 계획 보고가 있었다. 이어 심의 사항으로, ▲ 2019년도 사업 결과 및 수지 결산 ▲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승인 ▲ 각종 규정 개정 ▲ 보선 이사 선임 ▲ 전국 규모 대회 승인 및 운영 관리 ▲ 심사 수수료 인상 요청 ▲ 20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채택 등을 다룬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KTA, 새 틀 짜고 도약의 길로 나섰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진용 물갈이 단행

새 술은 새 부대에.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2020년을 맞아 새롭게 틀을 짰다. 지난 2월 초, 올 한 해 KTA를 지탱할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로 구성했다. 태권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KTA가 운영·추진하는 각종 사업 – 경기, 도장, 심사, 공인, 생활체육, 실버 등–을 맡을 제반 위원회 위원장진(陣)에 대해 단행한 물갈이였다.

KTA가 경기 단체인 만큼 가장 관심이 쏠렸던 대회위원회에 상대적으로 거센 바람이 불었다. 자천타천으로 여러 사람이 후보로 오르내리면서 하마평이 무성했다. 그만큼 열풍 속에서, 인선 작업이 진행된 끝에 비로소 새 진용이 짜였다(**표 참조**).

먼저 대회위원회 본부장엔, 강석한(겨루기)·허의식(품새) 씨가 선임됐다. 강 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자리를 지킨 반면, 2019년 품새 분야를 총괄했던 이규현 본부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설된 부위원장직엔, ▲ 겨루기는 김귀전·김영식·허종수(이하 가나다순) 씨 ▲ 품새는 신충현·오방균·전철기 씨가 각각 올랐다.

대회위원회 각 위원회 위원장은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경기·심판·기록·질서대책·영상판독 등 5개 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 겨루기는 심판(천우필→ 김석중), 기록(신충현→ 최승옥), 질서대책(최정도→ 진장환) 등 세 개 위원회가 ▲ 품새는 경기(최종식→ 신동수), 심판(박상수→ 김정록), 기록(최승옥→ 정효심) 등 역시 세 개 위원회가 위원장을 새로 맞았다. ▲ 겨루기 경기위원회(장명수)와 영상대책위원회(김갑수) ▲ 품새 질서대책위원회(노현래) 위원장은 유임됐다. 신설된 품새 영상판독위원회 위원장엔, 황선봉 씨가 임명됐다.

격랑이 인 대회위원회에 비해 스포츠공정·도장·심사·생활체육 쪽은 무풍지대였다. 스포츠공정위원회(유수철)와 도장심사공정위원회(김희도)를 비롯해 도장관리위원회(손성도), 심사관리위원회(최성주), 실버위원회(김용휘), 생활체육위원회(김창호) 모두 지난해에 이어 위원장 얼굴은 변함없었다.

대회위원회는 최창신 회장 체제가 들어서며 종전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름이 바뀌어 새로 태어났다. 최 회장의 소신과 철학이 깃든 명칭 변경이었다.

"기술심의위원회는 이름과 걸맞지 않은 소임으로 정당성을 잃음으로써 모든 위원이 자신이 맡은 역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 조직 명칭과 업무가 부합할 때, 자신의 소임을 충분히 인지함으로써 일을 처리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맥락에서, 동기 부여를 위한 처방전으로 대회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최 회장은 이처럼 역설하며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제까지 투입했다. 그런 만큼 이제 대회위원회가 정확하고 바르며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태권도 종가(宗家)' 위상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회위원회가 선봉에 서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 2020년도 각종 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대회위원회	본부장	겨루기		강석한
		품새		허의식
	부본부장	겨루기		김귀전 김영식 허종수
		품새		신충현 오방균 전철기
	위원회		위원장	부본부장
	경기	겨루기	장명수	김정윤 노명덕 이정산 최종식 함동천
		품새	신동수	김영석 이규호 이정연 정홍구
	심판	겨루기	김석중	강경훈 강길현 박영호 이해정 임택동 유삼형 한승민
		품새	김정록	김양우 이미옥 이봉한 이송학 임성빈 정용원 최정란
	기록	겨루기	최승옥	공기영 김남택 이병주 조승희
		품새	정효심	송광현 남궁숙 이희정
	질서대책	겨루기	진장환	김삼철 노재관 엄기원 황성수
		품새	노현래	이재욱 임락준 최상구 허만오 홍진표
	영상판독	겨루기	김갑수	강찬구 김소영 박문식 지용범 황철규
		품새	황선봉	김백수 박경식 안충기 조현덕
	경기력향상	겨루기	임종남	서정욱 여준기 박선영
		품새	김인기	이송학 설성란 차명환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스포츠공정			유수철	이호열 이기덕
공인			최진우	황종학 이용운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김희도	강래혁 황철
도장관리			손성도	박영일 남중진
심사관리			최성주	김성기 차동술
실버			김용휘	김진위 김경수 김영수
생활체육			김창호	정영모 김무인 최상구

태권도 체육 영재, 북구에서 꿈을 키웠다
스웨덴에서 겨울철 담금질로 내일을 봤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내일의 꿈을 키웠다. 비록 짧았던 담금질이었어도,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쌓으며 영글어 간 꿈이었다. "알차고 뜻깊었던 해외 전지훈련이었다."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왔다.

2019 태권도 체육 영재 특별 훈련이 바이킹 후손의 나라 스웨덴에서 펼쳐졌다. 지난 2월 12일 출국해 25일 귀국하는, 보름이 채 되지 않는 일정으로 실시된 겨울철 담금질이었다. 실제 훈련 기간은 12일(14~23일·일수 기준)에 불과했으나, 나름대로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이뤄진 전지훈련이었다.

이번 특별 훈련을 이끈 두 지도자(이재륜 서울 수송초등학교 코치, 이은정 전주초등학교 코치)는 한결같이 "시일은 짧았어도 오히려 밀도 높은 담금질이 이뤄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지도자 2명과 태권도 체육 영재 8명 등 총 10명(**표 참조**)이 참가한 이번 특별 훈련은 스톡홀름과 헬싱보리를 오가며 진행됐다. 세 세션으로 나뉘어 실시됐는데, ▲ 1차 훈련(14~16일)과 3차 훈련(23일)은 스톡홀름 나카 TKD 센터에서 ▲ 2차 훈련(17~22일)은 헬싱보리 헬싱보리 아레나에서 각각 벌어졌다.

특히, 실전 경험의 장도 마련돼 한층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차 훈련 중 헬싱보리에서 열린 제5회 WT(세계태권도연맹) 프레지던트컵 유러피언 대회(**오른쪽 사진**)에 참가해 귀중한 해외 무대 경험을 쌓았다. 체격 조건이 좋은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를 풀어 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점은 또 하나의 소득이었다.

이번 특별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아울러 북구의 이색적 풍광과 낯선 문물을 접하며 소양도 닦았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은 넓은 수면과 운하로 말미암아 '북구의 베네치아'로 불린다. 스코네주에 자리한 헬싱보리는 "헬싱족의 성(城)'이라는 뜻으로, 일명 '해협의 진주'로 일컬어진다.

■ 2019 태권도 체육 영재 특별 훈련 참가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지도자			이재륜	서울 수송초등학교 코치
			이은정	전주초등학교 코치
선수	남자	-45kg	최민우	전주 남초등학교
		-49kg	최봉혁	안양초등학교
		-65kg	안태현	천안 신용초등학교
		+65kg	정민재	용연초등학교
	여자	-41kg	김향기	무안초등학교
		-44kg	하윤서	대전 서원초등학교
		-51kg	곽현지	대구 북부초등학교
		+59kg	김명서	서울 수송초등학교

TPF,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 16개교 선정 태권도 수업 지도 사범 21명도 모집



지난해 중부대에서 열린 유학생 대상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

태권도진흥재단(TPF·이사장 이상욱)은 태권도 저변 확대와 청소년의 인성·체력 증진을 위해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대상 16개 학교를 선정했다.

올 1월부터 진행한 사업 대상 학교 모집에 전국 80여 개 교가 지원한 가운데, 서울 송곡여고, 대구 일마이스터고, 대전 법동중, 전북 진안공고 등이 선정되었다. 이들 학교는 3월부터 학급당 주 1회(총 30회) 태권도 수업을 진행한다. TPF는 3,700여 명의 청소년에게 태권도 수련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PF는 이를 위해 태권도 수업을 지도할 사범 21명도 모집했다. 이들은 태권도 지도 경력과 사범 자격증 및 공인 단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됐고, 지도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별도 교육을 무주 태권도원에서 이수한 뒤 교육 현장에 투입된다.

이상욱 이사장은 "KTF는 태권도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지도 경력을 갖춘 사범님을 통해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TPF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대상 학교들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시 태권도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등 감염병 확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지원 대상 중·고교 명단

▲송곡여자고등학교, 면목고등학교, 창동고등학교, 전동중학교, 해성여자고등학교, 잠실고등학교(이상 서울 지역) ▲대구 일마이스터고등학교 ▲인천 백석중학교 ▲국제고등학교, 동신고등학교(이상 광주 지역) ▲대전 법동중학교 ▲경기 고양 오마중학교 ▲ 군산 영광중학교, 진안공업고등학교, 장수 장계중학교(이상 전라북도 지역) ▲ 전남 담양 창평고등학교

태권도원, 올 여름 대규모 태권도 대회·행사 유치 글로벌 무술 문화 교류 축제 비롯해 줄줄이 열려



지난해 태권도원에서 열린 글로벌 무술 문화 교류 축제

올해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와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글로벌 무술 문화 교류 축제 등 대규모 태권도 행사가 태권도원에서 치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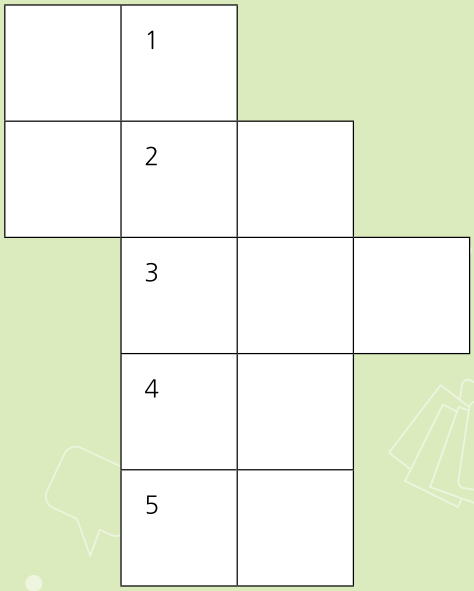
태권도원 개최가 확정된 국제 태권도 대회·행사는 글로벌 무술 문화 교류 축제(7월 17~20일),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7월 29~8월 3일),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8월 5~10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무술 문화 교류 축제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참가국 무술을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지난해에는 16개국 6,000여 명이 참가했다. 30여 개국 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태권도 대회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통 체험과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문화를 알리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이어 열리는 김운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에는 60여 개국 4,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G1 대회로서 순위별로 세계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등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낱말 맞히기

정리 편집팀
상품 후원 아디다스



문제

1. 우슈(武術)는 이 나라 고유 전통 무술이다.
2. 1973년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라이트급 (-64㎏)에서 우승했다.
3. 2000 시드니 올림픽 때 첫 종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지금은 세계 무도 스포츠의 으뜸으로 자리매김했다.
4. 정신 수양과 신체 단련을 위하여 주먹을 놀리어서 하는 운동이다.
5. 무예를 닦는 곳이다. 불교에선,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으로, '도량'이라고 일컫는다.



애독자 선물

『태권도』 낱말 맞히기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도복을 선물로 드립니다.

☞ 맞는 도복과 배송 시 확인을 위해 입을 분의 키(㎝)와 상의 크기(100·105 등) 및 연락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02-420-4271~3으로 연락해 당첨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번 호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② 본인이 전화로 확인한 후 상품이 발송됩니다.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전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취소됩니다.

③ 상품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드리는 상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대한민국태권도협회『태권도』 편집팀 앞.



제178호 정답

		도
		교
올		
		림
		픽

제178호 정답자

노윤철(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77㎝, 105호, 010-6391-OOOO)
이소미(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64㎝, 100호, 010-2358-OOOO)
이윤호(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74㎝, 110호, 010-3021-OOOO)

RECORDING ROOM

정리 편집팀

2020 국가대표 선수(겨루기) 최종 선발 대회 (1월 16~17일. 양산 실내체육관)

남자 -54㎏급 최종 결승전

배준서(강화군청) 33:34 이민영(경희대학교)

동 순위 ① 배준서 ②이민영 ③ 김종명(대전체육고등학교)

동 -58㎏급

김용환(한국체육대학교) 10:2 조성호(한국체대)

동 순위 ① 김용환 ② 조성호 ③ 최원철(청주대학교)

동 -63·-68㎏급

진호준(안중고등학교) 15:13 조강민(한국가스공사)

진호준 21:19 조강민

동 순위 ① 진호준 ② 조강민 ③ 노민우(한국가스공사)

동 -74·-80㎏급

박우혁(한국체대) 6:1 김지석(한국체대)

동 순위 ① 박우혁 ② 김지석 ③ 김석배(삼성에스원)

동 -87㎏급

이승환(한국가스공사) 3;2 박인호(성남시청)

이승환 5(연장)3 박인호

동 순위 ① 이승환 ② 박인호 ③ 변길영(삼성에스원)

동 +87㎏급

배윤민(한국체대) 21:16 박재광(한국가스공사)

동 순위 ① 배윤민 ② 박재광 ③ 강연호(수원시청)

동 여자 -46·-49㎏급

강보라(영천시청) 23(기권)6 강미르(성주여자고등학교)

동 순위 ① 강보라 ② 강미르 ③ 문영선(설악고등학교)

동 -53·-57㎏급

김유진(한국체대) 7:1 김민정(한국가스공사)

동 순위 ① 김유진 ② 김민정 ③ 정은비(한국체대)

동 -62㎏급

전채은(고양시청) 8:10 장은지(경희대)

전채은 3(연장)0 장은지

동 순위 ① 전채은 ② 장은지 ③ 한수연(용인대학교)

동 -67㎏급

송다빈(효정고등학교) 9:5 김잔디(삼성에스원)

동 순위 ① 송다빈 ② 김잔디 ③ 배혜인(청주시청)

동 -73㎏급

명미나(경희대) 6:4 전소희(청주시청)

동 순위 ① 명미나 ② 전소희 ③ 황지은(조선대학교)

동 +73㎏급

안새봄(춘천시청, 9:8 윤도희(한국체대)

동 순위 ① 안새봄 ② 윤도희 ③ 김효정

2020 국가대표 선수(품새) 최종 선발 대회 (1월 18~19일. 양산 실내체육관)

공인 품새

▲ 남자 유소년부 개인전 결선

① 김태우(원천중학교) 7.75점 ② 이윤찬(연무중학교) 7.65점 ③ 심준영(용수중학교) 7.65점 ④ 임상웅(금촌중학교) 7.62점 ⑤ 김효범(대구 학남초등학교) 7.61점 ⑥ 김민수(대구 남송초등학교) 7.58점 ⑦ 김형근(인천 가현중학교) 7.57점 ⑧ 김동우(남외중학교) 7.56점 ⑨ 이진(산남초등학교) 7.51점 ⑩ 김요셉(연수중학교) 7.5점

▲ 동 청소년부

① 신우성(신길고등학교) 7.86점 ② 남경수(사직중학교) 7.79점 ③ 윤제욱(부산 디지털고등학교) 7.78점 ④ 추종우(부일 전자디자인고등학교) 7.76점 ⑤ 김상우(매탄고등학교) 7.75점 ⑥ 이현민(천안공업고등학교) 7.75점 ⑦ 정민혁(무원고등학교) 7.75점 ⑧ 오민혁(학남중학교) 7.52점

▲ 동 30세 이하

① 강완진(경희대학교0 7.92점 ②박기현(경희대) 7.86점 ③ 천현호(한국체육대학교) 7.85점 ④ 강민성(한국체대) 7.82점 ⑤ 이현식(한국체대) 7.81점 ⑥ 박지원(경희대) 7.81점 ⑦ 김영재(경희대) 7.73점 ⑧ 김선호(용인대학교) 7.72점 ⑨ 이종범(조선대학교) 7.7점 ⑩ 홍도균(한국체대) 7.69점 ⑪ 박윤승(한국 나사렛대학교) 7.69점 ⑫ 김동윤(한국체대) 7.66점 ⑬ 최중규(경희대) 7.66점 ⑭ 오창현(용인대) 7.66점 ⑮ 유슬찬(우석대학교) 7.65점

▲ 동 40세 이하

① 지호용(태권도 고수회) 7.71점 ② 장재욱(경희대 보람 태권도장) 7.7점 ③ 지호철(태권도 고수회) 7.69점 ④ 노민기(청지회 태권도장) 7.68점 ⑤ 이상민(〃) 7.5점 ⑥ 김도경 7.44점 ⑦ 이동원(〃) 7.43점 ⑧ 진승훈(태권도 고수회) 7.42점 ⑨ 유동걸(청지회 태권도장) 6.93점

▲ 동 50세 이하

① 이진하(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7.74점 ② 김학동(태권도 고수회) 7.69점 ③ 서경오(한국체대 경연 태권도장) 7.64점 ④ 송기성(태권도 고수회) 7.59점 ⑤ 강재홍(제이칼리쿠) 7.55점 ⑥ 김민상(고비 원주 태권도장) 7.51점 ⑦ 원명구(태권도 고수회) 7.47점 ⑧ 이철희(경희대 일반부) 7.45점 ⑨ 송재삼(청지회 태권도장) 7.4점 ⑩ 황병선(태권도 고수회) 7.29점

▲ 동 60세 이하

① 엄재영(대망 태권도) 7.61점 ② 신점화(한가림 태권도) 7.47점 ③ 배용신(화랑 체육관) 7.45점 ④ 정상효(부림 체육관) 7.44점 ⑤ 임병영(서면 체육관) 7.3점 ⑥ 정재윤(청지회 태권도장) 6.86점

▲ 동 65세 이하

① 이강수(태권도 골든 로드) 7.54점 ② 강재진(MIRACLES 백봉태권도장) 7.42점 ③ 서동균(아카데미 국가대표 태권도장) 7.4점 ④ 허갑철(한가림 태권도) 7.32점 ⑤ 정기인(태권도 고수회) 7.18점 ⑥ 이상문(연세 태권도장) 6.84점

▲ 동 65세 초과

① 이병채(한가림 태권도) 7.72점 ② 윤원상(태양 체육관) 6.85점 ③ 정창년(태권도 골든 로드) 6.58점

▲ 동 여자 유소년부

① 서채원(상모초등학교) 7.91점 ② 장소연(상모중학교) 7.91점 ③ 김가은(옥천여자중학교) 7.85점 ④ 신유빈(예솔초등학교) 7.83점 ⑤ 신유경(단원중학교) 7.7점 ⑥ 서의경(송도초등학교) 7.68점 ⑦ 유다인(오정초등학교) 7.67점 ⑧ 원정원(대구 남송초) 7.66점

▲ 동 청소년부

① 이주영(조원중학교) 8.1점 ② 유민영(가좌고등학교) 8.05점 ③ 김주하(천마중학교) 7.9점 ④ 박은서(명덕여자고등학교) 7.87점 ⑤ 권민서(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7.87점 ⑥ 이채은(인천 디자인고등학교) 7.85점 ⑦ 최영은(능동중학교) 7.83점 ⑧ 박채원(부천여자중학교) 7.8점 ⑨ 이서진(상지여자고등학교) 7.8점 ⑩ 김다인(상모고등학교) 7.73점

▲ 동 30세 이하

① 김지수(경희대) 7.87점 ② 김효민(한국체대) 7.87점 ③ 최수영(조선대) 7.87점 ④ 이소영(경희대) 7.87점 ⑤ 신비한(한국체대) 7.83점 ⑥ 심소미(용인대) 7.83점 ⑦ 이효민(경희대) 7.78점⑧ 김보선(한국체대) 7.78점 ⑨ 정지민(금오여자고등학교) 7.77점 ⑩ 홍석희(용인대) 7.77점 ⑪ 정승연(용인대) 7.76점 ⑫ 한다현(안화고등학교) 7.7점

▲ 동 40세 이하

① 강유진(남창 체육관) 7.86점 ② 황초롱(천권 태권도장) 7.78점 ③ 김미현(한국체대 중평 태권도장) 7.72점 ④ 김아영(태아 일체 태권도장) 7.6점 ⑤ 주희(청지회 태권도장) 7.53점 ⑥ 김은주(태아 일체 태권도장) 7.36점

▲ 동 50세 이하

① 김연부(국가대표 참 태권도장) 7.8점 ② 김은주(제이칼리쿠) 7.51점 ③ 김효숙(국가대표 태권도장) 7.49점 ④ 서지흥(청지회 태권도장) 7.48점 ⑤ 하인숙(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7.21점 ⑥ 김민화(리더스 태권도) 7.03점 ⑦ 박혜진(고비 원주 태권도장) 7.01점

▲ 동 60세 이하

① 서영애(전주 비전대학교 일반부) 7.62점 ② 김은숙(국가대표 참 태권도장) 7.42점 ③ 전애연(청지회 태권도장) 7.3점

자유 품새

▲ 남자 17세 이하 개인전 결선

① 장운태(송라중학교) 7.62점 ② 박세정(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7.62점(이상 2차 결선순) ③김상민(인천 정보산업고등학교) 7.18점 ④ 이준서(한백고등학교) 7.12점 ⑤ 한재현(천안 불무중학교) 7.04점 ⑥ 엄한빈(가락초등학교) 6.88점

▲ 동 17세 초과

① 윤규성(서울 아이티고등학교) 7.8점 ② 김상엽(우석대) 7.78점 ③ 김민석(경희대) 7.78점 ④ 이종화(가천대학교) 7.72점 ⑤ 최재영(미르메 태권도장) 7.68점 ⑥ 김지원(천안 업성고등학교) 7.68점 ⑦ 김영석(한국체대) 7.62점 ⑧ 이학웅(한국체대) 7.58점 ⑨ 권영인(성포 경희 체육관) 7.58점 ⑩ 강민혁(용인대) 6.9점

▲ 동 여자

① 송경선(용인대) 7.62점 ② 곽여원(강화군청) 7.6점 ③ 장한별(미르메 태권도장) 7.56점 ④ 이지영(성포 경희체육관) 7.52점 ⑤ 최동아(경희대) 7.26점 ⑥ 김유하(효자고등학교) 7.22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KTA





ADIDAS TAEKWONDO

adidas



심재영 (고양시청)


GERMANY
29 JULY 1948 14 AUGUST
LONDON
Barcelona '92

이고은 (한국가스공사)



대한민국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